

김성군
변호사

160 main street
Stoneham, MA 02180
781.438.6170
www.songkimlaw.co

보스톤 코리아

BOSTONKOREA.com

뉴스타
부동산

주택 / 콘도
비즈니스 / 건물
617.921.6979
danielparknewstark.com
DianaPark.com

POSTMASTER: Send Address Changes to 161 Harvard Avenue, Suite 13, Allston, MA 02134

전화: 617-254-4654, 광고문의 전화: 617-775-8474

ISSN 1554-6942



지난 16일(한국시간) 오전 8시 58분에 정지, 9시부터 기울기 시작했다. 사진처럼 거의 대부분이 가라앉은 것은 오전 12시 20분 정도다.

진도 여객선 침몰, 사망 20 실종 276명

수학여행 가던 고교 2학년 200여명 실종, 부모들의 눈물바다로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장명술 기자 = 수학여행 고교생 등 465명을 태우고 인천항을 출발해 제주도로 향하던 여객선 세월호가 16일 오전 8시 58분께 (한국 현지시간) 전남 진도군 관매도 인근 해상에서 침몰, 20명이 사망

하고 276명이 실종상태다.

세월호에는 제주도로 수학여행을 가던 안산 단원고 2학년 학생 325명, 교사 14명 인솔(교사) 1명을 비롯 일반 탑승객 73명, 화물기사 33명, 승무원 24명, 기타 승무원 5명 등 총 462명이 탑승

하고 있었다. 이중 구조된 비율은 일반인들과 선원들이 압도적으로 높았고 학생 200여명이 실종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학생들의 피해가 큰 이유에 대해 대체로 학생들 ▶47면으로 계속

보스톤마라톤 한국 참가자들 “마라톤 Strong!”



너무 힘들지만 달리지 않고는 못견뎌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김현천 기자 = 보스톤마라톤 테러가 일어난 지 1년, 그때만 해도 보스톤에서 다시는 마라톤이 개최될 것 같지 않았지만 세계인들은 올해 “Boston Strong!”을 구현하고 있다.

매해 보스톤마라톤에 참가해 온 한국 참가자들 역시 지난해보다 더 늘어 “마라톤 Strong!”을 외치고 있다.

“너무 힘들지요. 하지만 그계 중독성이 있어요. 한번 맛을 보면 달리지 않고는 못배깁니다.”

이번 118회 보스톤마라톤에 참가하는 한국 선수들 중 전화 인터뷰에 응한 세 명의 공통된 말이다. 그들은 보스톤마라톤 테러에 대해서는 “올해는 보안이 더 강화됐다고 들었다”며 걱정하지 않았다.

전화인터뷰지만, 수화기를 타고 들려오는 목소리는 ‘보스톤마라톤에 대한 기대감’으로 들떠 있어 건강함이 느껴졌다.

“건강을 위해 달리기를 시작해서 마라톤에 입문, 급기야 세계적인 보스톤 마라톤까지 참가”하는 이들의 마라톤에 얹힌 이야기를 소개한다.

김계환(75세, 남)

“풀코스를 달리고 나면 그 성취감이 여러 날 간다”며 고령의 나이에도 보스톤마라톤에 출전하는 김계환 씨는 이번 참가자중 가장 나이가 많다.

88올림픽이 열리던 해를 기점으로 한창 마라톤 붐이 일던 때 건강을 위해 달리기를 시작, 지금까지 36년 간을 달려 왔다는 그.

“뛰는 동안 엄청난 힘이 드는 것은 사실이 ▶2면으로 계속

이민법
상법
민·형사소송
부동산 매매·부동산법

성기주 변호사
Kiju Joseph Sung

617-504-0609
Cambridge Office
929 Massachusetts Ave.
Cambridge, MA 02139
www.lookjs.com

2014년 할인항공전문

From **\$1116~**

보스톤 - 인천(왕복!) ONLY 1 Stop

4,9,10,11월 비수기 출발!

본 금액은 세금과 유류할증료가 포함된 가격입니다. 티켓가격은 항공사의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디즈니 패키지 투어, 고국투어, 크루즈, 호텔, 국내선 및 국제선 항공권 문의 바랍니다.

IACE TRAVEL

1-866-619-4223 (Toll Free) / 617-424-8956

한국어 상담 월~금 12pm~9pm
예약센터 영어, 일어 only 1-877-489-4223 (24/7)
이메일 info@iace-korea.com 온라인 예약 www.iace-korea.com
페이스북 www.facebook.com/iacetravelkorea

MORTGAGE MASTER

EXCELLENT RATES
LOW CLOSING COSTS
ADVICE YOU CAN TRUST

Ezer Lee
NMLS #859995
Mortgage Loan Originator
P (781) 591-2722
F (617) 395-6865
elee@mortgagemaster.com
www.mortgagemaster.com/elee
MA LIC # MLO859995

Call me today for a free pre-approval!

Jason Lee
NMLS #425194
Mortgage Master, Inc. NMLS #425194
Lender/Broker WC4251

44 Trapelo Road, Belmont, MA 02478

뉴스타 부동산의 나원태, 제이슨 전의 경험과 전문성으로 명쾌한 해답을 드리겠습니다

Lexington, Newton, Allston, Brighton, Cambridge, Boston

MA, RI 전 지역의 리스팅 구축, 빠른 정보 전달, 정확한 정보, 철저한 분석으로 최적의 결과 창출, 완벽한 팀워크를 통한 차별화된 부동산 마케팅 제공

나원태 Realtor
미주 전체 뉴스타 부동산 금탑 다수 수상
Direct: 617.642.3156
wonra@newstarrealty.com

Exclusive Listing: 단독주택

- Reading, MA/ \$549,500
- 방 3, 화 2, 2366 sf.
- 업데이트된 roof, kitchen, paint

제이슨 전 Realtor
미주 전체 뉴스타 부동산 금탑 다수 수상
Direct: 617.642.5670
jason.jeon@newstarrealty.com



(좌로부터) 김계환, 양정우/전진희 부부, 김순옥

▶▶1면에 이어서

테러에 대한 염려 없이 오로지 완주만 생각

다. 그러나 다 달리고 난 후에 느끼는 뿌듯함은 그 힘들었던 시간들을 몇 갑절 보상해준다”며 “중도에 포기하고 싶었던 적도 많았지만, 사실은 포기하는 것이 더 힘들다”고 뜻 깊은 말을 했다.

한국 마라톤 초창기 멤버인 김계환 씨에게는 참가할만한 대회가 많지 않았다. 10km 코스 대회 참가를 위해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기도 했을 정도. 동아 마라톤대회가 일반 참가자를 받기 시작하면서부터 정식으로 풀코스 대회에 참가할 수 있었다.

요즘도 매일 10km씩 달리고 있다는 김계환 씨는 75세이지만 병원을 찾지

않고 살아갈만큼 건강하다.

김계환 씨는 1947년 서인북 선수가 보스턴 마라톤에서 우승했을 때 보스턴 마라톤에 참가하는 꿈을 품었다. 당시 초등학교생으로 어린 마음이었지만 우리나라 선수가 세계적인 대회에서 1등을 했다는 것이 너무 자랑스러웠다.

“이제 드디어 어린 시절 꿈을 이루려 간다”는 그는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김계환 씨는 이번 보스턴에 와서 마라톤에 참가하는 것의 하고 싶은 일을 묻자 “유길준 기념관에 가고 싶다”는 바람을 보였다. 하지만, 혼자 찾아가지는 못할뿐더러 일행들의 일정에 보조를 맞춰야 하기 때문에 힘들 것

이라며 아쉬움을 표했다.

양정우/전진희 부부(50세 동갑)

동갑내기 양정우/전진희 씨는 이번 보스턴 마라톤에 부부가 나란히 참가한다. 결혼 전 첫 만남을 가진 지 30년 기념으로 이번 마라톤에 도전하는 이들 부부는 10여년 전 건강을 위해 마라톤을 같이 시작하고 나서 더욱 사이가 돈독해졌다고

처음 친구의 권유로 시작한 10km 코스 달리기와 이제는 풀코스 마라톤을 뛰지 않고는 견디지 못할 정도까지 됐다.

“오죽하면 풀코스 마라톤을 두고 ‘고통을 즐기는 코스’라고 일컫겠냐”고 말한 양정우 씨는 “엄청난 고통을 이긴 후 돌아오는 환희를 아는 사람들은 마라톤에 중독돼 버린다”고 말했다.

“연습을 계속하다 보면 힘든 것을 모르게 된다”고 적극 마라톤을 권하는 양정우 씨는 “처음 10km 지점까

지는 재미있다. 20km쯤 달리면 조금씩 힘들어 지다가 30km부터는 ‘마라톤 런 하이’라는 상황이 된다. 정말 극도로 힘든 상태가 돼 정신력으로 버틸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부인 전진희 씨는 주로 10km마라톤을 달리는 아마추어 수준. 하지만 남편 양정우 씨는 풀코스를 50여회 완주한 꽤 수준 높은 마라토너다. 기록 시간은 3시간 18분. 한국에서는 상위 15% 내 드는 수준이라고

김순옥(65세, 여)

“거기 지금 비 온다면서요?”

전화기를 통해 들려오는 기분 좋은 목소리는 보스턴의 날씨를 이미 파악하고 있었다. 그리고 이내 “마라톤 대회날도 비온다는데...더운 것보다는 낫네”라며 깔깔 웃었다.

느낌상 가정주부는 아닐 것 같았다. 역시나 설계사무소를 운영하는 여성 사업가란다.

태어난 폭염으로 주자들이 대거 나가 떨어졌던 2012년 보스턴 마라톤에 참가했던 김순옥 씨. 그녀가 다시 보스턴을 찾는다.

지난날의 굴욕을 만회하기 위해서 다시 온다는 김순옥 씨는 당시를 회상하며 “지금껏 정말 포기하고 싶었던 때는 그때였다”고 말했다.

출발선을 떠나 7km쯤 지나던 김순옥 씨는 앞서가던 지체장애인을 비켜 가려다 다리가 엉키는 바람에 무릎 부상을 입고 주저 앉았다. 우두커니 앉아 있을 수밖에 없었던 그녀는 상처의 고통과 그에 더해 폭염까지 상대해 싸워

야 했다.

극심한 고통으로 중도 포기하고 전철을 타려고도 했으나, 걷다가 뛰기를 반복하며 35km지점까지 왔다. 가까스로 40km를 넘어서자 더위를 먹은 탓에 탈진했다.

그날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기에 이번 마라톤에서 좋은 결과를 넘어서서 기억을 환기시키고자 오는 김순옥 씨는 요즘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왕복 8km 거리의 아차산을 돈다.

마라톤을 한 지는 10년, 대기업에 근무하던 중 건강이 약해지는 바람에 직장을 그만두고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 조깅을 시작했다가, 마라톤에 입문했다. 이후 오늘까지 쉬지 않고 매일 8~10km를 달린다.

마라톤을 위해 헬스 클럽에서 허리 근력 강화운동을 겸하고 있어 65세의 나이에도 군살 하나 없는 근육질의 몸매(163cm/52kg)를 유지하고 있다.

“마라톤을 생각하고 시작하기보다는 조깅을 한다는 생각으로 시작해 조금씩 늘려가다보면 풀코스 마라톤도 가능하다”고 말하는 그녀 역시 “마라톤은 끊을 수 없는 강력한 중독성이 있다”고 말했다.

마라톤을 “건강과 성격 모두 좋아지는 운동”이라 자신있게 말하는 김순옥 씨는 “보스턴마라톤은 응원객들로 인해 더욱 특별하다”며 “특히 달리다가 태극기를 보는 순간 힘이 솟는다”고 한인 응원자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hckim@bostonkorea.com

<진료 과목>
* 일반 치과 * 잇몸 질환 치료
* 신경 치료 * 보철 전문
* 보톡스 & 필러

주요 보험
Delta, BCBS, Aetna,
Cigna, MetLife,
MassHealth,
etc.

케임브리지 덴탈

큰 웃음을 드립니다
Cambridge Dental Associates
126 Inman Street
Cambridge, MA 02139
(617) 492-8210
한국어 진료 상담 가능

www.gracesalonsboston.com
영업 시간 월요일~금요일: 10시~7시
토요일: 9시~8시
예약을 하시면 기다리시지 않아도 됩니다.

각종 헤어 컷과 펌 그리고 스킨 케어
 젊음과 아름다움을 창조하는 곳!!

매직 스트레이트 Magic Straightening
브라질 케라틴 트리트먼트 Brazilian Keratin Treatment
Threading Threading
디지털 펌 & 셋팅 펌 Digital Perm & Setting Perm
아이론 펌 Iron Perm
헤어 컬러링 Coloring (GOLD WELL 사용)
헤어 메니큐어 (코팅) Hair Manicure
메니큐어 & 페디큐어 Manicure & Pedicure
왁싱 Waxing
얼굴 마사지 Facials
웨딩 서비스 Wedding Services

Grace Salon
프리미엄 토탈 헤어 살론
그레이스 컷팅 클럽
617-623-2430
56 Union Sq. Somerville, MA 02143
한국중합식품용 건물에 위치해 있습니다.

시민협회 정치인턴십 기금모금 만찬 성료

올해 장학생 늘어 9명 배출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김현천 기자 = 뉴잉글랜드한인 미국시민협회(이하 시민협회, 회장 이경해)가 올해 예년보다 많은 9명의 정치인턴을 배출했다.

올해 17번째를 맞는 정치인턴 후원 만찬은 지난12일 토요일 저녁 6시 렉싱턴의 엘크스 클럽에서 진행됐으며 지역 단체장 및 한인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치인턴들에게 장학금을 수여하고 격려했다.

이번 시민협회가 선발한 정치인턴들은 대학생 4명과 고등학생 5명으로 황주영(브랜다이즈 대학), 김승진(콜럼비아 대학), 이준석(브랜다이즈 대학), 박솔(코넬 대학), 최지원(노블 그리노우 스쿨), 추비츠리스(앤도버 고등학교), 장 티모시(도버 셔본 고등학교), 이병준(세인트 포울 스쿨), 양호상(웨스보로 고등학교)이다.

이들 중 대학생 인턴들은 오는 여름 방학 기간동안 워렌 상원의원 사무실에서 인턴십을 하게 되고, 고등학생들은 릴랜드 정 캠프리지 시의원 사무실에서 인턴십을 하게 된다.

행사장에는 엄성준 신임 총영사를 비롯해 마크 김 버지니아 주 하원의원,

테키 찬 의원, 릴랜드 정 캠프리지 시의원과 미셸 우 보스톤 시의원 등도 참석해 행사의 의미를 더해주었다.

시민협회는 그동안 협회활동에 힘을 보태 준 마크 김 의원과 김승진 사무총장에게 감사패를 증정했다. 또한 지난해 인턴으로 활동한 안유진 양과 윤수희 양이 활동보고와 함께 자신들이 체험을 통해 얻은 교훈 등을 보고했다.

버지니아 주 하원의원으로 활동하며 지난 2월 동해 병기 법안 통과를 위해 힘쓴 마크 김 의원은 기초연설자로 나서 ‘이민 1세대 한인들이 차세대를 위해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역설해 큰 호응을 얻었다.

마크 김은 “Today is tomorrow’s yesterday”라며 우리가 매일 살고 있는 오늘이 순간이 내일에는 과거가 되어 역사로 남는다”고 강조했다.

“이민 1세대들은 자신들이 만든 역사가 한인 차세대들의 귀감이 된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고 말한 그는 “그런데도 한인들은 미국 정치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꼬집으며 “정치적 이슈에 참여함으로써 역사를 변화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마크 김

의원은 그 일례로 버지니아 주 동해병 기법 통과를 들며 “독도에 대한 역사가 변화하고 있다”고 역설했다.

이경해 시민협회장은 시민협회의 대표적인 활동과 목적, 계획 등을 간략하게 보고했으며 참석한 한인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부임 후 공식적으로 한인들 앞에 나선 엄성준 신임 총영사는 한인들에게 첫 인사를 전한 후, “시민협회를 통해 한국사회와 미국사회에 기여하는 훌륭한 차세대 인재들이 많이 배출되기를 바란다”며 “시민협회 활동을 계속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만찬이 이루어진 후에는 바리톤 김동원 씨와 버

클리 음대 학생들로 구성된 재즈 그룹의 공연이 펼쳐졌다.

6년 간 시민협회를 이끌어 온 이경해 회장은 행사 후 “올해는 정치인턴십 신청자도 많고 시민권 신청 워크샵에 대한 문의도 늘어 시민협회의 위상이 많이 높아진 것을 느낀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회장은 “배출된 정치인턴들을 지속적으로 후원하는 1세대들의 노력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시안 아메리칸 위원회(AAC)의 위원으로 활동하기도 하는 이 회장은 “중국이나 베트남 커뮤니티와 비교해 한인 커뮤니티는 결집력이 더 필요하다”고 말하며 “미국 내에서 한인들의 위상이 높아지려면, 스스로 단결해서 커뮤니티를 키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hckim@bostonkorea.com



올해 정치인턴으로 선발된 장학생들, 좌로부터 김성군 이사장, 양호상, 이병준, 장 티모시, 추비츠리스, 최지원, 박솔, 이준석, 김승진, 황주영, 이경해 회장

보스톤코리아
BOSTONKOREA.com

영의 QR 마크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하시면
보스톤코리아
홈페이지로
자동 연결됩니다



Publisher & C.E.O

장명술 Myong Sool Chang

Writer

김현천 HyunCheon Kim
정성일 Sungil Jung
박현아 HyunAh Park
오현숙 HyunSook Oh

Graphic Designer

양성대 SoungDae Yang

Marketing

최성우 SeongWoo Choi

Web Master

정한웅 HanWoong Chung

Contribution part

백린 Rin Paik
신영각 YoungGak Shin
공정원 JungWon Gong
김은한 EunHan Kim
백영주 YoungJoo Paik
성기주 Kijoo Sung
신영 Young Shin
윤희경 HeeKyung Yoon
이명덕 MyoungDuck Lee
앤드류콕 Andrew Koak
앤젤라엄 Angela Um
정준기 JoonKi Jung
이선영 SunYoung Lee
소피아 Sophia
홍하상 HaSang Hong
오승준 Albert Oh
이명원 Myung Won Lee
장동희 Donghee Jan
김화옥 HwaOk Kim

& TV 사업국

617-955-9459

레이디경향

617-775-8474

제휴업체 | 연합뉴스 | 미신협 회원사 | 세한연 회원사



맞춤식 교육 Mathematics • Verbal • Testing Skill

SAT Plus

SAT Plus Summer Schedule 2014

June 7/7 - 7/25 (3 Weeks)

Class	Time
SAT I Prep	8:00AM - 12:00PM (MORNING)
SAT I Prep	1:00PM - 5:00PM (AFTERNOON)

August 8/4 - 8/22 (3 Weeks)

Class	Time
SAT I Prep	8:00AM - 12:00PM (MORNING)
SAT I Prep	1:00PM - 5:00PM (AFTERNO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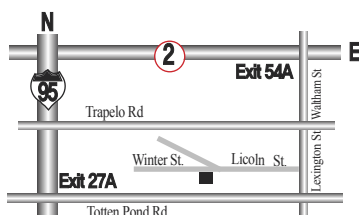
Rocky Hill School 과학 및 수학교사 Disciplinary Committee

MIT 생물학 학사학위

Who's Who Teachers of America-1992년 선출

Tandy Award Finalist(수학 및 과학분야 우수교사 표창)

지난 10년간 SAT I 및 SAT II 개인교습



SAT I 및 SAT II 준비 전문학원

TEL: 781-398-1881

2 Winter Street Suite 104, Waltham, MA 02451



“항상 Tutoring이 가능합니다!!”

English Writing, Biology, History, Chemistry, Math, Physics

10년 이상의 지도경력으로 우수한 학생을 배출하신 한상훈 선생님이 항상 지도하시고 계십니다.

엄성준 신임 총영사 인터뷰

“보스톤 한인사회의 변화 창조적으로 이루어보겠다”

외자유치 경험 바탕으로 한국과 보스톤 지역간 투자가능성 검토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김현천 기자 = “변화와 창조” 엄성준 신임 주보스톤 총영사는 보스톤에 오면서 이 말을 신조로 삼았다고 말했다. 보스톤 한인사회의 발전적인 변화를 이루어 보고자 한다는 말이다.

지난 16일 지역 언론사 기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뉴잉글랜드 지역 한인사회에 대한 구상을 밝힌 엄성준 신임 총영사는 3일 부임한 이후 지역 한인단체장 및 원로들을 만나 한인사회를 보다 발전시키기 위한 방안들을 논의하는 한편, 로드아일랜드 주지사를 만났다.

임기 동안 한인사회의 위상과 발언권 제고에 힘쓰는 한편, “인천 국제관계대사 때 경험을 바탕으로 한국과 보스톤 지역간 투자 가능성을 검토해 보고자 한다”는 엄 총영사는 “한국과의 학술, 문화뿐 아니라 정치, 경제 분야의 협력 강화에도 힘쓰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다음은 엄성준 주 보스톤 총영사와 나눈 인터뷰다.

지난 3일 부임해 2주간 행보는 어땠는지?

외교관이 부임하면 맨 처음하는 일은 인사 다니는 일이다. 먼저 뉴잉글랜드

드 5개 주에 있는 한인회 회장들께 전화로 인사 드리고 그밖에 한인사회 원로들께도 인사 드리고 있다. 아직 인사드리지 못한 분들도 많아서 죄송스럽지만, 기회가 되는대로 많이 다니려고 한다.

보스톤 부임 소식을 접했을 때 소감과 보스톤 지역 한인사회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다면 어떤 건지 궁금하다

주보스톤 총영사로 임명된다는 통보를 받았을 때 큰 영광이라고 생각했다. 보스톤에 대해서는 미국 내에서도 매우 중요하고 역사적으로 의미가 크다는 점을 강조하는 얘기들을 주변에서 많이 해줬다.

보스톤 지역 한인사회에 대해서는 매우 수준이 높다는 말과 함께 총영사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들었다. 신임 총영사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갖게 되었다.

보스톤 부임 후 제일 먼저 참석한 한인사회 공식행사는 과기협 수학경시대회와 이어 시민협회 정치인턴십 금모금 만찬인데, 직접 본 한인사회 느낌은 어땠나?

뉴잉글랜드 과학기술자협회 회장 및 임원 여러들의 성의있는 준비, 그리고

대회에 참석한 학부모들의 교육열기를 느끼며 우리 한인사회 차세대 미래가 밝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다. 또한 시민협회 기금 만찬장에서는 앞으로 한인사회가 추진해야 할 가장 중요한 활동이 아닌가 생각되었다. 이경해 회장과 김성균 이사장을 비롯한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명을 받았고 마크 김 버지니아주 하원의원의 열정이 인상적이었다.

이민 차세대 인재 사업에 대해 한국 정부의 관심이 큰 것으로 안다. 보스톤은 교육 도시인 만큼 차세대 인재를 비롯해 유학생 인재들도 많은 곳인데, 주보스톤 총영사관이 한국정부와 이들의 교량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특별한 구상이 있다면 부탁한다?

이민 차세대 인재를 키우고 지원하는 데 한국 정부의 관심은 매우 크다. 보스톤에 미국의 우수한 교육기관이 많이 있고 또한 한인 학생들이 많이 있으므로, 한인 학생들이 대한민국의 역사와 문화에 대해 자부심을 갖고 학업에 매진할 수 있도록 여건 조성에 최대한 노력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한인 학생회와 한인단체들과 협의하여 구체적인 활동을 해 나가고자 한다.



지역 언론사와 간담회를 갖고 한인사회의 발전을 위한 포괄적인 구상을 밝힌 엄성준 총영사

총영사 임기중 가장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무엇인가?

부임한지 얼마 안되었기 때문에지역사회 한인단체 원로들과 광범위한 협의를 갖고 업무계획을 세워 나가고자 한다. 무엇보다도 한인사회의 위상과 발언권을 제고하는 일, 뉴잉글랜드지역과 한국과의 정치, 경제, 학술, 문화 협력을 강화하는 일에 역점을 두고자 한다.

2014년 주보스톤총영사관의 역점사업이 있다면 밝혀달라?

뉴잉글랜드 지역 한인사회 권익신장 지원, 영사서비스 강화, 한국 문화예술 홍보 강화, 차세대 인재 지원, 전문직 비자쿼터 확대 노력, 한인 학생 한글 및 한국 문화교육 지원, 뉴잉글랜드 지역 대학과 석학 네트워크 강화, BT, IT 등과 학기교류 확대, 한-뉴잉글랜드 정치, 경제, 문화 교류협력 확대 등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중이다.

인천 국제관계 자문대사를 역임하셨는데, 어떤 일을 하셨는지 대표적인 일을 좀 알려 달라.

현재 외교부에서는 서울, 인천을 포함한 15개 지방자치단체에 국제관계 자

문대사를 파견하고 있다. 인천광역시 는 송도국제도시를 개발하였고 13개 국제기구를 유치하여 국제관계업무가 크게 확대되고 있다. 금년 1월부터 글로벌기후기금(GCF)가 송도에서 활동을 개시하였는데 국제기구 활동을 지원하고 국제회의에 참석하여 왔다. 또한 인천광역시의 경제자유구역은 국내 8개 지자체에서 경제자유구역을 운영하고 있는데 인천경제자유구역(송도, 영종, 청라 포함)이 매년 수익률의 외자를 유치하면서 가장 성공적인 경제자유구역으로 꼽히고 있다. 인천에서 중국, 일본 등 주요 국가들의 외자유치 경험을 바탕으로 한국과 뉴잉글랜드 지역간 투자 가능성을 검토해 보고자 한다.

전 박강호 총영사는 인천, 보스톤 직항을 위해 힘썼지만 힘든 일이라고 털어놨다. 후임 총영사로서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할 의향은 있는지?

인천-보스톤 직항을 회복하는 것이 보스톤과 뉴잉글랜드 한인사회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대한항공, 아시아나 등 국적 항공사로서는 수익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는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직항로와 뉴잉글랜드 한인사회 발전이 닭과 달걀이라는 측면이 있다. 앞으로도 국적 항공사들과 직항로 개설에 대해 계속 협의해 나가고자 한다.

월요일 민원시간 연장은 지속되는지?

교포들이 원하는 일이라면 계속 할 것이다. 전임 총영사가 한 일 중에서 좋은 일들은 계속되도록 하겠다.

hckim@bostonkorea.com

나쁜 치아를 만났다면 좋은 의사를 만나야 합니다.



진료과목
일반치과
신경치료
잇몸질환치료
보철전문
보톡스&필러

주요 보험
Delta, BC/BS,
Aetna, Cigna,
Metlife, etc...

한국인
진료 상담 가능
응급치료 가능

캠브리지 덴탈 어แนक्स
Cambridge Dental Annex

617.871.1482

Tel 617.871.1482
Fax 617.871.1483

www.yasuboston.com



야수 레스토랑

자녀를 위해 요리하는 엄마의 마음을 담았습니다

야수는 작은 나물에서부터 요리 하나하나까지 자녀들을 기르는 어머니의 마음으로 만듭니다. 직접 만들어 손맛이 들어있는 야수의 음식 - 맛과 건강을 생각하신다면 야수를 찾아주세요.

YASU RESTAURANT
Telephone 617.738.2244
1366 Beacon Street, Brookline, MA 02446



단체예약
주문음식

23회 뉴잉글랜드 과기협 수학경시대회 성황리에 개최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김현천 기자 = 올해 23회째를 맞은 뉴잉글랜드 과기협(회장 이재형) 수학경시대회가 100여명의 응시자가 몰린 가운데 지난 4월 12일 토요일 MIT에서 개최됐다. 올해 경시대회에서 1등 총영사상은 필립스 아카데미(Philips Academy, Andover)에 재학중인 김지석 군(11학년)과 윈체스터 고등학교(Winchester High School)의 김요한(John Na, 10학년) 군이 차지했다.

이번 대회는 재미과학기술자협회(KSEA) 뉴잉글랜드 지부, 뉴잉글랜드 지역 한국학교 협의회, MIT 한인 대학원 학생회, MIT 한인 학생회가 공동주최한 것으로, 과기협 뉴잉글랜드 지부(KSEA NE chapter) 부회장 겸 회장 당선자인 조진행 박사가 전반적인 행사를 총괄했다.

KSEA National Math Competition을 겸하여 미주 전역, 오스트리아, 싱가포르 및 캐나다에서 동시에 치러진 이번 대회에서는 예년에 비해 동점자가 많아 'tie break rule'로 시상자가 결정되는 치열한 경쟁이 있었다고 한다. 이날 행사에는 새로 부임한

엄성준 총영사가 참석하여 축하와 함께 시상에 도움을 주었으며, 뉴잉글랜드 지역 한국학교 협의회 한순용 회장이 인사말을 그리고 같은 기관의 장인 숙 이사장, 뉴잉글랜드 한국학교 남일 교장,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회 김성혁 회장이 시상에 참여했다.

학생들은 50분~75분간 시험을 치렀고, 시험이 치러지는 동안 학부모들은 임시 교육에 대한 강연과 학생들 건강 관리법에 대한 강연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강연은 보스톤 교육원의 정준기 원장이 자녀를 명문대에 보내고자 하는 학부모들의 입시 준비에 도

움이 될 수 있도록 '가장 효율적인 명문대 진학 방법'을 알렸다. 이어 해민 한의원의 박미경 원장이 학생들의 발육과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음식, 운동 및 생활 습관 등에 대한 강연을 통해 최상의 상태로 공부에 전념할 수 있는 몸 상태를 유지하는데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였다.

학생들이 시험을 마치고 돌아온 다음에는 MIT학부에 재학중인 학생들로부터 공부하는 법과 입시와 관련된 내용들, 그리고 캠퍼스 생활에 대한 부분을 다 함께 듣는 시간을 가졌고 Q&A session을 통해 개별적으로 가

지고 있는 궁금증을 해소하는 시간도 가졌다.

행사를 주관한 재미 과기협 뉴잉글랜드 지부 이재형 회장은 "올해도 많은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는 모습을 보고, 이 지역에서 수학교육에 대한 관심과 열정을 몸소 느낄 수 있었다. 우리 NE 과기협이 이에 조금이나마 기여를 할 수 있다는 사실에 보람을 느끼고, 모든 후원 기관과 임원들을 포함한 자원봉사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한다."고 밝혔다.

hckim@bostonkorea.com



▶▶6면으로 학년별 수상자 명단 계속



Frank Y. Shin, D.M.D
현 Tufts 치과대학 부교수



신영목치과

- 치아 이식 수술 (Implants)
- 미용치과 (Veneers/Bleaching)
- 아말감 대신 치아색으로 [Composite Fillings]
- 응급환자 당일치료
- 토요일도 진료함
- 각종보험 지정병원

www.drfrankshin.com

617.265.5606

1428 Dorchester Ave. Boston, MA 02122



가주 순두부 & 샤부샤부

한식&일식

"2013년 보스톤 잡지 선정 한식1위인 가주순두부 이제 얼스톤과 캠브리지 두곳에서 모시겠습니다."

영업시간은
오전11시~ 밤11시까지 입니다.

얼스톤 주소: 56 Harvard Ave., Allston, MA 02134 (617) 208-8540
캠브리지 주소: 57 JFK St., Cambridge, MA 02138 (617) 864-6868



단체예약과 문의 가능

뉴잉글랜드 교회협의회 부활절 연합예배

(보스턴 = 보스턴코리아) 김현천 기자 = 뉴잉글랜드 교회협의회 소속 50여 교회가 연합해 부활절 새벽예배를 개최한다

예배는 부활주일인 오는 4월 20일 아침 6시 렉싱턴에 소재한 성요한교회에서 진행되며, 뉴잉글랜드 지역 한인 은 누구나 참석할 수 있다.

부활절 메시지는 교회협의회 회장

김덕기 목사(임마누엘 연합교회)가 전하게 되며, 케임브리지한인교회 성가대와 지역 목회자들로 구성된 KLAY 중창단 찬양을 맡는다.

매년 부활절연합예배 때 장학생들을 선발하여 지역 학생들과 청년들을 격려해 온 교회협의회는 올해에도 다섯명을 선정하여 장학금을 전달할 예정이다. 장학금 후원에는 보스턴서부장로교회, 보스턴한인교회, 북부보스턴한인연합감리교회, 아름다운교회, 좋은감리교회, 케임브리지한인교회 등이 참여했다.

부활절연합예배 후에는 성요한교

회 친교실에서 함께 음식을 나누며, 서로 부활절을 축하하는 교제의 시간도 마련된다. 뉴잉글랜드 교회협의회 측에서는 “2014년 뉴잉글랜드 교회협의회 부활절 연합예배를 통해 봄의 새 기운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새 생명의 기쁨과 소망이 지역 교회와 교민들에게 충만하기를 기대한다” 고 전했다.

일시: 2014년 4월 20일, 아침 6시
장소: 성요한교회 2600 Massachusetts Ave, Lexington, MA 02421

설교: 김덕기 목사
hckim@bostonkorea.com

국제가정결혼선교회 기금모금 만찬

(보스턴 = 보스턴코리아) 편집부 = 국제결혼가정선교회(이하 국제선, 회장 미나)가 오는 4월 26일 토요일 저녁 6시 하버 힐에 위치한 Diburo's Function Facilities - Ward Hill에서 기금모금 만찬을 개최한다.

국제선 측에서는 “은세계가 경제불황으로 힘들어 하기 때문에 올해는 기금 모금 만찬을 생략하려 했지만, 이럴 때일수록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생각으로 다시 개최하기로 했다” 고 전했다.

이어 “버림 받고 상처받은 한인들을 위해 장기프로젝트로 진행되고 있는 ‘평화의땅, 평화의 집 선교센터’를 위해 많은 도움의 손길을 부탁한다” 며 많은 한인들이 참석해 주길 부탁했다.

궁금한문의사항은 yongsim7@gmail.com으로 하면 된다.

일시: 4월 26일 토요일 오후 6시 / 장소: Diburo's Function Facilities, 887 Boston Rd., Ward Hill, MA, 01835

bostonkorean@hotmail.com

뉴햄프셔한인회 ‘국적이탈신고’ 세미나

법률세미나, ‘미국 정부로부터 받는 이민혜택’ 견해

(보스턴 = 보스턴코리아) 편집부 = 뉴햄프셔한인회(회장 박선우)가 오는 5월 3일 뉴햄프셔에 위치한 뉴햄프셔장로교회에서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한인들을 대상으로 ‘국적이탈신고’ 및 법률세미나를 개최한다.

국적이탈신고 세미나는 주 보스턴

총영사관 소속 박중석 영사가 한국의 국적법과 병역법에 대해 전한다. 18세가 되는 해 3월 31일까지 국적 이탈 신고를 해야 병역이 면제되는 것과 관련해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므로, 18세 미만 이중국적자 자녀를 둔 부모들은 놓치지 말고 참석할 것을 권한다.

또한 장우석 변호사의 법률 세미나에서는 자동차 및 비즈니스 보험 청구, 이민자가 미국 정부로부터 받는 혜택에 대해 알릴 예정이다.

세미나에는 거주지역에 상관없이 누구나 참석이 가능하며, 입장료는 없다.

자세한 문의는 박선우 한인회회장 (603-767-1356)에게 하면 된다.

일시: 5월 3일 토요일 오전 10시~ 오후 1시 / 장소: 뉴햄프셔장로교회, 508 Union St., Manchester, NH 03104

bostonkorean@hotmail.com

▶▶3면 관련사진

시민협회 정치인턴십 기금모금 만찬



1. 마크 김 의원, 엄성준 총영사, 한선우 뉴잉글랜드 한인회장, 박선우 뉴햄프셔한인회장이 한 테이블에 앉아 정치인턴들의 보고를 경청하고 있다 2.지역한인들이 마크 김 의원의 연설을 들은 후 박수갈채로 호응하고 있다 3. 로드아일랜드 한인들도 멀리서 참석해 정치인턴들을 후원했다 4.이경태 시민협회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5.버클리 재즈 팀 공연

무료전화 1-888-666-1708

- 한국, 아시아, 미국내, 유럽, 남미 등
- KE, UA, DL, AA 등 모든 항공사 취급
- 항공권 특별 할인 제공
- 통역, 번역 서비스

유니버스 여행사
대표 최한길
Tel 617.739.2888
www.utsboston.net

Universe travel services
100 Hano Street #23A, Allston, MA 02134

공인회계사

정진수
CPA / MBA

개인 및 사업체 세무보고

- ▶ IRS문제 상담 및 해결
- ▶ 사업체 법인 설립과 해체
- ▶ 회계처리 및 감사
- ▶ 경영진단 및 절세 상담
- ▶ 융자 상담 및 재무재표 작성
- ▶ 급여(Payroll)서비스

TEL 781-849-0800, 508-580-3946 (한인전용)
FAX 781-849-0848
220 Forbes Rd., suite 206, Braintree, MA. 02184

공인세무사 김창근

- 개인 및 사업체 세무보고
- 사업체 법인 설립과 해체
- 경영진단 및 절세 상담
- 회계정리

미 연방정부로부터 공인된 세무전문가
Licensed to Practice Before the IRS

TEL: (781)935-4620 FAX: (781)935-4187
165-M New Boston St. Suite 278, Woburn, MA 01801

보스톤코리아 아이 리포터 모집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김현천 기자 = 보스톤코리아(대표 장명술)가 대학생 이상 지역 한인학생들을 대상으로 아이 리포터를 모집한다. 모집 인원은 5명, 지원 마감일은 오는 5월 9일까지이다.

보스톤코리아가 보다 생생한 지역 소식을 전하고자 모집하는 이 아이 리포터들은 보스톤코리아가 지급하는 아이패드 미니를 지급 받게 되고, 이것

을 사용해 자신이 속한 대학교나 단체, 주변 소식들을 기사로 작성해 1달에 3쪽지 이상 웹사이트에 게재하게 된다. 지급 받은 아이패드 미니는 1년 간 활동 기간이 끝난 후 소유하게 된다.

보스톤코리아는 선발된 아이 리포터들이 활동을 시작한 지 2달 후부터 매달 전체 기사 중 2건의 기사를 채택해 소정의료를 지급한다. 또한 보스톤코리아닷컴 이용 시 각종 혜택을 부

여한다.

보스톤코리아 아이 리포터로 활동하고 싶은 대학생 이상 학생들은 학교명과 전공(해당 포지션), 그리고 간단한 자기 소개서를 작성해 editor@bostonkorea.com으로 보내면 된다. 궁금한 사항은 전화 617-792-6876으로 문의하면 된다.

hckim@bostonkorea.com

슈퍼스타 k6 보스톤 예선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지난 해 보스톤을 처음으로 찾은 슈퍼스타 k(이하 슈스케)가 올해 여섯번째 시즌 해외 예선을 위해 보스톤을 다시 찾는다.

슈스케6 보스톤 예선전은 오는 4월 28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7시까지 버클리 음대에서 진행되며, 예선을 통과할

경우 한국행 항공권이 무료로 주어진다. 지역 예선 통과자들은 한국에서 치러지는 3차예선에 참가하게 되며, 이때부터는 '슈스케' 공식 심사위원들의 심사를 받게 된다.

3차 예선 통과자들은 2박3일 간의 슈퍼워크에 참가해 경합을 벌이게 된다. 100여명의 슈퍼워크 통과자들은 생방

송에 출연해 최후의 슈퍼스타 자리를 놓고 뜨거운 경합을 벌이게 된다. 최종 우승자에게는 5억원에 이르는 상금과 아시아 최고의 음악 시상식 MAMA(Mnet Asia Music Award) 스페셜 무대에 설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자세한 사항은 http://superstark.interest.me/support/guideUcc를 참조하면 된다.

슈스케 6 예선에 참가를 원하는 한

인들은 hongkong1218@cj.net으로 참가신청을 하면 된다.

hckim@bostonkorea.com

보스톤 유학생들 창업 설명회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보스톤 지역 한인 유학생들이 지역 한인들을 초청해 창업 아이템을 발표하고 사업 가능성을 설명해 보일 예정이다.

맵슨 컬리지 한인학생 학술동아리 '타이 오프(Tie-off)'가 주최하는 이 행사 'Tie-off AddVenture(a Dream-Discovered Venture)'는 오는 4월 19일(토) 오후 1시부터 맵슨컬리지 올린 홀에서 개최된다.

올해 처음으로 창업 초기 모델 공개 행사를 개최하는 타이 오프의 안동녕 회장은 "소개되는 아이템은 제품을 양산하기에 앞서 주변인들을 대상으로 마켓 실험 가능성을 검증받은 제품(또는 서비스)"이라고 밝히며 "최소한의 기능을 구현한 제품(Minimum Viable Product)"이라고



덧붙였다.

발표회에는 보스톤 지역 한인 중 창업에 관심이 많은 한인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궁금한 사항은 안동녕 (617-477-7969) 군에게 연락하면 된다.

일정: 4월 19일 오후 1시~4시

장소: 맵슨 컬리지 올린 홀 (Olin Hall) 102호

bostonkorean@hotmail.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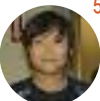
▶▶ 5면 관련사진



23회 뉴잉글랜드 과기협 수학경시대회 학년별 수상자 명단 (사진은 1등 수상자)



4학년
1등 하인철(InCheol Ha) Lt. Job Lane School
2등 김민아(Olivia Kim) Shaker Road School, NH
2등 박경준(Brian Park) William H. Lincoln School
입상 추선우(Claire Chu) Southfield
입상 장유신(Eushin Jang) Bridge Elementary School
입상 김윤성(Brian Kim) Michael Driscoll School



5학년
1등 주노 다릭(Juno Daciuk) Hastings Elementary
2등 이규호(KyuHo Lee) Fiske Elementary
3등 김정현(Anthony Kim) Conant



6학년
1등 윤호원(Nathan Yoon) Sharon Middle School
2등 안현준(HyunJun Ahn) Baker School
3등 조현상(Hubert Hyunsang Cho) Edith C Baker School
입상 서창우(Jeremy Suh) Pierce Schoo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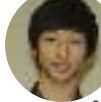
7학년
1등 이예찬(Ethan Lee) Pollard Middle School
2등 송다솔(Samantha Song) Pierce
2등 김유진(Eugene Kim) Clarke Middle School
입상 김태연(Taeyeon Kim) Koda Middle Schoo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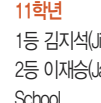
8학년
1등 추정수(Jung Soo Chu) Buckingham Browne and Nichols Middle School
2등 김지수(Jisoo Kim) Boston Latin School
입상 정원호(Kevin Zheng) Wilson Natick
입상 박형열(Alex Park) Bigelow Middle School



9학년
1등 최지나(Jeana Choi) Lexington High
1등 모감 다릭(Morgan Daciuk) Lexington High
3등 강성훈(Sunghoon Kang) Arlington Public High School
입상 프레드릭 최(Frederick Choi) Bishop Hendricken High School



10학년
1등 나요한(John Na) Winchester High School
2등 안령태(Ahaan Rungla) Rungla Home School
3등 장유진(Jinny Jang) Lexington High
입상 윤태현(Jack Yoon) Middlesex School



11학년
1등 김지석(Ji Seok Kim) Phillips Academy
2등 이재승(Jae Seung Lee) Newton South High School
3등 김명준(Daniel Kim) Lexington High
입상 박희수(Andrew Park) Mass Academy of Math & Science

BU '소리안' K-POP 공연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보스톤대학(Boston University)의 음악동아리 '소리안'이 오는 20일 일요일 7시30분에 모스 오디토리움(Morse Auditorium)에서 콘서트를 열고 자이언티의 '썬스루', 'All for you'를 비롯한 유명 K-Pop을 공연한다. 노래는 소리안 멤버들이 맡고 밴드는 버클리 음대생들이 맡아 신선하지만 아마추어 이상의 수준 높은 무대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공연 입장은 무료이며 자세한 문의는 Nick Kim (617-697-6846), Jenny Yoon (603-998-4643)에게 하면 된다. 일시: 4월 20일 오후 7시 30분 / 장소: Morse Auditorium, 602 Commonwealth ave., Boston.

bostonkorean@hotmail.com

Kim Law Offices, L.L.C.

성심을 다해 변호하겠습니다
김연진 변호사
Yeon J. Kim, Esq.

주요 경력
■ 前미연방 이민국 심사관
Boston지사 에서 만여건의 영주권 시민권 심사
■ 前 미연방 세관 특별수사관
NY지부 연방 범죄 관련 직접 수사
■ 前 미국 육군 심문관

업무분야
이민법 / 상법
형사법 / 가정법

Tel: (781) 932-0400 Fax: (781) 932-0403
3 Baldwin Green Common, Suite 210 Woburn, MA 01801

Attorney at Law
장우석 변호사

개인상해-교통사고, 미끌어짐, 낙상사고, 동물 물림
채무(개인, 세금)-신용카드, IRS, 사업 거래처 조정, 합의
파산법, 이민법, 추방소송 디펜스, 비즈니스 회계, 세무, 중개, 매매
민사소송, 형사소송 디펜스

상담문의: (781) 712-1706 CHANG & ASSOCIATES, P.C.
@ One Burlington Business Center
67 South Bedford Street, Suite 400 West,
Burlington, MA 01803

한미선 공인회계사
Master of Science in Taxation

IRS, MA DOR 와의 세금 문제 해결
사업체 세무보고 및 회계/경영 자문

- 회사의 설립 및 해체/ 회계처리/회계 감사
- QuickBooks Set-up - 비즈니스의 성격 및 구조에 맞는 기본설치 및 운영상담
- Payroll 서비스 및 고용주의 세금납세 대행

개인 세무 보고

- 해외 소득, 임대소득, 주식 등 투자, Self-employed 사업자, 자산 처분, Clergy, Military, F1, J1 Visa holders - 한국과의 Tax Treaty 하에 있는 분 등

각종 세금 공제 및 절세를 위한 세무 상담

Tel: 617-792-2355 Fax: 617-849-5852
E-mail: michellehan.cpa@gmail.com
www.mhancpa.com
Cambridge Office (Alewife Station)
125 Cambridge Park Dr. Suite 301
Cambridge MA 02140

뉴잉글랜드 한국학교 바자회

정성과 사랑으로 가득찬 학부모 바자회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김현천 기자 = 뉴잉글랜드 한국학교 학부모회(회장 이현주, 부회장 신보경)가 학부모들의 정성과 사랑으로 준비한 정기 바자회 행사를 성황리에 마쳤다.

지난 12일 토요일 2시간 가량 진행된 바자회는 학부모회 임원들과 각 반 대표 학부모들이 수주 동안 준비한 행사로, 김밥, 불고기덮밥, 떡볶이 등 어머니의 손맛이 느껴지는 음식들과 스무디 등 다양한 음식들이 준비돼 인기리에 판매됐다.

뉴잉글랜드 한국학교(교장 남일)는 학생들의 한국 역사와 문화교육 프로그램 지원, 그리고 학교 도서관 신규 도서구입 및 교사 연수를 후원하기 위

해 매년 봄 학부모들이 자발적으로 바자회를 개최해 오고 있다.

이현주 학부모회 회장은 “올 행사에는 문구류와 장난감 등을 제외하고 정성과 맛으로 준비한 음식 판매만으로 진행됐지만 많은 학부모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봉사 덕에 작년보다 많은 4천여불의 수익을 낼 수 있었다”며 “도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하다”고 인사를 전했다.

남일 교장 역시 행사 후 학부모회 임원들과 모든 학부모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2세대들이 우리의 한글과 역사, 문화를 잘 배워 차세대 지도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더욱 정진하겠다”고 밝혔다.



뉴잉글랜드 한국학교 학부모회가 정성과 사랑으로 준비한 정기 바자회

뉴잉글랜드 한국학교의 다음 교내 행사는 어머니날 및 스승의 날 기념 한글동화구연 및 동시 암송대회가 오는 5월 10일에 열리며 6월 14일에는 졸업식 및 종강식 행사가 이어질 예정이다.

2014학년도 가을 학기 등록은 오는 5월 31일부터 시작되며 등록 및 교사 지원 문의는 남일 교장 (전화 508-523-5389, 이메일 ksneusa@verizon.net) 또는 홈페이지 www.ksneusa.org를 방문하면 된다.

hckim@bostonkorea.com

중앙대학교 보스톤 동문회 이기환 씨 차기 회장 선출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김현천 기자 = 중앙대학교 보스톤 동문회가 제

18차 정기총회를 지난 13일 오후 6시 청기와 레스토랑에서 개최했다.



중앙대학교 보스톤 동문회의 제18차 정기총회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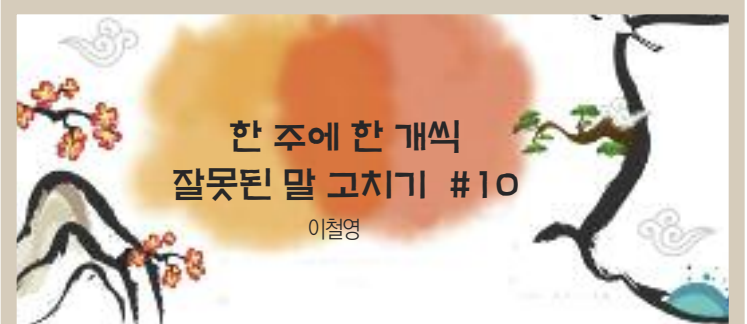
김세형 전회장의 사회로 열린 이날 총회는 동문회 장학기금과 오는 8월 시카고에서 개최되는 제14회 중앙대학교 북 미주 동문회 연합회 총

회 행사의 일정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이어 신입회장 선출을 놓고 난항이 거듭됐으나 많은 의견이 오고간 끝에 전임회장단이 순차적으로 다시 회장을 맡기로 결정됐다. 결과 이기환 씨(광산공학과 65학번)가 만장일치로 선출되었다.

동문회 측은 오는 8월에 시카고에서 열리는 제14회 중앙대학교 북 미주 동문회 연합회 총회에 참가하고자 하는 동문은 이기환 회장(781-270-4627) 또는 조재석 총무(978-558-3567)에게 연락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hckim@bostonkorea.com



목례 = 목으로 하는 인사 (X) → 목례(目禮) = 눈인사 (O)

뜻밖에도 많은 분들이 목례가 목(neck)으로 하는 인사라고 알고 계신 것을 알고 놀라곤 합니다.

'목(neck)'이라는 순 우리말이 '례(禮)'라는 한문과 뜬금없이 합쳐져 낱말이 됐다고 생각하신다면... 아쉽습니다.

(물론 그런 식의 말이 가끔 생겨나기도 하긴 합니다만, 이 경우는 아닙니다.)

목례는 머리카락이나 허리를 굽히지 않고 눈으로 하는 인사를 말합니다.

여기서 '목'은 '눈 목(目)' 자

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목을 굽혀서 하는 인사는 그냥 '인사', '절', 또는 '가벼운 절'이라고 하구요.

"말없이 고개만 숙여서 하는 인사"는 '목례(默禮)'라고 합니다.

사실 이 '목례'라는 말 자체를 '눈인사'로 순화할 것을 많은 사람들이 권장합니다.

좋은 순 우리말이 있는데 굳이 이렇게 혼동을 초래하는 한자어를 쓸 이유는 없겠지요.

목례: 눈인사

목례: 말 없이 고개 숙여 하는 인사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COLDWELL BANKER
RESIDENTIAL BROKERAGE

부동산 중개인
김현구

Chris H. Kim, GRI
Realtor

정직하고 성실하게
도와 드립니다

주택 무료 감정

Brookline Office
622 Hammond Street
Chestnut Hill, MA 02467
(B) 617-566-2447

Newton Office
1261 Centre Street
Newton, MA 02459
(B) 617-969-2447

Covering Boston, Brookline, Newton,
and Greater Boston

Chris.Kim@NEMoves.com

Birchtree Properties, R.E.

이정선 부동산

*부동산
비즈니스 세일

Cell 781.883.5984
Fax 781.874.9587
Work 781.874.2087
Email Chunglee7@gmail.com

33 third street medford, Ma 02155

www.btpusa.net

惠民 Park Acupuncture
and herbal medicine



여러분의 건강을 위한 최상의 선택

혜민한의원

617-787-0789 www.acupark.com
60 Leo M. Birmingham Parkway, Suite 101, Brighton, MA 02135

기자수첩

올해 보스톤마라톤 어떻게 펼쳐질까

(보스톤=보스톤코리아) 장명술 기자 = 아무도 생각지 못했던 마라톤 축제에 폭탄테러가 지난해 보스톤을 뒤흔들었다. 그로 1년이 지난 보스톤 마라톤은 어떤 모습일까. 정확히 1년 추모식을 마치고 돌아선지 1시간이 안돼 보스톤 마라톤 결승지점은 폭탄 테러 공포로 폐쇄됐다. 정신이상 증세를 보이는 행위 예술가의 거짓 위협이었지만 올해 보스톤마라톤이 어떤 것인지 예견해 볼 수 있는 사건이었다.

마라톤을 일주 남겨둔 추모식 날 거짓 폭탄테러 위협이 보스톤 전체를 휩쓸었다. 사상 유례없는 대규모 참가선수들은 이런 위협속에서도 그대로 참여할 것인지 자못 궁금하다. 4월 15일 저녁 게 거짓위협으로 순식간에 통제되어버린 결승지점은 테러에 대

한 아픈 기억을 떠올리게 했다. 지난해 수많은 사람들이 팔, 다리를 잃었던 그 지점에 올해도 예전처럼 많은 사람들이 모여 결승점까지 다다른 선수들을 격려할까 하는 우려도 있다.

숫자를 잠깐 언급해 보자. 올해 마라톤 참가자는 3만 6천여명이다. 엑스포에는 8만여명이 참가한다. 1만명이 자원봉사를 한다. 1900명이 의료진이고 총 3500명이 경찰이다. 이중 보스톤 경찰은 1천 500명이 동원된다. 예년에 비해 늘었을 뿐 전혀 위축됨이 없다. <보스톤스트롱>이라는 단어가 무색지 않다.

오바마 대통령은 성명서를 통해 보스톤은 다시 일어나 달리는 도시로 세계에 보여주는 것이야 말로 보스톤 스트롱의 오목이 정신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해에 비해 9천명이 많은 선수들이 마라톤에 참가하고 훨씬 많은 경찰이 투입되었다. 그럼에도 지난해 많은 피해자가 발생했던 그지점에 과연 예전처럼 많은 인파가 모여 결승선을 통과하는 선수들을 응원할 것인지 여전히 의문으로 남는다.

다행히 한국선수들은 지난해 60여명에서 80여명으로 참가자가 되려 늘었다. 이들에게는 보스톤 마라톤 폭탄테러가 별 고려 요소가 아니다. 다만 자신들과의 싸움이 가장 큰 문제다.

보스톤 마라톤이 축제였다. 지난해 폭발 사건 이전으로 다시 돌아가 마라톤은 우리들의 영원한 축제가 될 수 있을 것인지 2014년 118회 보스톤마라톤을 새삼 지켜보는 이유다.

editor@bostonkorea.com

결승점 폭발물 거짓위협으로 밝혀져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15일 보스톤 마라톤 결승지점에서 발견돼 주민들을 대피시키고 경찰을 긴장케 했던 백팩은 폭발물이 아닌 가짜 위협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AP통신에 따르면 백팩을 사건 현장에 두었던 케빈 에드슨(25)은 16일 보스톤 지방법원에 가짜 폭발물, 공갈협박, 범죄협박, 평화위협,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15일 밤 7시께 검정 백팩을 발견한 경찰은 인근 보행자와 주민을 긴급 대피시키고 폭발물 해체작업을 벌였으며 백팩이 폭발물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다. 두번째 백팩은 사진기자들이 대피시에 두고 간 카메라 백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첫번째 백팩을 다른 폭발물로 폭파시켰다.

에디슨은 15일 맨발에 검은색 옷과 검은 모자, 검은 베일을 쓰고 보일스턴 스트리트를 걸으며 <보스톤스트롱>이라고 고함을 쳤으



며 현장에서 경찰에게 체포됐다. 에디슨은 경찰에게 백팩에 지난해 범행에 사용됐던 폭발물과 같은 밥솔이 들어있다고 진술했었다.

행위예술가로 자처한 에디슨은 자신이 예술 행위를 한 것이라고 둘러댔다. 그러나 로컬 뉴스 WBZ이 동생의 말을 인용 보도한 것에 따르면 에디슨은 여러 해 동안 정신질환을 앓아왔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은 지난해 마라톤 참가 기념식이 끝난지 1시간 만에 벌어진 사건이어서 경찰과 언론 그리고 주민들의 신경을 곤두세우는 기폭제가 됐다.

hsb@bostonkorea.com

오바마 대통령 보스톤마라톤 참가 1주년 성명

1년전 117회 보스톤 마라톤에는 비극이 덮쳤습니다. 4명의 무고한 사람이 생명을 잃었고 수백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리스틸 켈벨, 링지 루, 마틴 리차드, 그리고 손 콜리에를 추억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아직도 아픈 기억에서 회복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의 염려와 기도를 보냅니다.

우리는 또한 그날의 가장 생생하게 기억하는 이미지는 혼란과 자욱한 연기가 아니라 (보스톤의) 동정심, 친절 그리고 힘이었습니다. 카우보이 모자를 쓴 한 남성은 낮은 부상자를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도록 도왔습니다. 마라톤 주자들은 사랑하는 사람을 껴안고 서로를 껴안았습니다. 응급구조대들은 관람객을 안전한 곳으로 대비시켰습니다. 오늘, 우리는 처절한 비극의 와중에 많은 보스토티안들의 리더십과 용기를

경하합니다. 우리는 용감한 소방관들, 경찰관들, 그리고 의료진들, 마라톤 주자들, 그리고 위험한 순간에 내장된 자유, 인내, 사랑이란 보스톤 정신을 내보인 보스톤 관중들에게 깊은 감사를 표합니다.

일년 후 (부상으로부터 회복하여)일어서고, 걷고, 춤추고 다시 달려 우리를 고무시키는 남성들과 여성들을 본받아 우리도 일어섰습니다. 커뮤니티와 시의 불굴의 오목이 정신으로 미국은 한결음씩 내디딜 수 있습니다. 다음주 월요일(보스톤 마라톤 날, 패트리엇스 데이) 보일스턴 스트리트(사고가 일어났던 마라톤 결승점)에 해가 솟을 때 수십만이 모여 <보스톤 스트롱>의 의미가 다시 달리는 도시라는 것을 세계에 보여줄 것입니다.

마라톤 결승지점 폭발물 발견, 대피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보스톤마라톤 폭파사건 1주년인 4월 15일 오후 7시께 검정 백팩 2개가 마라톤 결승지점에서 발견돼 경찰이 카플리 스퀘어 인근을 통제하고 주민을 소개시켰다. 경찰은 폭파감지 로봇을 통해 백팩 속에 폭발물이 있는지 여부를 조사한 후 8시 50분께 이 폭발물을 폭파시켰다. 현장에 있는 기자들은 커다란 폭발음이 들렸다고 전했다.

WBZ 채널 4의 짐 암스트롱 기자의 트윗에 따르면 보행자를 통제하고 있으며 지하철은 카플리 역에서 정차하지 않고 지나치고 있다. 이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도 접근이 불가능한 상태다.

한편 경찰은 백팩을 메고 '보스톤스트롱'을 외치며 걷던 한 남성을 현장에서 붙잡아 현재 심문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hsb@bostonkorea.com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전직 공무원

주택매매, 구입, 임차/사업체알선

Century 21 Avon

김택운
Sales Associate

Cell: **(617) 678-9330**

Fax: (617) 497-9947 E-mail: tkim@century21avon.com
1675 Massachusetts Avenue, Cambridge, MA 02138

**"당신의 환한 미소가
마름답습니다."**

거의 모든 보험 받습니다
매쓰헬쓰도 받습니다

978.689.9363
(한국어문의)

김동원치과

DongWon Kim DMD
김동원치과

465 South Broadway Lawrence MA 01843

가족 물리치료 병원
GB Family Physical Therapy

**매사추세츠 최초
REDCORD식 치료법 도입**

진료분야
목, 허리 통증, 디스크
어깨, 팔, 무릎, 다리 및 각종 운동 후 통증
척추 측만증 및 자세교정

**교통사고/직장상해 보험, 유학생/여행자 보험,
메디케어 외 정부보험 및 미국보험**

대표: 781-365-1876 한국어 781-365-1867
83 Cambridge St. Suite 2B Burlington, MA 01803

www.gbfamilypt.com



조기유학 및 학업지도 대표 기관



보스톤 유학원

www.bosec.com

보스톤유학원은 가장 오래 전통을 가진 유학원으로 많은 학생들을 명문 중/고등 사립 학교와 명문 대학에 입학 시켜온 교육 컨설팅 대표기관입니다. 보스톤 유학원은 학생들이 미국에서의 학업에서 성공하도록 최상의 컨설팅과 수준높은 학업지도를 제공합니다

Educational Consulting Department

1. 조기유학, 초/중/고 /대학 입학, 전학, 인터뷰 가이드 전문
2. 한국에서 갓 전학 온 학생 교육컨설팅
3. 대학 입학 상담, 지원서 작성 (College Consulting) : 하버드 입학담당관 출신이 전문위원으로 활약
4. 가디언, 홈 스테이, 여름/겨울 캠프
5. 주말 봉사활동, 특활 지원
6. 상세 사항: 웹사이트 참조 www.bosec.com

■ 컨설팅 서비스의 특징: 다년 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학생을 철저하게 분석하여 성공적 상급 학교 진학을 보장하는 컨설팅을 제공합니다.

■ 서울 사무소: 부모님들의 편의를 위해서 도곡동 타워팰리스 단지 내에 서울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래 주소 참조)

■합격한 중, 고등 학교: Fay, Choate Rosemary, St. Paul, Milton, Groton, Kent, NMH, Loomis Chaffee, Hotchkiss, Lawrenceville, St. George, Middlesex, Concord, Governor Dummer, Eaglebrook, Cardigan Mountain, Fessenden, Cushing, Brooks, Westover, Dana Hall, Holderness, Kent, Worcester Academy, Eaglebrook, Philips Academy, Pomfret 등. 상세 사항 웹사이트 참조.

■합격한 대학: Harvard, Yale, Stanford, Cornell, Colombia, NYU, Bowdoin, Dartmouth, Trinity, Emory, U. Mich., U. Penn. Brandeis, Boston College, Bowdoin 등 다수

튜터의 자질과 경력을 보고 프로그램을 선택하세요!

Academic Tutoring Department

SAT, SSAT, TOEFL, Writing 전문 학원

대표 강사 부원장: James Kim, Harvard, Yale 철학 전공

책임 강사: Robin Burns,
Stanford Univ. English Major, MS, BA, 수석 졸업,
SAT Verbal 800

- 대상 학생: Native Speaker, 유학생, 보딩스쿨/데이스쿨 학생
- 한국식 엄격한 지도, 숙제 관리. 공부를 하지 않을 수 없게 지도 함.
- 시험 요령 습득이 아닌 실력 향상 위주.
- SAT, TOEFL, SSAT수강생 전원에게 정선된 필수 단어 목록 제공

Private Tutoring

Math, Essay Writing, Physics,
Chemistry, Biology, History,
Spanish, French, Latin, TOEFL,
SSAT, ISEE SAT, ACT

\$70-
100/hr)

여름 방학 특강 (보스톤)				
SAT 집중반	7월6일-8월 20일, 월, 수,	10 AM-1PM	\$1250	실전 테스트 5회
개인 지도	학생이 지정		\$60-\$80 여름 특별가	전 과목

단 주 1회 실전 테스트 일은 10 AM-1:30 PM, 최소 인원 3명

여름 방학 특강 (서울)

개인지도 혹은 4인 이하 소 그룹: 문의 02-579-9731

지도과목: SAT, ACT, AP US History, AP English, SSAT, TOEFL, Reading/Writing

기숙학교 연중 프로그램(안전한 홈스테이, 항공, 교통편 제공)

Program	기 간	그 룹 지 도	개 인 지 도	제공서비스
추수 감사절	11월 중순-말	SAT, SSAT, TOEFL, ESSAY	전과목	교통편/항공편, 숙식
성탄 휴가	12월 중순-말	SAT, SSAT, ESSAY	전과목	교통편/항공편, 숙식
봄방학	3월중 3주간	SAT, SSAT, TOEFL, ESSAY	전과목	교통편/항공편, 숙식

이 프로그램 들은 2001년 부터 6년 째 제공되고 있는 정평있는 프로그램입니다. 학부모가 이 기간 중 한국에서 오시는 경우 편안한 장기 투숙 안내 제공.

- 주말 교통편, 홈 스테이, 학업 지도, 봉사 활동 제공 - 학생이 필요한 과목별 개인 지도, 유학생을 위한 집중 영어 쓰기 지도 제공
- 한 학교에서 3명 이상이 같은 프로그램으로 오는 경우 할인 혜택
- SAT는 CR과 Writing점수목표가 650-750사이인 학생을 목표로 함. SSAT는 80-99%를 목표로 하는 학생을 위한 클래스임.

보스톤 유학원

미국: 545 Concord Avenue, Suite 214,
Cambridge, MA 02138

한국: 서울 강남구 도곡동 대림 아크로텔 2402호
(삼성 타워팰리스 단지 내 02-579-9731)

대표: 원장 공학박사 송영두

Tel 617-491-0041
617-491-0043

* 교사 수시 모집: info@bosec.com 으로 resume를 보내 주십시오.

* 홈스테이 가정 수시 모집: 뉴잉글랜드 전역. info@bosec.com 으로 메일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사절.

* 사무 직원 모집: 미국에서 중/고등학교를 다닌 분. humanresource@bosec.com 로resume를 보내 주십시오.

"주차는 보스톤유학원 옆의 Fresh Pond Mall 의 Whole Foods Market에 하시면됩니다."

보스톤 마라톤에 유모차 동반 가능

보안강화구역에서는 지체 예상, 투명백 사용 권장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오현숙 기자 = 올해 보스톤 마라톤에서 유모차와 배낭이 금지물품인지를 두고 논란이 되고 있다. 과연 부모들은 아이들을 데리고 이벤트에 참여할 수 있을까? 대답은 “Yes” 다.

지난해 세 명의 목숨을 앗아간 보스톤 마라톤 결승선 폭발 사고에 대응해, 매사추세츠주 긴급대책위원회(MEMA)와 보스톤 육상연맹은 올해 보다 업데이트된 안전지침을 내놓았다.

새로운 안전지침은, 마라톤 코스를 따라 경기를 지켜볼 관중들에게 배낭, 서류가방, 바퀴달린 가방, 1리터 이상의 액체를 담을 수 있는 용기, 그리고 담요나 이불 같은 물품들을 “휴대하지 않을 것을 권고” 한다.

어린이를 동반한 부모들은 가방과 액체를 담을 용기를 가져올 수는 있으나 보안을 위해 검사대상이 될 것이다. 유모차는 금지 물품에 포함되지 않았다. MEMA의 안전지침에 따르면, 등록된 주자들만 유모차를 가져올 수 없다.

시장 마틴 J. 월시는 지난 12일 자신이 주최한 기자회견에서 관중들이

배낭이나 유모차처럼 큰 물품들은 가져오지 않을 것을 권했다. 그러나 이것들을 금지하는 것은 아니다.

물론 특정 구역에서는 보안이 강화될 예정이다. 보스톤의 존 핸콕 스포츠&피트니스 엑스포, 결승선의 그랜드 스탠드 초청석, 합킨톤의 선수마을, B.A.A. 버스와 차량(보스톤 커먼에서 합킨톤까지 차량과 합킨톤 내 셔틀버스), 그리고 합킨톤의 몇몇 보안 관람객 구역 등에서는 주자나 관중 모두에게 위에 제시한 물품들이 금지된다.

따라서 이러한 물품 중 어떠한 것이라도 가지고 올 계획을 하고 있는 부모라면, 보안이 강화된 구역들을 통과할 때 지체될 수도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보안검사로 지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MEMA는 합킨톤부터 보스톤에 이르는 전체 경기 루트를 따라 서있는 관중들에게 개인 물품을 투명한 플라스틱 가방에 담을 것을 권장한다. 투명한 플라스틱 가방은 대중의 안전을 향상시키고 보안검사를 좀 더 수월하게 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hsroh@bostonkorea.com



마라톤 폭파범 인질로 잡혔던 대니, CBS에 얼굴 드러내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지난해 보스톤마라톤 폭파범들에게 납치됐다 탈출해 범인 검거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중국계 이민 사업가 대니(26세)가 사건 후 처음으로 얼굴을 드러냈다.

보스톤 로컬 티비인 CBS 뉴스에서 얼굴을 드러낸 그는 납치된 순간부터 탈출의 순간까지 회고했다. 그는 마라톤 폭파 3일 후 울스턴 브라이트 애비뉴에서 친구에게 문자를 보내려고 정차했다가 총을 겨누는 폭파범들에게 납치됐다.

대니는 납치범이 마라톤 폭파에 대해 아는지 물었고 그가 안다고 대답하자 다시 납치범은 누가했는지 아느냐고 물었다고 밝혔다. 그가 모른다고 하자 납치범은 “내가 했다”라고 말했다고 대니는 밝혔다. 납치범은 태멀린이었다.

태멀린과 조카 사르나에브 형제는 대니를 납치해 뉴욕을 향했다가 차에 기름이 없다는 것을 발견한 후 주유를 위해 보스톤으로 다시 돌아왔다. 대니는 “그들이 나를 죽일 것으로 생각하고 가족, 친구 그리고 꿈에 대해 생각한 후 결코 죽을 수 없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케임브리지에 있는 쉘 주유소에 도착한 후 조카는 기름을 넣기 위해 주유소 안으로 들어갔고 태멀린이 잠시 총을 차문 포켓에 넣은 것을 본 후 대니는 문을 열고 건너편 주유소로 뛰었다.

주유소에 들어가 판매원에게 911 전화를 부탁했고 판매원은 바로 차유괴를 신고했다. 경찰은 대니의 벤츠 SUV를 위성 추적해 그들의 행방을 파악했다.

대니는 “내가 영웅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나는 나를 어떻게든 구하려 했을 뿐이다”라고 말했다. 어찌됐든 그의 행동으로 인해 더 많은 유혈사태를 막게된 중요한 전환점이었다는 게 미 언론의 평가다.

정관장

정관장 정품은 정관장만 취급하는 “브랜드스토어”에서 구입해야 안전합니다.

Mother's Day Special

가정의달 최고의 선물 정관장 특별 프로모션

Promotion Ends May11, 2014

10% OFF

모든 성인
통제품 및
자녀제품

Event 2

홍삼정 240g 구입시
홍삼정 30g 무료증정



FREE
GIFT



타주로도 포장 후 배송해 드립니다.

781-238-0303

전화주문 서비스

FedEx 로 주문 다음날 편하게 받으세요.
\$50 이상 주문시 무료배송

보스톤 정관장 브랜드스토어



Burlington점 안에 위치해 있습니다

3 OLD CONCORD RD, BURLINGTON, MA 01803



Event 1



홍천웅

톤골드

톤마일드

화애락본



양아록

홍이장군

아이페이스

올든

MA주 새 진통제 판매금지 연방 법원이 제동

FDA가 승인한 의약품 주 정부가 막는 건 위험

기존 제품보다 10배나 강력한 진통제 중독 우려

(보스턴 = 보스턴코리아) 정성일 기자 = 매사추세츠 주 정부가 새로 발매된 강력한 진통제 조하이드로(Zohydro)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월권 행위라며 연방 법원이 제동을 걸고 나섰다.

조하이드로를 개발하여 판매하고 있는 제약사 조제닉스는 매사추세츠주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다. 드별 패트릭 주지사가 지난 달에 조하이드로를 판매하지 못하도록 명령한 것은 위험이라는 것이 소송의 주요 내용이다.

연방 법원은 제약사의 손을 들어주었다. 지난 15일, 연방 지방 법원의 리아 조벨 판사는 임시 명령을 통해 주지사령으로 조하이드로를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적법하지 않다고 판결했다.

조벨 판사는 조하이드로가 이미 연방 식품의약품(FDA)의 승인을 받은 합법적인 의약품인데 주지사령으로 이를 금지하는 것은 주지사의 권한을 넘어서는 일이라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비록 이번 판결은 임시 명령이지만 조제닉스는 조하이드로에 대한 판매 금지를 영구적으로 풀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기존의 진통제보다 훨씬 강력한 조하이드로는 FDA로부터 승인을 받았지만 출시 전부터 약물 중독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패트릭 주지사는 이번 판결에 대해 실망감을 감추지 않았다. 패트릭 주지사는 이번 판결이 일반 대중의 건강보다 상업적인 이익을 우선시 했으며 “중독 성분이 강한 진통제가 새롭게 판매되지 않더라도 매사추세츠주에서는 이미 약물 중독 문제가 심각하다. 이로 인해 발생할 공중보건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찾아볼 것이다” 라고 성명을 통해 밝혔다.

조하이드로는 작년 10월에 연방 식품의약품국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진통

제다. 기존에 판매되고 있는 진통제보다 10배나 강력한 진통제로, 판매 전부터 약물 중독에 대한 우려로 논란이 되어 왔다.

매사추세츠 주는 다른 주보다 앞서 조하이드로의 이용을 막기 위해 노력했지만 연방 법원의 판결로 일단 무산됐다. 연방 정부에서 승인한 의약품에 대해서 주정부가 판매 금지를 시도한 것은 이번이 처음일 것이라고 AP는 보도했다.

jsi@bostonkorea.com

MA 주민들 세금보고 시 이파일링 선호

(보스턴 = 보스턴코리아) 정성일 기자 = 압도적으로 많은 수의 매사추세츠 주민들이 주 정부에 세금 보고를 할 때 온라인을 이용한 이파일링(e-filing)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사추세츠 재무부는 세금 보고 마감을 1주일 앞둔 지난 4월 11일까지 약 250만 건의 세금 보고 접수를 처리했다고 밝혔다. 이중 88%에 해당하는 약 220만 건이 이파일링으로 접수되었다.

접수된 세금 보고 중 180만 건 정도가 세금 환급을 받았으며, 환급 규모는 약 8억 5천 8백만 달러라고 주 재무부는 발표하였다. 세금 보고 접수 후에 환급을 받을 때

까지 걸리는 시간은 이파일링을 이용할 때 평균 3.3일, 종이 서류를 우편으로 접수할 경우 평균 5.5일이 걸렸다.

또한 주 재무부는 세금 보고 마감을 앞두고 주당 평균 3만 4천 통의 세금 관련 문의 전화를 받았으며, 상담원이 응대할 때까지 대기하는 시간은 약 46초라고 밝혔다.

jsi@bostonkorea.com

주 세금보고 며칠 더 연장

(보스턴=보스턴코리아) 한새벽 기자 = 주세청(MDR)은 무료 온라인 세금보고 시스템의 문제로 인해 주민들의 세금보고 기한을 며칠 더 연장한다고 15일 밝혔다.

따라서 연방세금보고를 제외한 주 세금보고는 오는 4월 18일 자정까지 제출하거나 연장신청을 해야 한다.

주세청의 웹파일(WebFile)은

아주 느리다는 주민들의 불만이 제기됐으며 지난 일요일이후로는 일부 기능이 아예 작동하지 않는 사태도 벌어졌다.

주세청 관계자는 이 같은 컴퓨터 보고 시스템의 문제는 보고자들이 한꺼번에 몰리면서 생기는 과부하였다고 설명했다. 주세청은 “현재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고 밝혔다.

보스턴에서 올해 19번째 살인사건 발생

(보스턴 = 보스턴코리아) 오현숙 기자 = 보스턴 경찰은 지난 14일 새벽 록스베리 스트리트 코너에서 총상을

입고 사망한 남성의 시신을 발견하고 조사 중에 있다.

이 남성은 새벽 1시경 리젠트와 데

브니 스트리트 교차로에서 보스턴 메디컬 센터로 긴급히 이송됐고, 보스턴 메디컬 센터는 그의 사망 판정을 내렸다고 경찰은 전했다.

이날 총격사건은 올해 보스턴에서 일어난 19번째 살인사건으로 기록됐다. 이는 작년 같은 기간 동안 8번의

살인사건이 발생했던 것과 비교해 볼 때 2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보스턴 경찰청이 집계한 범죄 통계에 따르면, 올해는 작년에 비해 성폭행·강도·절도 등은 모두 감소했지만 유독 살인과 차량절도 부문만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전체적으로는 범죄

율이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4%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 1월 9일을 시작으로 1월 한 달 동안에만 총 9건의 살인사건이 집중적으로 발생했다. 이후 2월에는 3건, 3월에는 4건, 그리고 4월에는 14일 현재까지 4건의 살인사건이 있었다.





Gina Choi

Realtor, MBA

978-866-3248
ginachoi@newstarrealty.com

안녕하세요. New Star Realty의 지나 최입니다. 1997년에 보스턴 지역으로 유학을 와서 학부와 대학원(MBA)을 마치고 다년간 BOSTON과 CAMBRIDGE 지역에서 직장 생활로 각 지역마다의 장점, 단점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성업중이며 불경기에도 10년 이상의 가족 비즈니스를 운영한 경험을 바탕으로 최적의 자리에 집과 사업체 매매를 도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exington Office
40 Waltham St., Lexington, MA 02420
Tel: (781) 259-4989

Newton Office
1111 Washington St., Newton, MA 02465
Tel: (617) 969-4989



Acton 콘도
\$249,000, 2beds, 1.5baths, 1,370 sq ft(학군 좋음)



Natick 콘도
\$469,000, 2beds, 2baths, 1,323 sq ft(몰과 private 통로)



Lexington 단독주택
\$1,469,000, 5beds, 4.5baths, 7,405 sq ft(2014 새집)



luxury harbor tower 콘도
\$519,000, 1bed, 1bath, 753 sq ft(실내 수영장)



Wesford 단독주택
\$650,000, 4beds, 3baths, 3,986 sq ft(야외 수영장 딸린 집)



Cambridge Luxury Apartment
한달 또는 두달 무료있음

레드삭스 구장에서 전광판 프로포즈, 얼마나 될까?

일반 전광판 프로포즈와 라이브 프로포즈 두가지 가격 각각 달라

(보스턴 = 보스턴코리아) 장명술 기자 = 따뜻한 봄햇살과 함께 야구의 계절이 돌아왔다. 남녀모두 야구팬이라면 프리포즈 장소로는 야구장이 제격이다. 야구장에 함께 구경하러 갔는데 전광판에 “갑순씨 나와 결혼해 주겠소, 갑돌” 이라고 써진다면 아마 상당한 감동을 주지 않을까. 그것도 미국내 가장 오래된 역사적인 구장에서 하는 프로포즈라면 그만한 가치가 있다.

보스턴 레드삭스를 비롯해 미국내 메이저리그 프로야구 구장은 대부분 이와 같은 구장내 전광판 프로포즈를 허용하고 있다. 물론 많은 사람이 이용하고 있지는 않다. 그래서 야구장내 프로포즈는 더욱더 진가를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구장내 프로포즈를 진행하려면 가장 먼저 알아야 할 것이 가격이다. 가격을 알아야 예산을 세우고 집행할 수 있는 것 아닌가. 보스턴레드삭스의 경우 전광판 프로포즈는 \$250, \$350로 비교적 저렴한 편에 속해 보스턴인들은 어렵지 않게 할 수 있다.

이 프로포즈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좋은 날짜를 선택해야 하며 해당 날짜의 티켓을 구입해야 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프로포즈 비용을 지불하면 된다.

일반 전광판(Scoreboard) 프로포즈는 \$250이다. 이 프로포즈는 5회말이 끝나고 라이트 필드 쪽 뉴발란스 스코어보드에 나타나므로 반드시 이 전광판이 잘 보이는 곳에 티켓을 구입해야 한다. 이 스코어보드는 일부 좌

석에서는 보이지 않으므로 좌석 구입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만약 프로포즈가 성공리에 끝나면 펜웨이 대사(Fenway Ambassador)로부터 선물백(기념DVD)을 받게 된다.

\$350 프로포즈는 라이브로 진행된다. 예산이 허락한다면 이 프로포즈가 훨씬 극적이다. 4회말이 시작되면 먼저 Gate B 펜안내 데스크에 있는 펜웨이 대사를 만나 일정을 논의한다. 5회 말이 끝나면 메시지가 올라간다. 미리 이메일로 “Fans of the Game” 증서를 받게 된다. 간단한 질문이 이어지고 이를 맞추면 커플을 “Fans of the Game” 상을 받는 것으로 꾸며 버드와이저 텍으로 안내된다. 이 때에 스코어 보드에 비춰지게 되며 파트너는 전광판에 오른 모습을 보고 손을 흔들려고 할 때 바로 프로포즈를 라이브로 하면 된다. 역시 기념 선물을 받는다.

펜웨이 구장 프로포즈 신청 및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펜웨이 대사로 드 쿨라코우스키(617-226-6857, tkulakowski@redsox.com)에게 문의하면 된다.

editor@bostonkorea.com

▶ 일반 전광판 프로포즈 \$250

▶ 라이브 프로포즈 \$350

▶ 문의 및 신청

Todd Kulauski
(Fenway Ambassador)
617-226-6857

tkulakowski@redsox.com



레드삭스 구장에서 프로포즈하는 연인들의 모습들. 위에서 첫번째, 두번째 사진은 남성이 전광판을 가리킨 이후 주머니에서 수줍게 반지를 꺼내서 청혼하는 모습이다

다른 메이저구장의 전광판 프로포즈는 얼마나 하나?

(보스턴 = 보스턴코리아) 한 새벽 기자 = 30개 미국 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 구단 야구의 전광판 프로포즈 가격은 천양지차, 서비스는 천차만별이다. 뉴욕메츠, 볼티모어 등 5개 구단을 제외한 25개 구단이 전광판 프로포즈 기회를 유료로 제공하는데, 이용가격은 최저 39달러부터 최고 2500달러까지 크게 60배 이상 차이난다.

가장 비싼 구장은 LA다저스 구장으로 가격은 2500달러다. LA다저스의 전광판 문자 노출은 75달러로 싼 편이지만, 프로포즈 장면 실시간 중계는 한달에 한번 밖에 이용할 수 없어 구단 중 최고가에 판매된다.

가장 싼 곳은 피츠버그 파이러츠의 PNC파크 구장으로, 39달러만 내면 전광판에 메시지를 써서 로맨틱한 프로포즈를 시도해볼 수 있다. 애틀란타 브레이브스, 신시내티 레즈, 콜로라도 록키스의 가격이 모두 50달러로 가장 저렴한 측에 속한다. DVD, 장미꽃, 샴페인, 마스코트의 인사 등 다양한 추가 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다.

애리조나 다이아몬드백스의 체이스필드는 250달러에 전광판에 메시지와 함께 기념 DVD를 제작해 준다. 클리블랜드 인디언스는 경기 중 프로포즈 시간을 제공하지 않지만, 경기 뒤 불꽃놀이 시간에는 400달러에 전광판을 사용할 권리를 판매한다.

교통사고
직장상해
닥터노트
학생보험

**물리치료
재활치료
전문병원을
찾으십니까?**

한, 닥터스 통증 병원 대표 원장
뉴욕 닥터스 통증 클리닉 대표 원장
노스미션 대학교 물리치료학 박사
메모리얼병원 재활의학과 수석임대
직접된 디씨 통증병원 원장
대구대학교 외과 교수
삼육대학교 외과 교수
영남대학교 교수 | 학과장
한양대학교병원 재활의학과

617.731.1001
GOODPT.COM
44 Washington St, Suite 104 Brookline, MA 02445

DOCTOR PHYSICAL THERAPY
닥터스통증병원

Century 21 송 윤주 Realtor
SHAWMUT PROPERTIES Yoon Song

Direct: 857-636-0429
Email: Yoonjoo@century21.com
Web: YoonBoston.com

Exclusive listing - Cambridge Townhouse
\$799,000 / 2 Bed 2 Bath / 1477sq
최고의 위치
Fully Renovated 조용한 침실하우스같은 타운하우스
운동바닥 / 새로운 전기 난방 시스템 / 세탁기 / 콘차고

최고급 디자이너 화장실
개인 야드 / Deck / Court Yard
하버드 까지 도보로 10분

"휴식과 회복이 있는 곳"

**은혜
한의원**

Grace Acupuncture
& Oriental Medicine

원장: 백승희 (경희한의대 42기)
각종 상해, 의료보험 취급 / 편리한 주차

전화 781.862.1842
442 Marrett Rd, Suite 6, Lexington, MA 02421
www.graceaom.com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오현숙
기자 = 미국 워싱턴포스트(WP)와
영국 가디언이 미 국가안보국(NSA)
의 비밀 감청실태를 폭로한 기사로
올해 풀리처상을 수상했다. 이번 수
상으로 ‘독자의 알 권리’와 ‘국익’
중 무엇이 우선이냐는 논란도 수
그러들 것으로 보인다.

폴리처상 선정위원회는 지난 15일 올해 선정결과를 발표하며 공공서비스 부문에서 WP와 가디언의 공동 수상으로 결정했다. 수상 기사를 쓴 기자는 WP의 바튼 겔먼과 가디언의 글렌 그린월드 등 3명이다.

WP는 NSA의 온라인 감시 프로그램 '프리즘'을 폭로했고, 가디언은

NSA의 무차별적인 전화통화 수집을 파헤쳤다. 이는 모두 전 NSA 직원 에드워드 스노든이 넘겨준 수천 건의 기밀문서를 토대로 이뤄졌다.

그동안 미 보수층에서는 스노든 관련 보도가 전 세계를 뒤흔든 엄청난 특종인 것은 분명하지만 국가안보를 훼손했다며 비판을 강하게 제기했

화통화 수집
전 NSA 직
넘겨준 수천
이뤄졌다.
서는 스노든
뒤흔든 엄청

다. 비판론자들은 문건 제공자인 스톨텐이 러시

아로 망명하
자 그가 용
기 있는 ‘
내부 고발자
'가 아닌
‘반역자’

에 가깝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미 보
수성향 시민

단체 ‘애크러시 미디어’는 “미국인을 테러 공격에 노출시키고

군인들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기밀문
서를 건네받은 사람이 풀리처상을 받
으면 안 된다” 고 주장해 왔다.

이 때문에 이들 기사에 대한 수상을 두고 선정위원회 내부에서도 국가안보와 개인의 사생활 중 무엇이 중요한지, 그리고 언론이 과연 어디까지 폭로해야 하는지를 두고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폴리처는 결국 안보와 관련된 비난보다는 사생활 침해 논란을 제기해 마침내 NSA의 감시 정책 변화까지 이끌어 냈다는 점에 주목했다.

선정위원회는 WP의 보도에 대해 “권위와 통찰력 있는 보도로 큰 틀에서 폭로가 국가 안보에 얼마나 적절한 역할을 하는지 대중이 이해할 수 있게 했다”고 평가했다. 가디언의 보도에 대해서는 “공격적인 보도로 정부와 대중 사이에 안보와 사생활 침해 문제에 관한 논쟁을 불러일으켰다”고 평했다.

러시아에서 망명생활을 하고 있는 스노든은 "이번 수상은 정부에 대한 대중의 감시가 필요하다고 믿는 사람들에게 주는 보상"이라며 "거대한 위협에 맞서 취재하고 보도한 그들의 노력에 빛을 쬔다"고 축하 메시지를 전달했다.

폴리처상은 저명한 언론인 조지 프 폴리처의 유산 50만 달러를 기금으로 1917년에 창설됐다. 언론 분야는 뉴스·보도사진 등 14개 부문, 문학·드라마·음악 분야는 7개 부문에서 수상자를 선정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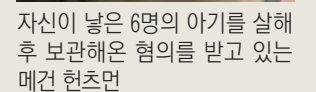
컬럼비아대학교 언론대학원에 있는 폴리처상 선정위원회가 매년 4월에 수상자를 발표하고, 5월에 시상한다. 수상자에게는 1만 달러의 상금을 지급하며, 공공봉사상 수상자에게는 금메달도 수여한다.

언론 분야에서는 미국 신문사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람이어야 하고, 문학과 드라마, 음악분야는 반드시 미국 시민이어야 한다는 조건이 있다.

한편 올해 속보 부문은 지난해 4월 보스턴 마라톤 테러 소식을 심층 보도한 보스턴글로브가, 사진 부문은 지난해 9월 케냐 쇼핑몰 테러 사진을 보도한 뉴욕타임스(NYT)가 각각 수상했다. hsogh@bostonkorea.com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오현숙 기자 = 유타주의 한 여성이 자신이 낳은 아기를 잇달아 살해한 혐의로 지난 13일 경찰에 체포됐다.

미국 유타주 플레전트그로브시 경찰은 1996년부터 2006년까지 10년간 자신이 낳은 아이 6명을 살해한 뒤 시신을 종이 상자에 담아 차고에 보관한 혐의로 메건 헨츠먼(39)을 붙잡아 유타 카운티 유치장에 입감했다.



경찰은 지난 12일 헌츠먼과 헤어진 전 남편으로부터 자기 집에 아기 시신이 있다는 신고 전화를 받았으며 현장 조사 결과 다른 6명의 작은 유해들을 더 발견했다고 마이클 로버츠 수사반장은 말했다.

차고에서는 총 7구의 시신이 발견됐지만 경찰은 6건의 살인 혐의만 적용했으며 이유는 밝히지 않았다.

경찰은 헌츠먼과 헤어진 전 남편이 함께 살던 시기에 이 아기들이 태어난 걸로 보고 있지만 그 남편은 이 일과 무관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하지만 기자들이 어떻게 그 남편이 아기들의 임신 사실을 몰랐을 수가 있는지 묻자 로버 츠반장은 "그거야 말로 100만 달러짜리 질문이다. 정말 놀랍다"고 말했다.

한 이웃의 말에 따르면, 헌
초면의 큰 세 딸은 아직 함께
살고 있으며 맏딸이 18~20세,
막내가 13세다.

아기들의 시신은 현재 유타
검시관에게 보내져 누가 부모
인지를 가리기 위한 유전자 조
사와 사망 원인 조사 등을 진
행 중이다.

hsch@bostonkorea.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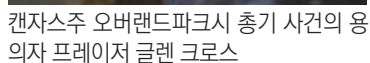
살인으로 보고 조사 중" 이라고 밝혔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이번 사건 뒤
“아직 총격사건 전말은 알 수 없지만
애통한 일”이라는 성명을 냈다.

hs0h@bostonkorea.com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오현숙
기자 = 캔자스주에서 인종차별 조직
인 KKK단 출신 70대 노인이 유대인
시설에 총기를 난사해 3명이 숨졌다.
유대인을 노린 증오 범죄로 드러난
가운데 희생자 3명 가운데 2명은 유대
인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13일 캔자스주 오버랜드파크 시에 위치한 유대인 공동체 시설에 한 남성이 들어와 총기를 난사, 3명이



숨지고 1명이 중상을 입었다. 시 당국은 총기난사가 벌어진 시설에서 2명이 숨졌고 1.6km 떨어진 양로원 부근에서 1명이 사망했다고 밝혔다.

사건 현장은 유대인 공동체가 이용
하는 주민센터와 유대인 퇴직자들을
위한 요양시설이 있는 곳이었다. 이
날은 유대인들이 3000여년 전 이집트
노예생활에서 탈출한 것을 기념하는
종교 축일 전날이어서 주민센터에 사

람들이 모여 있었다.

경찰은 사건 4시간 만에 미주리주에 사는 프레이저 글렌 크로스라는 73세 남성 용의자를 체포해 수감했다.

뉴욕타임스(NYT)는 해당 용의자가 백인우월주의 단체인 KKK의 전직 지도자로 반유대주의와 인종차별주의 전력을 가졌으며 KKK 캐롤라이나 지부의 간부로 1980년대 아프리카계를 협박한 혐의로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당한 적이 있다고 보도했다.

그는 유대인이냐고 물어보며 공격 대상을 확인했고 네오나치 구호를 외치면서 총을 쏜 것으로 드러났다.

존 더글러스 오버랜드파크 경찰서
장은 “크로스의 범행을 인종 증오

TASTE OF KOREA

코리아나

KOREANA RESTAURANT

BEST OF
BOSTON
2006

BEST OF
BOSTON
2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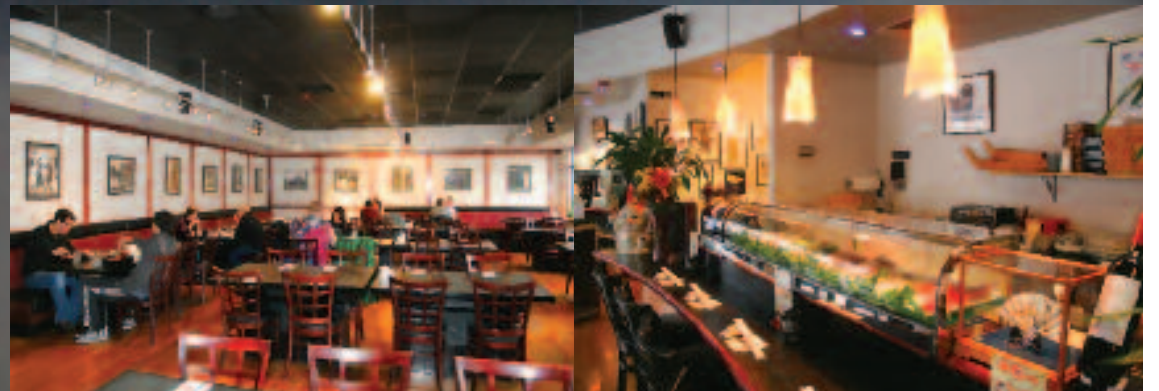
BEST OF
BOSTON
2000

모든 테이블에 최신 바베큐그릴을 설치, 한결같은 맛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

Parking Information

1. 주유소주차, Broadway Gas Station
(Mon~Sat: After 6pm), (Sun, Holiday: All Day)
2. 건물 뒤 주차장, Drive Way(Behind Building)
(Lunch: 4 Cars), (Dinner: 2 Cars)
3. 도로주차, Broadway Play Groung 옆
(2 Hours Free Parking: 8am~6pm), (After 6pm: Free)
(Sun: All Day Free)

*이외에도 Free Parking 가능한 곳이 Restaurant 가까이에
여러곳이 있습니다. 전화로 문의해 주세요.



617.576.8661
www.koreanaboston.com

영업시간
일요일~목요일(11:30AM~10:30PM)
금요일~토요일(11:30AM~12:00AM)
154 Prospect St, Cambridge, MA 02139



이 명덕, Ph.D., Financial Planner
& Registered Investment Adviser (RIA)
Copyrighted, 영민엄마와 함께하는 재정계획All
rights reserved
www.billionsfinance.com
248-974-4212

영민 엄마와 함께하는 재정계획 (22)

상속의 기본

한 세상을 살면서 피할 수 없는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세금이고 다른 하나는 죽음입니다. 세금은 매년 겪는 일이라 그런대로 익숙한데 죽음은 인생에 단 한 번이기에 쉽게 나눌 수 있는 화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나 누구나 피해 갈 수 없는 길이기에 조금씩 미리 생각해서 준비하는 것도 좋을 듯합니다.

죽음과 함께 떠오르는 단어는 상속, 세금, 유언장, 트러스트, 상속세, 증여세 등 익숙하지 않은 말들이 대부분입니다. 익숙하지 않기에 더욱 더 멀리하는 것 같습니다. 부부가 함께 살아 있을 때 기억해야 하는 몇 가지를 순서 없이 알아봅니다. 필자는 정보만을 전달합니다. 특히, 상속에 대해서는 각 주 정부마다 법이 다르므로 주에서 활동하는 상속전문 법률사 조언을 참조하여야 합니다.

골프 친구들이 흔히 이렇게 말을 합니다. '상속세를 적게 내기 위해서 트러스트(trust)를 형성해야 한다', '프로베이트(Probate, 유언장에 대한 공증)에 가지 않기 위해서 유언장이 필요하다', 등 맞을 수도 있고 맞지 않을 수도 있는 대화를 나눕니다. 일부 사람은 유언장, 트러스트, 등을 전부 가지고 있기에 상속계획이 완전히 준비되었다고 자신 있게 말하는 사람도 간혹 있습니다.

한 부부가 함께 살다 한 분이 먼저

갔을 때 복잡한 프로베이트를 통하지 않고 모든 자산이 남은 가족에게 상속되기를 원합니다. 프로베이트는 일반적으로 수속기간이 길고 (6~18개월), 비용이 비싸며, 일반 사람에게 자산내용이 공개되고, 가족 간에 여러 가지 문제로 얼굴을 붉힐 수 있습니다.

은퇴자금인 IRA, 401k, TSA, SEP IRA, 등 금융자산은 설정된 상속수혜자(beneficiary)에 의해서 상속됩니다. 일반적으로 배우자가 우선 수혜자(Primary Beneficiary)로 기록하며 부부가 함께 돌아가실 경우를 생각해서 다음 수혜자(Sec-ondary Beneficiary)를 아이들 이름으로 남깁니다. 상속수혜자로 상속되는 자산은 프로베이트를 통하지 않고 바로 상속이 됩니다. 또한, 남은 배우자에게 상속되는 자산은 100% 세금 없이 상속됩니다.

위에서 언급한 대로 금융자산은 정해진 상속수혜자에게 바로 상속되므로 유언장에 금융자산을 상속수혜자가 아닌 다른 사람을 지목하면 일이 복잡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같은 이유로 트러스트에 금융자산을 집어넣으면 이 역시 상속과정이 복잡해질 수 있으므로 조심해야 합니다.

금융자산을 제외한 다른 커다란 자산은 부동산(집)입니다. 집을 상

속하기 위한 간단한 방법은 금융자산처럼 상속수혜자를 미리 설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집을 공동소유자로 설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동산을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것은 상관없지만, 아이들을 공동명의로 설정하면 여러 가지 불리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미시간(MI) 주법은 집을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등록하고 아이들을 상속수혜자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 법을 '레이디 버드(Lady Bird)'라고 합니다. 집을 상속수혜자로 설정할 수 없는 다른 주에서는 리빙트러스트(Living Trust)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트러스트란 일반적으로 자산을 분배할 때 필요한 과정을 지시하는 문서입니다. 상속을 받기 위해서 나이가 얼마일 때 얼마큼 가질 수 있다, 대학을 졸업해야만 상속이 된다, 등 여러 가지 조건을 트러스트에서 형성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건이 없다면 간단한 트러스트를 만들 수 있습니다. 트러스트가 복잡할수록 비용이 많아집니다.



상속세를 고려해야 하는 것은 남아있는 배우자가 하늘나라로 갈 때입니다. 2014년 기준으로 상속세는 534만 불(\$5,340,000)까지 면제가 됩니다. 남아있는 배우자가 죽었을 때 전 재산이 3백만 불이라고 하면 상속세 없이 아이들에게 상속됩니다.

다른 예로 부부의 총자산이 7백만 불이라고 합시다. 한 사람이 인생소풍(?) 마치고 하늘나라로 먼저 갑니다. 남아있는 배우자에게 전 재산이 상속됩니다. 남은 배우자도 하늘나라로 따라갑니다. 남아있던 배우자가 면제(exemption)받을 수 있는 금액 534만 불에 대해서 면제받고 나머지 부분(166만 불)은 먼저 돌아가신

분의 금액 534만 불이 적용되기에 상속세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부부의 자산 1,000만 불까지는 상속세를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금융자산은 정해진 상속수혜자에게 프로베이트를 통하지 않고 상속됩니다. 남아있는 부동산(집) 상속은 주에서 허락하는 상속수혜자 혹은 간단한 트러스트를 형성하면 이 역시 프로베이트 과정 없이 상속할 수 있습니다.

*법률에 관한 것은 변호사(Elder Law)와 세금에 관한 것은 회계사(CPA)와 상담한 후 최종적으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NEW! 설화수 미안피니셔

설화수 미안피니셔 구매시 자정6종 샘플키트와 해피바스 네츨릴24 핸드크림

2개를 증정합니다. 생윤기를 되찾아 피부의 격을 올려주는 미안피니셔1병 에는 인삼 5뿌리 + 녹차 110잔 농축



에어쿠션® 구매고객님께 아이오펜 스템셀3종 샘플키트를 증정합니다

AMORE 보스톤점 INSIDE H MART BURLINGTON 781.229.6800 4/1~4/30

H MART

Yes, We are **OPEN 365** days a year!
SALE WEEK APR.18, 2014-APR.24, 2014
ONLY FOR HMART BURLINGTON STORE

STORE HOURS: SUN.-THU. 8:00 AM - 9:00 PM | FRI.-SAT. 8:00 AM - 10:00 PM
 All prices are based on availability. Typographical errors may be present in the prices and descriptions.
 수량에 따라 세일이 일찍 끝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본 광고를 수정하는 과정에서 인쇄에 오류가 있을 수 있는 점 양해바랍니다.

CUSTOMER SERVICE
 For coupons, Events & Exclusive Deals.
 Subscribe at www.hmart.com
 Toll Free No. 877.427.7386
Customer_care@hmart.com

Family Feast

EASTER SAVINGS

A KOREAN TRADITION MADE IN AMERICA. SINCE 1982.

부활절 가족만찬 세일전!

Save on everything you need to make a very special day with your family, even more special.
 Come in and enjoy the celebration for memories that last a lifetime.

Happy Easter!

CHUNGJUNGONE
 Red Pepper Paste + Soybean Paste
 6.17 lbs. + 1.1 lbs./pkg.
\$11.99

MONINI
 Grapeseed Oil 33.8fl.oz.
\$7.99

HAIOREUM
 Korean Honey Citron Tea 2.2lbs.
\$4.99

ULLEUNG FOOD
 Frozen Korean Aster Glehni 1.1 lbs.
\$6.49

POPCORNS
 Chips 팝콘칩
\$0.99

BIG SAVINGS FOR SMART SHOPPERS LIKE YOU!
 오늘부터 H마트 스마트 카드로 똑! 소리나게 장바세요.

THE GREATEST OF ALL TIME!

GRAND OPENING

HMART CAMBRIDGE

APR. 23, 2014 AT 9:30 AM

미국 내 한인마트 NO.1 H마트가 캠브리지에 오픈합니다. 1년 365일 산지에서 직송되는 신선하고 다양한 식품들과 건강까지 생각하는 유기농 제품을, 최고의 서비스, 온 가족이 함께 할 수 있는 깨끗하고 넓은 고품격 원스탑 쇼핑공간 H마트 캠브리지점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SMART SAVINGS CARD
 The More You Use It, The Smarter You Feel!

FREE GIFT
 New & Current Members (with valid email address) will get a **FREE** gift.
 스마트카드 신규 가입 고객에게 사은품을 증정 합니다.
 (기존 회원의 경우 이메일 등록만 해주셔도 사은품을 드립니다.)

Purchase over \$20, and get a FREE GIFT.
 (Gifts may vary depending on each day)
 20불 이상 구매시, 채반 또는 고무장갑 증정 및 다양한 선물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HMART CAMBRIDGE
 581 Massachusetts Ave., Cambridge, MA 02139 (Central Square Station)
cambridge@hmart.com
 Store Tel. 857-209-2747

31년 전통의 미국 최대 고국선물관
한마름 고국통신판매
 SHOP 24/7 AT WWW.HMART.COM OR CALL
1-800-648-0980

SERVING FOR 32 YEARS AS AMERICA'S LARGEST GIFT SERVICE TO KOREA
 32년 전통의 **한마름** 고국통신판매와 함께 한국에 계신 부모님, 선생님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세요!
 한마름 고국통신판매는 1년 365일 언제나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WITH SMART SAVINGS CARD
HAIOREUM
 Instant Korean Rice Cake w/ Soup 즉식 쌀 떡국 6.13oz.
\$1.99

WITH SMART SAVINGS CARD
CROWN
 Couque D'asse 크라운 쿠키다스 White/Coffee 7.6oz.
\$2.99

WITH SMART SAVINGS CARD
PENGUIN
 Canned Fish Mackerel /고등어 -14.1oz. Mackerel Pike /꽂치-14.1oz.
\$1.89 \$2.29

Champagne Mango
 샴페인 망고 box
\$10.99

Koimo
 Sweet Potato 코이모 고구마
\$1.48

ORGANIC
 100% DELICIOUS
ORGANIC FARM
 Organic Brown Rice 유기농 쌀 3 lbs.
\$7.49

Fuji Apple
 후지 사과
\$1.48

Ginger
 생강
\$1.58

I LOVE TOFU
 아이러브 두부 All Varieties/14oz.
\$0.88

Beef
 Short Plate 냉동 우삼겹살
\$6.99

Chicken
 Drumstick 닭다리
\$1.29

Boneless Pork Loin
 돈까스
\$4.99

Beef Top Blade Steak
 부채살 (낙엽살 스테이크)
\$5.99

Marinated Sliced Beef Rib
 Eye for Bulgogi 양념 소불고기
\$5.99

Headless White Shrimp
 머리없는 흰새우 20-36's
\$7.99

Norwegian Mackerel
 노르웨이 고등어
\$1.99

Faroe Island Salmon Steak
 페로 아일랜드 연어 스테이크
\$6.99

Yellow Croaker
 영광굴비 5 lbs./box
\$34.99

SOOHYUP
 Dried Pollack Fillet Strips 수협 황태채 3.52oz.
\$5.99

HAIOREUM/NATURE'S
 Black Bean 해오름/자연담은 검은콩 4 lbs.
\$7.49

Hong Bowl Noodle Soup
 오성 홍 사발면 육개장/김치 3.03oz. x 12ea./box
\$6.99

NOODLE LOVERS
 Jjajang Myun/Jjampong 면사랑 산동 간짜장 /사천 짬뽕 14.8 - 24oz.
\$4.49

SAHM YOOK
 Black Bean Soy Drink 삼육식품 검은콩 두유 6.6fl.oz. x 20ea./box
\$15.99

HELLO HOME
 Elec. Grill 헬로홈 전기 그릴 KYS-868A/ea.
\$29.99

HANARO
 Square Multi Roaster 하나로 사각 멀티로스터
\$14.99

ZOJIRUSHI
 Stainless Mug & Bottle 조지루시 마그 겸용 보온병 SM-BA35GA/SM-BA35TA /0.35L/ea.
\$19.99

YES! CHIPS!
 NEW FLAVOR ALERT:
YES! IT IS ROASTED POTATO
 구운 통감자 맛
Yes! Chips!
 오성 예스칩스 Roasted Potato/2.75oz.
\$1.99

WE'RE NEVER CLOSED
 Store hours vary between locations. Please call the one nearest you for exact times.
H마트는 1년 365일 항상 오픈합니다.

I-93 NORTH: Exit 37B (into I-95 S/MA-128 S) toward Waltham, Exit 32B-32A toward Burlington, follow signs for Middlesex Turnpike/Arlington, turn left (at the light) and turn left when you see the Hmart sign (near Market Basket).

I-3 SOUTH: Exit 25A (into I-95 S/MA-128 S) and follow signs for Middlesex Turnpike (South), turn left (at the light) and turn left when you see the Hmart sign (near Market Basket). 43 Middlesex Turnpike, Burlington, MA 01803

Find us on:
www.facebook.com/hmartofficial
 Scan our QR-code with your smart phone for more information.

Our 2nd Annual EASTER EGG Drawing Contest
 내가 그린 달걀스타일

THE BEST EASTER EGG WINS! HMART EASTER EGG ART CONTEST.
 Kids in elementary school can enter Apr. 1st-18th, 2014 at participating Hmart's. (@customer service)
 Space is Limited, Smart Card only.
 1st Place - \$100 Hmart gift certificate, 2nd Place - \$50 Hmart gift certificate
 3rd Place - \$30 Hmart gift certificate, Consolation Prize - Snack Box (\$10 value)
 Winners will be announced Saturday, Apr. 26th, 2014
 Event will be from 2PM-5PM on Saturday, Apr. 19th, 2014
 *Look for the event poster inside the store for details.

"美 양적완화, 英보다 두배 효과" <BOE> 보고서 "GDP 증가 효과 두배...인플레이 유발은 비슷"

(런던 로이터=연합뉴스) = 미국의 양적완화가 영국보다 두 배의 효과를 낸 것으로 영국 중앙은행인 بنك 오브 잉글랜드(BOE)가 평가했다.

BOE는 마틴 윌 통화정책이사 주도로 작성해 17일 공개한 보고서에서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의 채권 매입이 BOE보다 경기 부양에서 두 배의 효과를 낸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미국과 영국의 2009년 3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의 성장과 인플레이 수치 등을 분석해 두 중앙은행의 양적완화가 어떤 효과를 냈는지를 비교 평가했다.

보고서에 의하면 연준은 이 기간에

국내총생산(GDP)의 1%에 해당하는 채권을 사들여 GDP를 0.35% 높인 데 반해 BOE는 같은 비율의 매입으로 0.18% 높이는 데 그쳤다.

반면, 인플레이에서는 큰 차이가 없어 미국은 소비자 물가가 0.38% 상승한 데 반해 영국은 0.3%에 그쳤다.

BOE는 2009년부터 2012년까지 3천 750억 유로(6천300억 달러)의 채권을 사들였지만 연준은 2008년 양적완화에 착수하고 지금까지 3조 달러 이상을 샀다. 보고서는 BOE의 양적완화 효과가 연준보다 덜한 데는 유럽국의 각기 다른 재정 정책과 유로 경제의 취약함도 변수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했다.

윌은 또 연준의 채권 매입은 시장으로 하여금 위험 자산에 더 투자하도록 유도하는 효과를 낸 데 반해 BOE 조치는 '기록적으로 낮은 0.5% 금리가 오랫동안 유지될 것'이란 확신을 주는데 그쳤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BOE도 양적완화를 통해 위험 자산 투자가 늘어나길 기대했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BOE 보고서가 유럽중앙은행(ECB)의 양적완화 실행에 가이드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마리오 드라기 ECB 총재는 최근 필요하면 양적완화도 쓸 수 있다고 밝혔다. jksun@yna.co.kr



니어바이 프렌드'는 사용자 위치정보를 자동으로 실시간 추적해 알려주는 점에서 다르다.

'니어바이 프렌드' 기능을 이용하는 사용자들은 푸시알림을 통해 자신의 페이스북 친구가 근처에 몇 명이 있는지를 알 수 있다.

푸시알림을 보고 스마트폰의 페이스북 애플리케이션(앱)을 열면 가까운 곳에 있는 친구들의 명단, 친구들의 위치와 그곳에 있던 시간, 현재 자신이 있는 곳에서 친구들의 위치까지 거리 등 자세한 정보가 뜬다.

이런 상세 위치 정보는 페이스북 설정 메뉴에서 '니어바이 프렌드' 기능을 활성화하고 자신의 정보를 공개하겠다고 동의한 사용자들 사이에만 공유된다. 사생활 보호를 위한 장치다.

사용자들은 또한 자신의 위치정보를 공개할 친구들과 그렇지 않은 친구들을 따로 선택해 관리할 수도 있다.

페이스북의 제품책임자 앤드리아 배커리는 이날 블로그를 통해 "니어바이 프렌드는 당신의 페이스북 친구가 근처에 있을 때 알림을 보내준다"며 "영화관 갔다가 '니어바이 프렌드'로 가까운 곳에 있는 친구를 발견하고 같이 영화를 볼 수 있게 되는 방식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당신과 친구가 함께 이 기능을 활성화하고 서로 정보를 공유하도록 선택해야만 위치정보가 뜨게 돼 있다"며 "또 특정한 친구에게만 더 정확한 나의 위치를 알려줄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inishmore@yna.co.kr

페이스북, 친구 위치정보 알림 서비스 도입

'니어바이 프렌드'...근처에 친구 몇명 있는지 알 수 있어

(서울=연합뉴스) 권수현 기자 = 세계 최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업체 페이스북이 페이스북 친구들 사이에 위치정보를 알려주는 서비스를 조만간 개시한다고 17일(현지시간) AFP와 AP통신 등이 보도했다.

'니어바이 프렌드'(Nearby



Friends'가 가까운 곳에 있는 친구)로 이름 붙여진 이 새 서비스는 스마트폰의 GPS(위치추적시스템) 정보를 기반으로 페이스북에서 친구를 맺은 사람들끼리 위치정보를 나타내준다.

페이스북에는 이미 '체크인' 등 사용자의 위치를 나타내는 기능이 있지만

bostonhanjin.com

여러분 가까이 있습니다!

한진

175 Harvard Ave. Allston, MA 02134
T: 617.782.2424 F: 617.782.2421

귀국이사 / 로컬이사 / 파워딩 / 택배 서비스

여권사진 / 이벤트 사진 / 영상 촬영 및 편집
그래픽디자인 서비스 / 디지털 포토 & 포토샵 튜터링

결혼식비디오예약중 Nabis Studio

CJ

대한통운 보스턴 지사
<http://www.keboston.com>

대한통운 과 CJ 아시아 최고의 물류시장 오픈!!
뉴잉글랜드의 모든 이사를 맡겨 주십시오.

귀국이사 · 로컬이사 · 타주이사
한국 및 타주 자동차 운반

고국의 전지역 일주일 도착을 보장하는 **항공택배**

24시간 이사상담

978-461-2424 / 1-888-239-9377
e-mail 상담 : huny@keusa.com

51 Knox Trail, Acton, MA 01720



1114 Beacon St. Newton, MA

예약문의: 617.527.7888

단체 식·노래방 시설 완비!

월-목 11:30~3:00/4:30~10:30

금-일 11:30~3:00/4:30~11:00

잊을 수 없는 한국의 맛을 압구정에서 느껴보세요!

확! 달라진 메뉴와 맛으로 압구정이 여러분을 모십니다!



"기계냉면도입"

**입에서 살살 녹는 생갈비와 로얄양념갈비
그리고 꾸썹 칼칼한 아구찜과 곰창 전골!!**



9시 30분 이후 단체 식·노래방 이용 가능!

단체 손님 예약 환영!

뉴 압구정 찾아 오시는길
(뉴튼 센터 역에서 차트 3분거리)

1114 Beacon St. Newton, MA
예약문의: 617.527.7888
단체 식·노래방 시설 완비!



백린
(보스톤코리아 컬럼니스트
역사문제 연구소 연구위원)

〈오대산 사고지 (史庫址) 답사기〉 2

—사고지 (史庫址) 를 찾아서—

우리가 오대산에 간 것은 상원사에 있는 고려대장경을 보는 일 보다 오히려 오대산 사고지를 찾아 조사하는 하는 일이 더 중요했기 때문이다. 오대산 사고는 월정사와 상원사의 중간 지점에 있었던 것이다. 임진왜란 후 실록청에서 태조대왕에서부터 제 13대 명종대왕까지의 역대실록을 봉안해 왔던 것이다. 사고가 있었다는 그곳에 암자 하나가 보이기에 무턱대고 암자로 찾아 들어갔다. 그런데 스님은 어디에 숨어버렸는지 보이지 않았고 대학입시를 준비 하기위해 강릉에서 와 있다는 여고생이 나와서 안내해 주는 것이다. 여고생의 안내로 암자와 사고의 건물이 있었다는 일대를 살살이 살펴 보았다

그런데 사고가 있었던 그 자리에는 주춧돌 하나 보이지않았고 옥수수밭으로 변하여 옥수수가 길게 넘게 자라고 있었다. 상전이 벼해(桑田碧海) 라하더니 사고의 건물은 이미 파괴 된지가 오래되어 그 흔적도 찾아볼 수가 없었다. 역사가 오래되고 세월이 많이 지나서

가 아니다. 한일 합방 후 일본인이 와서 오대산 사고에 봉안 되었던 역대왕의 실록과 기타 도서를 몽땅 일본으로 가져가 동경제국대학 도서관에 주어 조선사를 연구케하고 사고를 폐쇄한 것이다. 그런데 일본에 가져갔던 오대산 사고본은 1923년의 관동대지진때 다 불타 버린것이다. 사고가 없어진 후에 무주공터가 된 그자리에는 암자 하나만 남았고 그 터는 채마밭과 옥수수밭으로 변해버린 것이다 일본에 빼앗긴것이 어디 이조실록뿐 이겠는가. 사찰과 암자도 피해가 적지 않았다는 것이다. 나라를 빼앗겼으니 남아남것이 있었겠는가 오대산 사고의 장서의 피해에 대하여는 필자의 〈한국도서관사〉와 서울대 신문에 발표한 일이 있어서 여기서 다시 설명치 않기로 한다. 모처럼 기회가 생겨서 찾아간 사고지에서 이렇다할 수확도 없이 헛탕만치고 옥수수밭에서서 사진만 한장 찍어 가지고 상원사로 향했다.

〈오대산 사고지 답사기〉
—상원사 에서—

상원사에 가는 도중에는 사람은 한사람도 볼수가 없었다. 말그대로 정막강산이었다 청산계곡(靑山溪谷)을 흐르는 냇물은 거울같이 맑았고 아침햇살을 받은 수석(水石)은 부드럽고 아름답게만 보였다. 명산유곡을 동천별계(洞天別界) 라고 하더니 바로 거기가 정토(淨土)인 것 같았다. 그 옛날 신라의 자장율사가 문수보살의 현신을 보려고 명산유곡의 명승지를 찾아다니다가 그곳에 와서 절을 짓고 수도하였던 곳이라고 전한다. 우리가 상원사에 도착한 것은 낮 12시경이다. 절에서 우리가 간다는 기별을 받았는지 주지스님이 나와서 반가이 맞아주었다. 주지스님의 설명은 상원사가 신라 선덕여왕때 당나라에 유학하여 중국의 오대산(五臺山)에서 문수보살(文殊普薩)의 수계(受戒)를 받고 가사(袈裟)와 사리(舍利)를 얻어 가지고 돌아온 자장율사가 이곳에 와서 절을 짓고 수도한 것이 상원사의 기원이라고 하였다. 그런데 상원사가 신라 선덕여왕 23(724)에 창건되었다는 주장이 있다. 사실 자장율사는 선덕여왕 5년 (636) 당나라에 유학하였다가 동왕 12년(643) 에 신라로 돌아왔던 것

이다. 그래서 상원사가 724년에 창건되었다는 설이 더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 오대산이라는 명칭은 후에 자장율사의 고사에 따라 중국의 오대산에 빗대어 주어진 명칭인 것 같다. 어쨌든 옛날의 법당건물은 여러 전란으로 다 소실되고 지금의 건물은 해방후에 새로 건축한 것이라고 하였다. 그래서인지 법당의 건물은 별로 장엄하지가 않았다. 상원사에는 신라 선덕여왕 24년 (726) 에 주조하였다는 대동종이 있어 유명하다. 그 동종은 서울 보신각에 있는 대종만치나 큰종이다. 그런데 종의표면에는 운학문(雲鶴紋)의 도상(圖像)과 선관이 하늘로 날아올라가는 비천도(飛天圖)가 그려져 있어 더욱 고상해 보였다. 주지스님의 말은 역사가 오래된 대종이지만 그 소리가 은은하고 참으로 아름답다고 하였다. 주지스님은 우리를 안내하여 법당으로 들어가 불전위의 칸막이를 열고 대장경이 들어있는 책계를 열어보였다. 대장경 여러책이 궤에 가지런히 놓여져 있는데 모두 황색표지에 붉은 끈으로 메어져 있고 아직 아무도 손을 대지 않은 새 책들이었다.



한의원 선유당

진료 과목

- 통증치료 알러지
- 불임 갱년기 여성질환
- 여드름 한방피부미용(주름개선 안면침)
- 소아진료 성장침 비염 아토피
- 교통사고 유학생 여행자보험 적용가능



www.sunudang.com

**1208 VFW Parkway #201
Boston MA 02132
617.327.1812**

Dedicated to Your Health

Icon Dental

아이콘덴탈

Ultimate Smile

Quality Dental Care

렉싱턴과 콩코드에 편리하게 위치한 아이콘 덴탈은 여러분과 가족 모두에게 적합한 맞춤형 치료 계획을 통해 미용치과, 성인 및 소아 치열교정 및 최신 임플란트 시술에 이르기까지 모든 분야의 치과 진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최신 기자재와 진료기술 그리고 편안하며 현대적인 진료실에서 친절한 스태프와 함께 양질의 치과 진료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대표원장 치의학박사 안형준

57 Bedford St. Suite 220, Lexington MA 02420
전화 781-861-8978

97 Lowell Rd. Suite A8, Concord MA 01742
전화 978-369-0254

이메일 info@icondentallexington.com
www.icondentallexington.com

Dr. 차 영 주
치과 일반의
Dr. James Kim
치과 일반의
Dr. Larisa Turkenich
치과 일반의
Dr. Charles Braga
임플란트 및 잇몸 수술 전문의
Dr. 오 동 현
교정 전문의

공정원의 입학 사정관들이 알려주지 않는 대학 입학 지원 요령

공정원 선생님은 보스턴 근교 브룩라인 공립학교에서 17년째 교사로 재직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미국의 유명한 대학입학 컨설턴트인 엘리자베스 위스너-그로스의 “대학 입학 사정관들이 알려주지 않는 272가지 비밀/미국 명문대학 입학기술” (마고박스 출판)을 공역하셨습니다. 공정원 선생님은 하버드대학 출신들이 창립하고, 전직 아이비리그 대학 입학 사정관들로 구성된 종합 교육컨설팅회사에서 컨설턴트로도 활동하고 계시며, 두 자녀 모두 프린스턴 대학에 재학하고 있습니다. 대학 진학 설명회에 참석을 원하시는 분은 BostonKongConsulting@gmail.com 이나 또는 978-505-7884 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2014학년도 미국 대학 정시 지원 현황을 분석한다

올해 대학 정시 합격 현황은 아이비 리그 대학 중 하버드, 컬럼비아, 다트머스 대학은 작년보다 약간 높은 합격률을 보였고, 프린스턴, 예일, 유펜, 브라운, 코넬 등은 작년보다 낮은 합격률을 보였다. 특히 올해는 많은 대학들이 가장 많은 지원자수를 기록해서, 상대적으로 낮은 합격률을 보였다. 하버드는 34,295명이 지원해 2,023명이 합격, 5.9%의 합격률을 보였고, 컬럼비아는 32,952명이 지원해서 2,291명이 합격, 6.94%의 합격률을, 그리고 다트머스는 19,235명이 지원해서 2,220명이 합격, 11.5%의 합격률을 보였다. 프린스턴은 26,641명이 지원해서 1,939명이 합격, 7.28%의 합격률을 보였고, 예일은 30,932명이 지원해서 1,935명이 합격, 6.27%의 합격률을 보였고, 유펜은 35,788명이 지원해서 3,551명이 합격, 9.9%의 합격률을, 브라운은 30,291명이 지원해서, 2,619명이 합격, 8.6%의 합격률을, 코넬은 43,041명이

지원해서 6,025명이 합격, 14%의 합격률을 보였다. 다트머스는 지난 2년동안 계속 지원자수가 감소하여, 다른 아이비대학들과 대조적이다. MIT는 18,357명이 지원해서 1,419명이 합격, 7.7% 합격률을 보였고, 듀크는 32,506명이 지원해서 3,499명이 합격, 10.8%의 합격률을 보였다. 스탠포드는 42,167명이 지원해서 2,138명이 합격, 5.07%의 합격률을 보였다. 노스웨스턴은 33,697명이 지원해서, 12.9%의 합격률을 보였다.

이처럼 명문대들의 낮은 합격률에 크게 걱정하는 부모님들이 많다. 물론 명문대들의 경쟁이 치열한 것은 사실이나, 이러한 숫자를 걱정할 필요는 없다. 우선 많은 학생들이 더욱 더 많은 대학에 지원하고, 대부분 대학들도 자기 대학의 지원자수를 늘리고자 여러가지 캠페인을 하여, 자격 여부에 상관없이 지원하도록 유도한다. 유명

대학에서 마케팅 전략으로 부치는 광고 이메일이나 우편물을 받고 좋아하는 것은 금물이다. 불과 수년 전만 하더라도 보통 한학생당 7개 정도의 대학에 지원하면 적당하다고 생각되었으나, 요즘에는 10개 이상 대학에 지원하는 학생을 쉽게 볼 수 있다. 낮은 합격률에 불안을 느낀 학생, 부모님들이 더 많은 대학에 지원할 것을 요구한다. 따라서 지원자 수는 계속 증가할 수도 있다. 조금이라도 합격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되는 대학에는 더욱 많은 수의 학생이 몰릴 것이고, 합격 가능성이 전혀 없는 대학이라고 생각되는 대학에는 학생들이 덜 몰릴 것이다. 그리고, 규모가 큰 대학이나 학생정원이 많은 대학들은 지원자 수가 많을 수 밖에 없다. 예를 들면, 올해 UCLA지원자 수는 8만명을 넘었다. 매년 대학에 갈 고등학생들의 숫자가 줄어드는데도, 지원자 수가 증가하는 것은 그만큼 한 학생당 지원하는 대학



숫자가 늘었다고 봐야한다.

문제는 지원자 수가 아니라, 자신과 경쟁을 하는 학생들이 어떤 자격을 가지고 있느냐가 문제다. 동양계 학생들은 똑같은 대학을 입학하려고해도 성적이나 시험 점수가 다른 학생들 보다 더 높아야 한다는 것은 다 알려진 사실이다. 지난번 컬럼에도 얘기했지만 명문대를 목표로 하는 학생은 반드시 9학년이 되기 전에 모든 준비를 철저히 해야한다. 9학년 학교 성적때문에

명문대 합격이 좌절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한다. 학교 성적은 다시 되돌릴 수 없기 때문이다. 대학 입학 심사에는 특히 얼리에 지원하는 학생은 9,10,11학년 성적이 일단 좌우한다. 그 다음에 과외 활동과 추천서이다. 다음 컬럼에서는 "학교 카운슬러나 선생님이 써 주는 추천서가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가?", "어떻게하면 좋은 추천서를 받을 수 있을까?"에 대해 이야기 하겠다.

Avoid the Summer Slide by enrolling at JEI.

Summer 2014

Avoid Summer Learning Loss

JEI Programs are aligned with **Common Core State Standards** to give students the advantage they need. Children can customize their summer classes by selecting subjects they need the most help in.

FREE Enrollment from June 1-30

- JEI Math
- JEI English
- JEI Reading & Writing
- JEI Problem Solving Math
- JEI Korean / 재능한글

재능교육 JEI Learning Centers

T. 781-365-0075 11 Adams St, Burlington MA 01803 www.jeikids.com

"따뜻한 봄날의 시작을 헤어스타일 영이 책임지겠습니다"

남자 컷 25불 / 여자 컷 30불 / 파마 70불 부터
디지털 130불 부터 / 케라틴 매직 220불 부터 시작 합니다.

경력 압구정 김영남 미용실, 롯데호텔 마리 미용실, 송내 부천 박준 오픈 스탬
뉴욕 Fox 헤어 스튜디오, SALON LOFTS sunny 윤영

617.947.6840

25 church st, watertown MA

미국 유학 성공 가이드



오승준 (Albert Oh)
SD Academy 원장
SDAcademyOnline.com
617-505-1852, 510-387-0735
info@SDAcademyOnline.com

미국, 영국, 캐나다 등 외국에서 공부를 하던 학생이 한국으로 다시 들어가 대학에 입학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중고등학교 때 외국으로 처음 나간 유학생일 수도 있고, 외국에서 태어나 법적으로 외국 국적자인 2세 학생일 수도 있지만, 두 경우 모두 한국에서처럼 수능을 보고 한국의 대학에 입학하지는 않는다. 대신 재외국민 특별전형 혹은 외국인 전형으로 지원해 한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과는 다른 경로로 대학에 입학하게 된다.

재외국민 특별전형은 외국 학교에 일정 기간 이상 재학하여 한국에서 공부하는 일반적인 학생들과 학습 방법이나 환경이 달라 대학 수학능력시험(수능)을 통해 대학 지원이 어렵다고 생각되는 학생들을 위한 대학입시 전형이다. 크게는 외국에서 3년 이상 공부한 유학생을 위한 3년 특례와 외국 국적을 가지고, 혹은 이민 1.5세로 외국에서 한국의 초·중·고교

육에 해당하는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재외국민을 위한 12년 특례로 나뉜다. 두 전형을 합친 모집 인원이 학교 총 학생 수의 2%로 제한되어 있고, 특별전형은 대한민국 대학입시 전형 중 수시로 취급되기 때문에 2013년에 새로 바뀐 교육법에 따라 지원 횟수가 6회로 제한되어 있다. 즉, 외국에서 3년 이상 유학한 학생이 한국에 있는 대학에 지원 시 총 6개 학교에만 지원서를 넣을 수 있다는 이야기다. (재외국민전형은 영어 혹은 타 외국어 능력의 증명으로 대학에 지원할 수 있는 영어특기전형(어학특기자 전형)과는 전혀 다른 방식이다. 2014년 입시를 기준으로 연세대가 재외국민전형을 통해 68명, 고려대 75명, 성균관대가 70명을 모집한 것에 비해 영어특기전형으로는 연세대 598명, 고려대 300명, 성균관대가 268명을 모집했다.)

사실 문제는 재외국민전형 지원 자격 그리고 특별전형으로 지원하는 학생을 평가하는 방식이 학교마다 너무 다르다는데 있다. 예를 들어, 서울대학교의 재외국민 특별전형에는 일반적으로 많은 유학생들에게 해당하는 3년 특례가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 즉, 적어도 초·중·고교 과정에 상응하는 12년 교육과정을 모두 외국에서 이수하거나, 부모님과 본인 모두 외국 국적을 가지고 외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이 아니면 지원 자격조차 없는 것이

IVY 말고 SKY로? (1)

다. 그마저도 지원서는 물론 자기소개서 및 수학계획서, 추천서 2부, 지원자와 부모님의 국적 증명서 혹은 출입국 사실증명서와 여권사본, 언어능력 증빙 서류 (TOEFL, SAT, IELTS 점수) 등 수많은 서류를 제출해야 하고, 합격 후에도 한국어 능력평가시험을 통과해야 하기 때문에 상당히 까다롭다. 그렇기 때문에 평범한 유학생이라면 서울대 특별전형은 고려조차 하지 않는다. 그나마 지원자격에 해당하는 학생들조차 해가 갈수록 점점 더 치

자 전형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에 맞춰 입학원서 및 필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모집 과정의 1단계는 통상 5월 1일에 마감되는 지원서, 성적표, 시험기록, 에세이, 추천서, 이력서 등을 토대로 서류 심사를 하게 되고 첫 단계에서 모집 인원의 3배까지 지원 학생수를 추리게 된다. 전형 1단계를 통과한 학생들에 한해 면접평가(인터뷰)를 진행하게 되고 서류평가 점수 70%, 면접평가 점수 30%를 합산해 최종합격자를 선발한다. 다만, 음악과 혹은 체육교육

〈표1〉 서울대학교 외국인 및 재외국민 특별전형 합격자 현황						
국적	외국인			재외국민 (12년 특례)		
학년도	지원자 (명)	합격자 (명)	합격률 (%)	지원자 (명)	합격자 (명)	합격률 (%)
2011	435	39	9.0	719	152	21.1
2012	368	30	8.2	752	113	15.0
2013	353	33	9.3	695	90	12.9
계	1156	102	8.8	2166	355	16.4

열한 경쟁을 펼치는 양상이다.

이에 비해 연세대학교의 재외국민 특별전형은 부모 모두와 함께 해외에서 거주하며 고등학교 과정 1년을 포함해 3년 이상 중·고교 과정을 외국에서 이수한 "중·고교 과정 해외 이수자" 전형과 서울대의 12년 특례와 마찬가지로 초·중·고교 전 과정을 모두 해외에서 이수한 "전 교육 과정 해외 이수자" 전형으로 나뉜다. 대부분의 유학생들은 중·고교 과정 해외 이수

과 등의 예제능 계열은 서류평가 50%, 실기평가 50%를 합산한 총점으로 합격자를 선발한다.

(다음 컬럼에 계속)

오승준 (Albert Oh)
Copyright © 2013.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승준 원장의 미국 유학 성공 가이드는 SD Academy 홈페이지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컬럼 내용이나 상담, 수업에 관한 문의는 전화(617-505-1852) 또는 이메일(info@sdacademyonline.com)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어 실력을 향상시키고 싶으십니까?

ISAL 어학원을 소개합니다

수준별 맞춤형 수업
비즈니스 영어회화
대학교 진학 준비(학사, 석사, 박사과정)
ISAL 에서 시작하세요.



INTERNATIONAL SCHOOL
OF
ADVANCED LEARNING

20 Linden Street 2nd Floor Allston, MA 02134 855-595-5885

www.isalusa.com info@isalusa.com

하나여행사 HANA TRAVEL



- 한국, 아시아, 미국내, 유럽, 남미 등 항공권 할인
- 관광 패키지

전문가와 함께 편안한 여행을 설계하세요.

617-713-HANA(4262)

Cell.phone: 617-818-2772

email: hanatravel@gmail.com

Toll Free 1-800-368-6977

정준기 원장 교육 컬럼

정준기 원장 (보스톤 교육원)
Tel: 339-234-5255 / 5256 / 5257
Fax: 339-234-5258
Email: bostoneducation@hotmail.com
Web: bostonedu.org



2014년도 미국 명문대학 정규 입학 결과 분석 3

(예일 대학교)

미국 대학중 가장 입학이 어려운 대학이 예일 대학이다. 왜 예일이 입학이 가장 까다로운 대학일까? 다른 아이비리그 대학들과 차별화된 입학 결정을 하는 대학인가? 예일은 시카고대, 코넬대, 존스홉킨스대학과 더불어 미국에서 학점 받기가 힘든 대학중 하나이다. 또한 영국식 거주지 칼리지 시스템으로 영국식 교육 시스템을 미국식으로 잘 바꾸어 지도하는 대학이다. 이 내용을 잘 이해한다면 예일대학 입학허가를 어렵지 않게 받을 수 있다.

올해 예일대학교의 입학처장이 바뀌었기 때문에 입학 정책의 변화를 기대하면서 “보다 많은 학생들에게 입학 기회를 주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했지만 오히려 정규 지원에서 합격자 수는 감소했다. 지난 해에는 조기지원자 4,520명중 649명이, 정규지원에서는 25,090명중 1,342명이 입학허가되어 총 1991명이 합격하였다. 올해 조기지원의 경우 지난해 비해 지원자수가 230명이 더 늘었다. 이로 인해 합격자수 역시 735명으로 지난해 보다 증가되어 정규 합격자수가 줄지 않을까 예상은 했지만 합격자수를 너무 많이 감소시켰다. 올

해 정규 지원자 총 26182명 중에 1200명이 입학허가를 받아 4.58%의 합격률을 보였다. 이는 예일대학교의 학교기록을 세운 입학률로 갈수록 지원자수는 늘어나고 입학률은 더욱 떨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예일 대학 입학 처장인 퀸란(Quinlan)에 따르면 “올해 입학 허가된 학생들은 폭넓고 다양한 재능, 배경, 경험, 그리고 열정이 있는 학생들로 학교 캠퍼스에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 학생들이다.”

라고 말하였다. 학교가 거주지 칼리지 시스템으로 각각의 칼리지별로 다양한 특징들이 있어 칼리지에 맞는 학생들을 선별한다. 물론 학교 성적, 리더쉽, 공동체 생활

경험, 다양한 교외활동, 그리고 학생들의 배경을 고려하여 매년 신입생들의 구성을 조합한다. 영국식 교육 방식이 조금은 남아있어서인지 학교성적이 매우 우수해야 하고 학생의 성향이 특정분야에 전문적인 지원자들을 하버드에 비해 더 선호하는 대학이다.

예일 역시 하버드처럼 저소득층 학생들중 우수한 학점을 가진 학생들과 가족중 대학 진학이 1세대인 지원자에게 많은 입학 혜택을

부여하였다. 물론 흑인, 백인, 아시안등 인종에 대한 배려도 하여 다양한 인종적 배경을 가진 신입생들을 확보하였다. 조기지원과 정규 지원에서 학생들이 아무리 우수하다 할지라도 합격률이 높아지는것보다 오히려 낮아지고 있다는점은 지난 10년동안의 데이터를 통해서 알 수 있다.

RR	RR			Early Action			Regular Decision		
	Admit	Applied	Rate	Admit	Applied	Rate	Admit	Applied	Rate
2005	1880	19451	9.67	704	3933	17.90	1176	15518	7.58
2006	1878	21101	8.90	724	4084	17.73	1154	17017	6.78
2007	1860	19323	9.63	709	3541	20.02	1151	15782	7.29
2008	1892	22813	8.29	885	4888	18.11	1007	17925	5.62
2009	1951	26000	7.50	742	5556	13.35	1209	20444	5.91
2010	1940	25869	7.50	730	5235	13.94	1210	20634	5.86
2011	2006	27282	7.35	761	5257	14.48	1245	22025	5.65
2012	1975	28974	6.82	675	4304	15.68	1300	24670	5.27
2013	1991	29610	6.72	649	4520	14.36	1342	25090	5.35
2014	1935	30932	6.26	735	4750	15.47	1200	26182	4.58

Blessed Lament

Talks and Original Music inspired by Korean 'Han'

Jae Hyeok Jang, composer

Jisun Oh, flute

Jinwook Park, violin

Yaumi Cho, soprano

Yoengsin Kim, mezzo sp

Eunae Koh, violin

admission 10 \$
Student/Children/Senior Free

4.26.Sat 7:30 PM

ECC Children's Chapel
32 Harvard Street
Brookline

Korean American Cultural Foundation
www.koreancultureboston.org • info@koreancultureboston.org

‘성령 안에서 하나되는 교회’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로 인해 막혔던 답을 예수님이 무너뜨리셨습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도 서로 사랑하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었습니다.
겸손.. 은유.. 인내.. 사랑.. 용납..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금요찬양예배 저녁 8:00
주일예배 오전 10:00

주일 예배 오전 10:00
주일학교, 유스 예배 오전 10:00
금요찬양예배: 금 오후 8:00
새벽예배: 월-금 오전 5:30, 토 오전 7:00
청년모임 주일오후 12:30
속회모임 수 - 주일 속회별
중보모임 화, 목 오후 8:00, 주일 오전 9:30
성경공부 주일 오후 12:30, 수 오전 9:30, 금 오후 9:30

비전 교회
200 THE UNITED METHODIST CHURCH
The people of The United Methodist Church

80 Mt. Auburn St., Watertown, MA 02472 Tel: 617.744.9557
www.gracevisionumc.org

하나님을 기뻐하는 교회 삶을 노래하는 교회

나사렛사람의교회

KOREAN CHURCH OF THE NAZARENE

주일예배 오전 11시

**“하나님은 가까이 계시십니다.
나사렛사람의교회도
가까이 있습니다.”**

900 Main Street
Reading, MA 01867
보스톤 북쪽
I-95 Exit 38B
(Rt. 28N)로 나와서
2 마일 왼쪽에 있습니다.
Tel. 781.439.1840

www.npeople.org
담당목사 유 경 렬



미주한한계수교장로회

세빛교회

NEW LIGHT KOREAN CHURCH

주일예배: 오전 11시 30분
주일영어예배 (EM): 오전 11시 30분
주일학교 (유, 초, 중, 고): 오전 11시 30분
수요예배: 오후 8시
금요기도회: 오후 8시
새벽기도회: 오전 6시 (월요일 제외)

담당목사 김대업
730 Main St. Waltham, MA 02451
781-652-0001 / NewLightKC.org



뉴햄프셔한인교회

New Hampshire Korean Christian Church

주일예배 • 오후 1시 30분
담당목사 • 장계은

12 Station Rd. Bedford, NH 03110 (395 루트 8 Hawthorne Dr. Bedford)
603-264-6799 • 603-264-6798 • www.newkcc.org



임마누엘 연합교회

주일예배: 오후 1시 30분
새벽기도: 오전 6시 (월~금)
담당목사: 김 덕 기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60 Forest Park Rd, Woburn,
MA 01801
617-939-3903



성양푸안 다블뤼 보스톤 한인성당
St. Anthony's Korean Church of Boston

성목요일 (4/17)
8pm 주의 만찬미사

성금요일 (4/18)
3pm 십자가의 길
8pm 수난예절

성토요일 (4/19)
9pm 부활 성야미사

부활절 (4/20)
3pm 부활대축일 낮미사 및
세례성사

45 Ash St. Newton, MA 02466
617-558-2711, 617-244-9685
office.kccb@gmail.com
www.stdaveluychurch.org



보스톤 서부 장로교회

Boston-West Korean Presbyterian Church

어머님 마음 같은 교회

주일예배: 오후 2시
중고등부: 오후 2시
금요기도회: 오후 8시

주일학교: 오후 2시
대학부모임: 주일 12시
구역모임: 구역별로

담당목사: 김학수
www.bostonwestchurch.or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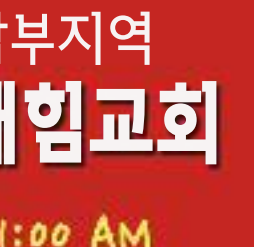
657 Boston Post Road, Weston, MA 02493
교회: 781.894.3958 목사관: 617.969.5809



보스톤 남부지역 보스톤 새힘교회

주일예배 11:00 AM

617-622-5225
5 Cabot Pl, Stoughton, MA 02072
www.bostonrenewal.org



Beth Israel Deaconess HealthCare®

Min Keun Song, MD, MPH, CMD

송민근 박사는
내과학과 노인의학
전문의입니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하바드
보건대학원을
졸업하였고 미주리
주립 대학, 하바드
의대에서 전문의
수련과정을 마쳤습니다.

송박사의 외래 클리닉은 **Milton** 과
Needham에 위치해 있고 새환자를 받고
있습니다.

BIDHC-Milton
199 Reedsdale Road
Brooks 2
Milton, MA 02186

North Hill
865 Central Avenue
Suite A301
Needham, MA 02494

For an appointment, please call:
617-696-7600



유럽, 미국,
일본, 한국차
서비스

States Inspection

태양자동차

Repair & Body

고객님은 차만 가지고 오시면 됩니다. 필요한
모든 사항을 저희가 꼼꼼히 확인하고 점검하여
고객님께 꼭 맞는 정비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정비에 관한 모든 것이
저희 태양자동차에 있습니다.

**(T) 781-391-6200
781-391-7700**

78 SWAN ST. MEDFORD MA, 02155
(F) 781-827-0867 EMAIL: SUNAUTOBODY@YAHOO.COM
WEBSITE: http://sunauto-boston.hanjinis.com/



강제연습을 중단계문으로 삼는

제실일안식일예수재림교 보스톤한인교회

담당목사: 송연호

만식일 학교: 토요일 오전 9:30
만식일 설교예배: 토요일 오전 11:00
중고등부 학생부: 토요일 오후 2:00
금요일 예배: 저녁 7:30
새벽기도회: 일요일 오전 6:00
개척준비: 화요일 저녁 8:30 (스카이프)
영양교실: 화요일 오전 10:00

부설: 보스톤 세생장 센터 / 17년간 헌신들을
위해 매달 무료 강의를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주소: 4 Spring St. Stoneham, MA 02180
전화: 781-279-3270 bkadventists@gmail.com
www.bkadventists.com



사진에 대한 고찰

어디까지나 자신은 사진을 배우는 사람이라는 초심을 잊어서는 안된다. 자만은 늘 금물인 법이다. 사진사뿐만 아니라 고금의 예술사를 뒤돌아봐도 아무에게도 이해 받지 못한 작품들은 늘 별 작품이 아닌 경우가 많다. 관객과의 꾸준한 대화가 쌓이고 그것이 오랜 시간 지속되다 보면 드디어 사진에서 보여지는 이미지가 아닌 그 너머의 사유의 공간을 함께 나눌 수 있게 될 것이다

자신만의 스타일을 만들기 위해서는 아무도 보여주지 않아도 수십년 자신만의 사진생활을 계속해나가며 그것을 밀어붙여야 한다. 그러다 보면 진심으로 자신을 이해하고 자신의 작품을 보여주는 사람이 나오게 될 것이다. 남의 시선에 연연해하다 보면 순간순간 감각의 표현에 급급한 사진만을 남발하게 되며 유행에만 민감해진다.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 여러번 반복하여 사진을 찍으려 나가면서 끊임없이 관찰하고, 주변환경의 맥락을 이해하고 그 지역에 동화되어보자. 한 장소를 10번 20번 이상 반복하여 한달, 두달 이상 끊임없이 찾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한번 찾은 장소에서 찍은 사진은, 특히나 여행 중에는, 자신도 모르게 역조각한 시각에 함몰되기 쉽다. 한 지역의 역사를 이해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주 방문하고 또 방문하여 그 지역을 익히고 그 지역 사람들과 관계를 맺어야 한다. 모든 장면은 우연히 포착되는 것이 아니라 사전에 계획된 치밀한 연구에 의해서 준비된 한 순간 포착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미학, 논리, 윤리, 형이상학 등의 책을 많이 읽어보자. 이것은 어쩌면 가장 본질적인 문제와 근접해있다. 사진은 익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발현이다. 즉, 자기 이상의 결과물을 만들기는 정말로 어렵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삶에 대한 태도이며 이것은 그대로 사진에 나타나게 되어있다. 그러므로 자기 자신의 사유의 영역과 시각의 흐름을 스스로 인지하고 개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유명작가들의 말에 귀를 기울여보자.

앤셀 애덤스(Ansel Adams) 사진은 찍는 것이 아니라 만드는 것이다. 좋은 사진에 대한 법칙은 없다. 오직 좋은 사진만이 있을 뿐이다. 위대한 사진은 촬영대상에 대해 깊이 느끼는 것에 대한 총체적인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즉 누군가 인생에 대해 온전히 느끼는 것에 대한 진정한 표현이다.

오스카 와일드(Oscar Wilde) 감정을 가지고 찍혀진 모든 포트레이트는 찍혀진 이가 아니라 찍은 이의 자화상이다.

리처드 아베돈(Richard Avedon) 내 포트레이트는 내가 찍은 사진에 관한 것이라기보다는 나 자신에 대한 것이다.

수전 손탁(Susan Sontag) 사진가는 단순히 과거를 기록하는 사람이 아니라, 과거를 만드는 사람이다.



Photograph by SoungDae Yang

애니 라이보비츠(Annie Leibovitz) 내가 누군가를 사진 찍기 원한다고 말할 때는, 그것은 진정으로 그들을 알기 원한다는 의미이다. 나는 내가 아는 이들을 사진 찍는다.

Crouser & Suh PLLC

크라우저 & 서 로펌

이민법/국제법 전문 미국 로펌
한인 변호사들의, 한인들을 위한
최상의 법률 서비스!



이소영
이민 변호사

전문인력 취업비자 (H-1B)
단기연수인 비자 (H-3)
주재원 비자 (L-1)
특기자 비자 (O-1, P-1)
취업이민 (NW, EB-1, EB-2, EB-3)
투자비자 (E-2) / 투자이민 (EB-5)
종교 비자 (R-1) / 비자 변경 및 연장
가족초청 이민 / 시민권 신청
추방 재판 / 각종 이민 관련
비지니스, 민사 등 각종 소송 관련



조규성
민법/상법 변호사



양선영
이민 변호사



스티브 서
이민 변호사

Crouser & Suh PLLC

1111 Washington Street, Newton, MA 02465

Tel: 617.969.7979 / 617.877.3435

Fax: 617.969.4959 www.stevesuh.com / www.suhlawayer.com

신영의 **세상 스케치**

444회

시인 신영은 월간[문학21]로
등단, 한국[전통문화/전통춤]
알림이 역할 등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skyboston@hanmail.net

보스톤마라톤 생존자들이 전하는 '희망 메시지'

"사랑표현도 연습이 필요하다.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을 학교나 직장에서 가르쳐줄 필요가 있다. 사랑의 마음은 어떤 형태로든 표현해야 한다.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먹는다고 사랑의 표현도 해본 사람이 잘한다. 어릴 적부터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을, 형제간에도 사랑을 주고받는 방법을 부모가 확실히 가르쳐줘야 한다." - 한창희의 《사랑도 연습이 필요하다》 중에서 -

"한창희 전 충주시장은 시사종합경제지 토요경제에 연재한 한창희 칼럼과 한창희 사랑방에 쓴 글을 모았다. 이 책은 '시장지철이야기' '생각을 바꿔야 정치가 바뀐다' '성공한 대통령이 보고 싶다' '정치가 이게 뭐여' '쓴소리 단소리' '기초선거는 무공천이 좋다' '직장생활이 즐거우려면' '생각을 바꾸면 행복이 보인다' 등 총 8장으로 구성되었다. 한 전 시장은 머리말에서 "정치도 사랑처럼 연습이 필요하다. 재력이 좀 있다고, 공직생활을 통해 이름이 좀 알려졌다고 정치의 개념도 모르고 정치를 하겠다는 사람들이 허다하다. 당선이 돼도 정치를 전 쟁놀이 하듯 한다. 정치는 정적(政敵)을 다스

리는 것이다. 다시 말해 정적(政敵)을 포용하고 공생하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정치다"라고 주장했다." - <한경닷컴> -

21세기는 관계의 시대이다. 서로의 소통이 없이는 그 무엇도 이루어낼 수 없는 넓지만 좁은 세상에 살고 있다. 지구촌이 이제는 너무나 좁아진 탓에 서로의 마음을 감추려야 감출 수 없고 숨기려야 숨길 수 없는 스몰 월드(A Small World)에 살고 있어 서로의 생각과 느낌을 제대로 표현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사랑이라고 해서 굳이 젊은 남녀 간의 사랑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가정의 부부간이나 부모와 자식 간 그리고 가족과 그 외의 친구들과의 관계에서도 소홀히 여길 수 없는 것이 '사랑의 문제'인 까닭이다. 그렇다면 나는 내 주변의 관계들 속에서 어떻게 사랑을 풀어갈 것인가.

"사랑도 해본 사람이 더 잘한다. 경험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노후가 축적되었다는 말이다. 그래서 사랑의 경험이 많은 사람은 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대처하는 능력이 좋다. 상대의 마음을 읽는 눈이 밝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랑의 초보자들은 상대의 마음을 읽기에도 벽

차다. 그래서 이럴 땐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 또는 어떻게 하면 저 사람 마음을 끌 수 있을까. 하는 등 고심하게 된다. 그렇다고 걱정할 필요는 없다. 세상의 모든 일은 다 연습이 필요하듯 사랑 또한 연습을 통해 각별한 사랑은 물론 진정성 넘치는 사랑을 하게 된다."

때로는 가정에서도 남편에게나 아내에게 '사랑해!'라는 단어가 축스러워 입안에서 오물거리다 삼키곤 말아버릴 때가 많다. 하지만 그것은 자식을 키우는 부모로서 자녀교육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물론 미국에 살아도 한국 부모는 부모인가 보다. 아니면 성격 탓일까. 미국에서 45여 년을 살았어도 우리 집 가장인 남편은 아내인 내게 다른 사람이 있을 때 사랑한다는 말을 직접 들어본 기억이 없다. 그런 남편과 25년을 살다 보니 부부간의 사랑 표현법에 있어서는 아내인 내가 유별스러운 만큼 누가 있든 없든 간에 뛰어난 표현법을 창출한다.

어디 부부간의 사랑표현법에서뿐일까. 부모와 자녀 간의 사랑의 표현법에서도 연습과 훈련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한다. 사실 처음 아이를 가슴으로 안아주고 사랑한다는 말을 시

작하는 것이 축스러운 듯싶어 어려운 일이지 연습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사랑이 표현되는 것이다. 아니 이미 부모가 자녀를 깊이 사랑하고 있음을 알고 느낀 까닭에 몸의 표현은 더욱 자연스러워질 수밖에 없다. 괜스레 한국 부모님들은 자라는 유교적인 가정환경이나 교육 정도와 사회적인 문화에 익숙해져 있고 몸으로 표현하는 문화에 낯설어 자신의 마음을 솔직하게 표현하지 못하는 것뿐이다.

우리는 늘 익숙한 것이 편안하기에 익숙하지 않은 것은 낯선 것이라 여긴다. 아니 낯선 것은 불편하기까지 하다. 새로운 것을 시작하는 것조차 부담스러운 일인지도 모른다. 하지만 삶에 있어 우선순위가 무엇인가를 생각한다면 조금은 쉬워질 것이다. 내가 제일 사랑하는 내 남편과 내 아내를 위해 특별한 선물이라고 생각한다면 못할 이유가 없지 않은가. 돈 안 들이고 마음만 먹으면 최고의 기쁨과 행복을 선사할 수 있는 이렇게 좋은 '사랑법'이 있는데 말이다. 그렇게 마음을 다져 먹고 제일 가까운 내 가족부터 시작해 친구와 친지들 그 외의 관계에까지 말이다.

아이패드 미니(iPad Mini)를
무료로 장만할 기회!

보스톤코리아 아이 리포터(i Reporter) 모집



보스톤코리아가 대학생 이상의 학생을 대상으로 아이 리포터를 모집합니다. 학교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신속하게 보스톤코리아닷컴에 올려주시면 됩니다.

대상: 대학 재학 이상

모집인원: 5명

주요업무: 학교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한달에 3건 이상 보스톤코리아 웹사이트에 올리는 것.

혜택: - 일을 수행할 수 있는 아이패드 미니를 지급

- 2달 이후부터는 매달 전체 기사중 2건의 기사를 채택

소정의 고료 지급

- 1년 업무 수행 후 아이패드 미니 본인 소유 가능

- 보스톤코리아 닷컴 이용시 각종 혜택

지원방법: 간단한 자기소개와 학교 및 전공 연락처를 적어서
editor@bostonkorea.com으로 보내주세요.

문의: 617-792-6876

보청기가 필요 하십니까?

Dr. 문소라 (Alysia Moon, Au.D CCC-A)

hear here.

- board-certified audiologists
- all major hearing aid brands
- 30-day trial period
- up to 4-year warranty



MOON HEARING SERVICES

Moon Hearing Services
23 Warren Avenue, Suite 130 • Woburn
(located in the Choate Medical Center)
Call (781) 573-EARS (3277)



www.moonhearing.com



깨닫기는 가라

김화옥 (보스턴코리아 칼럼니스트)

젊은이에게 수염은 나이 들어 보이게 한다. 늙은이에게 수염은 나이를 햇갈리게 한다. 겉과 속이 다르다는 말이다. 현대 수염은 관리하기 여간 성가신게 아닐 게다. 돌보지 않는다면 지저분해질터. 기르느니 않으니만 못 할지 모르겠다. 수염기르는 것도 부지런해야 한다. 겉도 잘 가꿔야 한다.

대학에 진학해서 첫째 늦은 봄이다. 재수 하던 동창을 만났다. 단 두어달 남짓 동안 들었던 품나는 말을 전해 줘야 했다. 불타는 사명감이다.

‘사일구 의자가 미완성의 혁명 이란걸 아느냐. 그리고 그혁명은 아직 진행형이고.’

멀뚱 멀뚱. 미완성은 뭐고, 진행형은 뭔가?

미완성교향곡은 들어 보았다만, 진행형은 영문법에서 나오는 이야기 아냐? 그 친구 표정이 그랬다. 이 품위品位 있는 언어. 차원 높은 담론. 그날 난 완전히 중견 논객이요, 동경유학생이 되었다.

사일구가 내일 모레다. 신동엽 시인이다. 난 김수영시인인가 착각했더랬다.

깨닫기는 가라./사월(四月)도 알맹이만 남고/깨닫기는 가라.

깨닫기는 가라./동학년(東學年) 꿈나무의, 그 아우성만 살고/깨닫기는 가라.

.....

깨닫기는 가라./한라에서 백두까지/향그

려운 흙 가슴만 남고/그, 모오든 쇠붙이는 가라.

(신동엽, 깨닫기는 가라 중에서)

서울근교 산에 등산을 갔다. 이태전 한국을 방문했을 때다. 몇몇 동창들과 동행했다. 등산이라기보다 오히려 하이킹정도라기에 따라나섰다. 등산객이 오르고 내리는게 줄이 길고도 멀었다. 발디딜 틈이 없다는 표현은 과장인데, 산은 몹시 불뚫었다. 도대체 등산객이 왜이리도 많으냐고 내가 물었다. 대답은 한산했다. ‘할일들이 없어서.’ 토요일이었는데, 전철 안이건 전철역이건 모두 등산복 차림이다. 누구 말대로 등산복색이 모두 화려하고, 명품이며, 중장비로 갖췄다. 히말라

야를 등반하는 장비라 하더라. 그나마 셀과는 없으니 다행인지도 모른다.

그렇다고 불평하고, 나무랄 일은 아니다. 가벼운 등산이라해도 반드시 복장을 갖춰야 하기 때문일게다. 등산은 등산 일테고, 그계산에 대한 예의이고 등산의 기본일거라 우긴다. 골프에서도 야구에서도 복장을 갖추지 않던가. 그럼 등산하는데 등산화를 신지, 샌들을 끌고 가라? 산에 가는데, 등산복 입고 가지, 수영복입고 가라? 현대, 등산은 등산인데, 웬만한 산길은 모두 계단이더라. 흙을 밟기가 어려웠고 조심스러웠다.

깨닫기는 보내야 한다. 깨닫기는 벗겨야 한다. 호두나 도토리도 깨닫기를 벗겨야 먹는다. 하지만, 깨닫기도 중요하고 필요할 때가 있다. 형식이 내용을 좌우한다 했던가. 그건 틀리지 않은 말일 게다. 격식과 외양이 내용을 좌우하기도 하지 않던가. 말도 담는 그릇에 따라 다르다. 은근하고 점잖은 표현이 그 얼마나 받는 느낌이 다른지 알지 않나? 품위와 정곡을 찌르는 은근한 표현들 말이다. 그러니 깨닫기는 필요하다. 아주 가서는 안된다. 깨닫기를 아주 벗겨서는 안된다. 신동엽 시인에게 대드는건 아니다.

부활절이다. 깨닫기는 놓아두고, 알짜로 부활한 하늘에 감사하는 날이다. 한국에선 민초들이 저항했던 날이기도 하다.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누가 19:40)

영어를 배우세요!

전 세계 70 여개국 수백명의 학생들이 거쳐간 CSI 의 ESL 아카데미

인텐시브 영어 프로그램 & 아카데믹 영어 프로그램

ESL 아카데미에서 실시하는 인텐시브 영어와 아카데믹 영어 프로그램에서는 문화와 언어에 대해 집중적으로 배울 수 있습니다. 학생들에게 프로젝트와 실험, 견학과 다양한 사회적 행사 참여를 통해 언어와 미국문화를 함께 이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들은 학생들이 미국에서 전문적, 학문적, 사회적 기능을 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문화적 지식과 언어능력을 제공합니다.

ESL 아카데미에서 제공하는 여러가지

- J-1 비자를 포함한 F-1 비자로 변경
- 다른 학교로 이전 도와줌
- 해외에서 학생비자 취득 안내
- 공식적인 여름방학
- 여러 일정의 수업
- 기초영어부터 어드밴스 아카데미 영어까지 다양한 레벨



COMPUTER
SYSTEMS
INSTITUTE

지금 전화주세요 !

888-886-5740

esl.csinow.edu

Charlestown, MA • Worcester, MA
Chicago, IL • Skokie, IL • Lombard, IL

Computer Systems Institute is approved by the Division of Private Business and Vocational Schools of the Illinois Board of Higher Education and is authorized under federal law to enroll nonimmigrant alien students. Student visa and work authorization are issued to those who qualify. For more information about our graduation rates, the median debt of students who completed the programs, and other important information, visit our web site at: <http://www.csinow.edu/about-csi/consumer-information>. Program offering varies by campus. Tuition prices effective as of 3/17/14.

1년 학비 \$3,600!!





NAMU

꿈을 키우는 부동산
NaMuRealEstate.com

2001 Beacon Street, Ste. 101
Boston, MA 02135
info@NaMuRealEstate.com
617.858.NAMU (6268)

Commercial · Rental · Purchase · Sale · Residential · Rental · Purchase · Sale

NAMU REAL ESTATE은 모기지(mortgage)와
부동산 지식을 두루 갖춘 전문가들이 설립한 컨설팅 기업입니다.
고객님들의 주택 및 상업용 부동산 구매와
렌트에 필요한 일반적인 절차와 금융관련 정보를
쉽고 친절하게 제공하여 드립니다.
골치 아픈 부동산 매매를 믿고 맡겨 주십시오.
고객님의 부동산 자산과 함께 성장하는
나무 Real Estate이 되겠습니다.



형사법
상법/회사법
유언장/ 상속
민사법
부동산법

스티븐 김 변호사
보스톤 검사 경력
(Steven S. Kim)

617.879.9979
stevenkimlaw.com

The Law Office of Steven S. Kim

2001 Beacon Street, Suite 101,
Boston, MA 02135

Steven@stevenkimlaw.com

주택 구매용자, 재융자,
부채통합 용자
Conventional Loan / FHA Loan
/ Portfolio Loan

상업 구매용자,
재융자
Conventional Loan
/ SBA Loan

류 영욱

Young Uk Lew
NMLS#164694

Cell: 617.777.2929
Fax: 617.284.6196
ylew@indmortgage.com



**Independent
Mortgage**

*Boutique broker for individualized
residential & commercial loans*

경험과 신뢰를 자랑하는 보스톤의 모기지 박사

we arrange but do not make loans. The Commonwealth of Massachusetts,
Licensed by the Division of Bank and Loan Agencies, NMLS #641207



레드삭스가 살아나려면 공격이 살아야 한다

시즌 초반 어려움 겪는 레드삭스

(보스턴 = 보스턴코리아) 정성일 기자 = 보스턴 레드삭스가 주전들의 잇따른 부상과 악재가 겹치면서 시즌 초반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월드 시리즈 우승을 차지했던 작년 시즌과 비교해보면 레드삭스의 초반

성적은 초라하기만 하다. 지난 시즌 첫 14경기 동안 레드삭스는 10승 4패를 기록했다. 당시 연승 행진을 이어가던 레드삭스는 7연승을 달린 끝에 12승 4패로 좋은 출발을 보였다.

올해 첫 14경기 동안 레드삭스의 성

적은 5승 9패다. 특히 지난 주에 같은 지구 라이벌 팀인 뉴욕 양키스와의 4연전에서 3패를 당하며 레드삭스 팬들을 실망시켰다. 당연히 레드삭스는 아메리칸

리그 동부지구에 속한 5개 팀 중 최하위를 기록 중이다.

레드삭스의 시즌 초반 부진은 주전들의 부상이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우익수 웨인 빅토리노는 햄스트링 부상으로 아직 한 번도 경기에 모습을 드러낸 적이 없다. 3루수를 맡고 있는 월 미들브룩스는 4경기 출전 후 종아리 부상으로 부상자 명단에 올랐다. 미들브룩스는 이번 주말까지 복귀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레드삭스의 2루수이자 공격에서도 큰 몫을 담당하고 있는 더스틴 페드로이아는 팔목을 다쳤다. 검사 결과 다행히 부러지진 않았다고 하지만 팔목을 다친 이후 타격 감각이 급격히 떨어졌으며 최근 3경기에 결장했다.

레드삭스의 외야수 자니 곰즈는 지난 13일 인터뷰에서 “현재 여러 포지션에서 많은 이동이 있다”며 “왼쪽을 보면 거기에 누군가가 있고, 오른쪽을 보면 거기에 누군가가 있다. 그리고 다음 날이 되면 다른 사람이 있다”고 말했다.

레드삭스의 존 패럴 감독 역시 지금 상황이 답답할 것이다. 패럴 감독은 지난 13경기에서 같은 타순을 사용한 적

이 단 2번밖에 없다. 리드오프 타자는 4명을 사용하고 있다. 극심한 공격력 저하로 9경기에서 4점 이하의 득점을 올렸고, 2점 이하로 경기를 마친 적이 5번이다.

지난 시즌 리그 최고의 득점을 올렸던 레드삭스의 현재 모습이다. 레드삭스는 현재 득점권에 주자가 있을 때의 타율이 .204에 불과하다.

새로 레드삭스에 합류한 포수 에이제이 피어진스키는 10타수 1안타를 기록 중이고, 잰더 보거츠는 11타수 무안타다. 보거츠는 13경기 동안 한 번도 득점을 올린 적이 없다. 페드로이아 역시 타점이 1점밖에 없다.

지난 시즌 .385라는 높은 출루율을 기록하여 재커비 엘스버리의 빈 자리를 메꿀 수 있을 것이라 기대했던 다니엘 나바는 최악의 슬럼프를 겪고 있다. .43타수 6안타를 기록 중인 나바는 현재 출루율이 .229이다.

그나마 긍정적인 부분이 있다면 투수진은 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이다. 레드삭스의 선발 투수들은 첫 13경기 동안 9경기에서 퀄리티 스타트를 기록했다. 이는 69%의 퀄리티 스타트로 리그에서 3번째로 높다.

불펜 역시 탄탄한 면모를 보이고 있다. 레드삭스의 불펜은 이전 투수가 남겨 놓은 17명의 득점권 주자에게 단 2점만을 허용했다. 게다가 코지 우에하라, 주니치 타자와, 크리스 카푸아노는 모두 평균 자책점이 0이다.

jsi@bostonkorea.com

화랑도(花郎徒)와 성(性) 그리고 태권도(跆拳道) 31 조선시대의 병서와 무에서

박선우 (박선우태권도장 관장)

이번에는 조선시대 무에서 문헌적으로 무예의 꽃을 가장 아름답게 피웠던 정조시대 전후의 역사를 따라가 본다. 시대의 변천에 따라서 조선시대 후기로 오면 무예의 용어에서 ‘택견(태권)’과 ‘각희(脚戲)’를 점점 더 접하게 된다. 즉 병술이나 호신을 위하여 수련하던 무예나 무회가 발달되고 기술의 다양화가 나타남을 볼 수 있다. 즉 수박이란 무예가 택견으로 불리면서 ‘수박’은 손기술 위주의 동작이나 형태를 의미하게 되고 ‘각희’는 발기술 위주의 동작이나 형태를 의미함을 보게 된다. 즉 발동작의 기술이 다양하게 사용되고 향상됨이 발견된다. 일례로 ‘무예제보번역속집武藝諸譜翻譯續集’에 보면 일본의 왜검법(원명은 검제劍制이다) 편에 일본의 칼기술에다 일본에는 없는(일본 검도에는 발기술이 없으며 과거에도 없었던 것으로 추정한다) 발기술을 더하여 실전에 응용할 수 있었음을 보여준다. 또한 중국에서 나온 용어인 ‘권법’이라는 단어도 등장한다. 특히 ‘무예도보통지’에는 권법을 24반 무예 중의 한 반으로 하여 자세하게 나와 있다. 고려시대 이전의 병법이나 전술 등은 일반 사서를 통하여 전할 뿐 별도로 남아 전하는 책이 없다. ‘아직까지는 발견되지

않았다’는 표현이 더 정확하다. 왜냐하면 불과 20년 전까지는 ‘무예도보통지武藝圖譜通志’가 우리나라에서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무에서였지만, 1993년, 선조 31년(1598년)에 편찬된 ‘무예제보武藝諸譜’의 존재가 확인되면서 무예도보통지는 그만 최고最古의 자리를 내주어야만 했다. 이는 무예사나 체육학 뿐만 아니라 서지학書紙學계에도 큰 반향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 역사속에서 가장 오래된 병서는 무오병법武烏兵法과 화령도花鈴圖이다. 신라시대 원성왕 때의 대사 무오가 병법 15권과 화령도 2권을 바치므로 이내 굴압 현령에 제수되었다는 기록이 있다. 그리고 고려 정종때 김해병서金海兵書(금해병서로 읽기도 한다)는 지방 수령으로 나가는 병마사가 왕에게 청하기를 “김해병서는 전쟁에서 없어서는 안될 요결要訣이니 변방의 요새에 각각 한 권씩 하사소서.” 하여 왕이 허락했다고 고려사에 기록되어 있다. 이 김해병서는 고구려의 연개소문이 지었다고 하며, 현재 이 책은 전하지 않는다. 김해는 연개소문의 자字이며 연개소문이 이 책으로 당나라의 명장 이정李靖을 가르쳤다고 한다. 그리고 이정은 훗날 저술한 ‘이위공병법李衛公兵法’에 이 사실

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나중에 송나라 사람들이 이를 수치스럽게 여겨 원본을 없애고 개정판을 발간하면서 연개소문에 관한 것은 모두 삭제했다고 전해진다. 이위공병법은 중국의 무경칠서武經七書(즉 손자병법, 오자병법, 사마법, 율료자, 육도, 삼략, 이위공병법) 중 하나로 꼽히는 불후의 명병법서이다. 무예도보통지에서도 상기의 무오병법과 김해병서가 뛰어난 병서이지만 전해지지 않아 상고할 길이 없다고 아쉬워했다. 또 같은 책에 보면 세조가 “신숙주에게 명하여 ‘무경칠서’의 주를 달고 해설케 하도록 하였다.”라는 기록이 나온다. 즉 상기의 병서들은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많은 영향을 끼친 책들임에 틀림이 없다. 다만 김해병서에 관하여 의문이 가는 것은 지방의 변방까지 각 한 권씩 하사하였다면 꽤 많은 필사본이나 활자본이 전해질 수도 있을텐데 정조시대에도 없었으며 현재도 역시 없다. 또한 “1462년(세조 8년) 10월에 병서를 3등급으로 정하도록 명하였다. ‘병요兵要’, ‘무경칠서’, ‘병장도설兵將圖說’을 일등급으로 하고, ‘진법’과 ‘병정兵政’을 이등급으로 하고…”라고 기록되어 있다. 여기서 병요는 단종 때 수양대군이 편찬한 책이고, 현존하는 병

장도설은 문종때 임금의 명으로 수양대군이 ‘진법’으로 편찬하여 수양대군이 서문을 쓰고, 수양대군이 왕위에 오른 해인 1455년에 한계희의 발문跋文과 1492년(성종23년)에 간행하면서 쓴 홍귀달의 발문이 추가되어 있다. 그리고 1742년(영조18년)에 책명을 ‘병장도설’로 바꾸어 복간하였다. 이 병서는 ‘광묘소찬병장도설임술증간光廟所纂兵將圖說壬戌重刊’이라는 표제지와 영조가 친히 찬撰(지은)한 ‘어제병장도설후서御製兵將圖說後序’를 첨가하고 진법서라고 한 수양대군의 서문을 ‘광묘어제진법서光廟御製陳法序’라고 고친 이외에는 ‘진법’의 내용과 같은데 책명을 바꾸었다. 그 이유가 명확하지 않다. 개명이 된 책이라서 그런지 무예도보통지에는 ‘병장도설’로 기록되어 있다. 현재 이 병서는 국립중앙도서관과 규장각에 각각 한 권씩 소장되어 있다. 이 등급으로 분류된 진법은 태종 때나 세종 때 찬술한 진설陳說인지 아니면 진법의 가장 시조로 인정받는 고려시대의 이제현의 진법인지 명확하지가 않다. 현재 전해지는 우리나라의 병서는 거의 모두 조선시대에 편찬된 서적들이다. 조선시대 초기에는 많은 병서들이 출간되었다. 문종때 편찬된 ‘동국병감東國兵鑑’은 김종서의 주도하에 고조선부터 고려말까지의 전쟁사를 기록한 책이며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병서 중의 하나이다. 조선의 병제와 무제武諸는 세조 때 갖추어지기 시작하여 효종 때 차츰 성해지다가 정조 때 꽃을 피워 열매를 맺었다.

Mu Han

TOTAL MARTIAL ARTS, INC.

무한무도회



“To be the best of the best...”



ART SKILLS

World Taekwondo Federation
Korea Professional Taekwondo Federation
Korea Jing Wu Kung Fu Association
Korea Kyeok Too Ki Association
Korea Hapkido Association

LOCATIONS

Attleboro Mu Han Total Martial Arts

23 N.main St. Attleboro MA 02703
Ph) 508-226-0707, 508-226-0808

Franklin Mu Han Total Martial Arts

456 W.Central St. Franklin MA 02038
Ph)508-528-7772, Fax) 508-528-7797

Taunton Mu Han Total Martial Arts

147 Broadway Ave. Rte 138. Taunton MA 02780
Ph) 508-880-9200



TUSA Cup 2013

Facebook <https://www.facebook.com/MuHanMartialArts?rf=115870451838012>
U tube <https://www.youtube.com/user/MHtotalmartialarts>
Web site www.muhanmartialarts.com / www.franklinmartialart.com

Grand Master Kang

- 2011 – Pan-America Kukkiwon Grandmasters' Federation Executive Office
- 2010 – Korea Taekwondo Association(KTA)in USA, Secretary General
- 2007 – KTAin USA, Northeastern Regional Vice President
- 2006 – NEKTA (New England Korea Taekwondo Association) President
- 2006-2011 – Korean Taekwondo Association in USA Referee Chairman
- 2009 – Mu Han Martial Arts Director of Discipline
- 2008 – Hanmdang, International Referee (Kukkiwon, World TKD Academy)
- 2008 – TKD Hanmadang, Ambassador in U.S.A.
- 2007 – Greater Massachusetts State Taekwondo Association President
- 2007 – N.E.TaeKwonDo Association, President
- 2006 – TaeKwonDo 7th Degree Black belt (Kukkiwon)
- 2005 - U.S.T.L.U. New Hampshire State President
- 2004 – State of Georgia, Deputy Marshal
- 2004 – U.S.T.W New Hampshire State President
- 2003 – World Taekwondo Federation International Referee
- 2003 – USTU Referee of the Year
- 2002 – Featured Cover Story, Taekwondo Times Magazine
- 2001 – Korean Sports Council in USA, Taekwondo Team Director, Boston
- 1999 – Korean Sports Council in USA, Taekwondo Team Head Coach, New England
- 1991 – Kyuk Too Ki (Korean kick boxing) Master Certified
- 1991 – Kyuk Too Ki (Korean kick boxing) International Referee
- 1993 – Minister of Physical Education, Kyuk Too Ki Instructor's License
- 1990 – Director, Minister of Physical Education, Taekwondo Instructor's License
- 1989 – Master Instructor Certified by Kukkiwon



Master Oh

- 2002 Founded Mu Han Total Martial Arts
- 1999 Demonstrated in Canada and US
- 1998 1st International Team Pro Taekwondo in Korea
- 1997 Head Instructor in Pro Taekwondo Federation in Korea
- 1997 Taught Special Force 707 & Korea West Point
- 1992 1st Place -75kg Wu Shu Sparring Division in Seoul, Korea
- 1st Place Wu Shu Southern First Division in Seoul, Korea
- 1st Place Wu Shu Spear Division in Seoul, Korea
- 8th Degree Black Belt in Korean Professional Taekwondo
- 6th Degree Black Belt in Jeong Mu Kung-Fu
- Korea Taekwondo Association in USA International Office Chairman

Master Lee

- 2009 Mu Han Martial Arts Instructor
- 20 Years teaching experienced
- Taekwondo 5th Degree Black Belt(Kukkiwon)
- Demonstration in Europe
- Teacher Certification in Korea
- Certification for Convoy

공식협력업체 :

보스톤 정관장
대한민국 홍삼의 힘!
문의 전화 781-238-0303

NEWSTAR Realty of Boston
Vice President Kwang O Kim / 김광오
Direct: 617-792-8615

보스톤 한국콜택시
Boston Hankuk Jonghap Service, LLC

- 공항 픽업/관광 ● 소형 이삿짐/카지노
- 미니밴/승용차 ● 쇼핑물(아울렛 물)

617.461.9270

한인업소록

Korean Business Directory

이민법 전문 변호사



스티브 서

비자 / 영주권
투자이민/취업이민
Lawcity7@gmail.com

www.Stevesuh.com

617-877-3435

Vol 10. No.16 April 18 2014

발행처 : The Boston Korea

한인들과 함께하는 좋은 신문 Bostonkorean@hotmail.com

161 Harvard Avenue, Suite 13, Allston, MA 02134 전화: 617-254-4654, 광고문의 전화: 617-775-8474

한진택배
HANJIN EXPRESS
보스톤 대리점

Tel 617.782.2424
175 Harvard Ave St14A, Allston, MA

정성 담아 직접 만든 반지 세상 하나뿐인 '내 마음'

아토 주얼리 공방

업소탐방 237

아토 주얼리 공방

86 Joy street Somerville 02143
978-886-5145, atoforyou@gmail.com

선 가든 힐링센터

지 압
침
기치료

617.953.4988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김현 천 기자 = 특별한 사람에게 나만의 마음을 전하고 싶다면, '아토 주얼리 공방(대표 겸 강사 한혜원)'을 찾아 좋은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다.

금속공예 전문 강사가 자신만의 이름이나 이니셜을 새겨 반지를 만들 수 있도록 지도한다. 하루 3시간 정도만 할애하면 마음을 담은 멋진 은반지를 만들 수 있다. 커플링도 가능하다. 공방은 서머빌 조이 스트리트에 위치해 있는 아트 스튜디오 한 칸에 있어 예술적인 분위기가 물씬 나는 곳이다.

"내 손으로 무언가 아름답고 의미 있는 것을 만드는 기쁜 일"이라고 말하는 아토 공방의 한혜원 강사는 보스톤 한인사회에 공방이 없는 것을 알고 한인들에게 새로운 기쁨을 선물하고

자 최근 공방을 열었다.

한 강사는 매사추세츠 아트 스쿨에서 파인 아트 주얼리를 전공한 후 미국 공방에서 보조 강사로 일하다가, 주얼리 만드는 재미를 한인들과 나누고 싶어 이 일을 결심했다.

공방의 이름 '아토'는 순 우리말로 '선물'이라는 뜻. 많은 사람이 듣고 쉽게 기억할 수 있어서 더 좋다.

아토 공방에서는 반지 워크숍을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에 연다. 매주 토요일 10시~1시, 토요일 3시~6, 일요일 10시~1시 중 택해 연령에 상관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작업실이 아담한 크기이기 때문에 한 수업당 5명이 정원이다.

친구와 우정을 기념하는 반지를 만

들어도 좋고, 연인과 커플링을 만들어 교환해도 특별한 기념이 될 수 있다. 가족이 다함께 만들어 교환해 보는 것은 또 어떨까?

학창 시절 만들기를 좋아했던 한 인이나, 미술엔 별로 관심없지만 긴 겨울을 지내고난 후 무언가 새로운 걸 해보고 싶은 한인들 모두에게 즐거운 시간이 될 법하다.

더구나 색다른 아이템을 찾는 경우라면 더욱 강추. 돈을 많이 들여 비싼 것을 살 수는 있지만, 정성을 고스란히 넣어 직접 만든 반지는 세상에 하나뿐인 '내 마음'이기에 그렇다. 비용은 재료비 포함 70\$.

한 강사는 "반지 워크숍을 하면 금속공예에 필요한 기본을 배우는 것"이라며 "한번 경험해 본 후 금속공

예를 취미로 배워보고자 한다면 다른 아이템들도 만들 수 있도록 수업을 진행해 나갈 것"이라 밝혔다.

"내 손에서 무언가를 탄생 시키는 재미와 기쁨을 많은 사람들과 공유하고 싶다"는 한 강사는 "차차 공방을 확장, 발전시켜 나가면서 아토 이름을 걸고 주얼리를 만들어 미국 시장에 보급하고 싶다"는 바람을 표했다.

hckim@bostonkorea.com



“주님의 사랑으로 모든 이들을 환영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살아 숨쉬는 한 가족 같은 사랑공동체에서 참 기쁨과 평화, 영원한 생명을 함께 누리시겠습니까?

주일예배: 오후 12:30 담임목사: 최 형 락

보스톤 사랑의교회
www.bostonlovechurch.com
1 Church St., Wakefield, MA 01880 (978)869-2596

장 음식 주문

- 김밥 및 떡 전문
- 생일잔치, 교회모임
- 돌, 회갑, 계모임 음식
- 대학교 파티, 결혼식
- 저렴한 가격
- 맛있고 풍부한 음식

Tel: 781-648-0584

보스톤 봉사회

의료보험안내
무료세금보고

508-740-9188

보스톤코리아 업소탐방

신청 방법:
전화번호 617-254-4654
bostonkorean@hotmail.com

코리아 여행사

617.267.7777
1.800.473.1922

오리엔트 여행사
Orient Travel

781.665.0004

145 Main st Melrose, Ma 02176
theorienttravel@yahoo.com

CHOISIGNS & DESIGN

LED Sign, Channel Letter, Truck Lettering, Banner, Poster, Window Letter, Car Sign, Lighted Box, All Types of Signs.

간판 및 사인

617.470.1083
e-mail choisigns@yahoo.com

▶광고 마감 : 매주 화요일 오후 5시 (신문) ▶수표 보내주실 곳 : Payable to: The Boston Korea 161 Harvard Ave, Suite 13 Allston, MA 02134

알뜰 나눔터 안내

보스톤코리아는 2013년 5월 1일부터 새로운 알림광고 요금정책을 적용합니다. 보스톤 코리아 네이션 와이드 광고를 선택하시면 LA, 애틀란타, 뉴욕, 시카고, 애틀란타, 달라스, 시애틀 및 보스톤까지 총 미주 8개 지역의 오프라인 신문을 통해 광고를 동시에 내보내도록 합니다. 네이션 와이드의 광고는 총 5줄까지 가능하며 한 달 광고료는 \$50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N**은 보스톤 지역 외 네이션 와이드 광고임을 알려 드립니다. 만약 보스톤 지역 광고만을 원하실 경우 한 달에 \$30입니다. 결제는 그레딧카드로 하실 수 있으며 개인수표 또는 머니 오더 등을 보내주셔도 됩니다. 신문 광고 마감은 매주 화요일 오후 5시입니다. 보스톤코리아닷컴 광고는 신청 당일 업데이트 가능합니다..

사업의 시작은
이경해 부동산

Tel 800.867.9000
Cell 508.962.2689
email: kayleebrokers@aol.com
www.leebrokers.biz



구인

광고 문의 617-254-4654

뉴튼 네일살롱에서
직원 모집합니다

초보자, 기술자, 중간 기술자, 환영

자격증 소지 하신분, 또는 취득 가능 하신분

{저희 가게는 뉴튼에 위치하고 있으며 네일 살롱중 가장 단골고객을 많이 보유하고있는 6년차 가게 입니다.

주 7일간 오픈하며 풀타임에 한해선 (휴가, 및 공휴일) 페이도해드립니다.(파트타임 토 일 하실분 환영)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전화 주시길 바랍니다

617-678-4780/ 617-559-9953

주방 쿡/주방보조 구함

주방 쿡(중식경험자)/
주방 보조(초보가능)
풀, 파트 타임 구합니다
(603)889.0055
(문의 3시 이후)

시민권자 남성이 결혼할 여성을 찾습니다. (영주권 서포트 가능)
T. 857-266-6913

월임 스시 박스 스시헬퍼(풀타임)
웨이츄레스(파트타임) 구합니다.
T. 781-894-9783

옷수선 전문 (픽업&드랍 가능)
수선 맡기실 세탁소 찾습니다.
T. 617-309-0276
junetailor39@gmail.com

We Buy Car

We buy used cars for top money even though they have high mil-iages and problems. Please call Sam at 508-725-8888. Speak English.

T: 508-725-8888

4989 부동산매매는

뉴스타부동산

617-969-사구팔구

www.newstarrealty.com



사고 팔고

광고 문의 617-254-4654

Boston HTPC

데스크탑, 랩탑PC 수리
맥북, 아이맥 수리 및 윈도우설치
각종 데이터 복구 및 백업
인터넷 연결 및 공유기 설치
TEL 617-645-8885

세탁소+드랍오프 스토어 매매
코네티컷 하트포트 지역
주인 은퇴 관계로 매매
T. 860-604-9295



룸렌트 및
매매

광고 문의 617-254-4654

렉싱턴 룸렌트, 즉시 입주 가능
원룸 \$800/2룸 \$1,600 H Mart 5분거리
T. 978-495-2010

스톤햄 룸렌트 \$700
T. 781-520-0322

N[매 매]

미용실 매매.
거의 2000sq.ft.에 달하는 넓은 실내.
4년동안 꾸준한 단골고객 확보로 안정적 수익.
안전하고 깨끗하며 아름다운 지역.
내쉬빌 테네시 지역.
전화문의 주시면 실내 사진과 웹사이트 주소 알려 드리겠습니다.
T. 931-624-1855

N[매 매] 가게 - 1

그린빌 사우스 케롤라이나에 위치한 2개의 핸드폰 가게를 매매 합니다.
가게 1 \$49,000(인벤토리 포함)
Multi carrier (pageplus,tmobile,gos-mart,h2o)에 boost 딜러쉽 있습니다.
트레이닝 가능.
매상 월 \$14000, 순수익 월 \$3000
랜트 월 \$1000
T. 864-505-5784 (Kim)

N[매 매] 가게 - 2

가게 2. \$49,000.(인벤토리 포함)
Multi carrier (pageplus,tmobile,gos-mart,h2o)에 Boost 딜러쉽 있습니다.
매상 월 \$13000, 순수익 월 \$3000
랜트 월 \$500
새주인에게 verizon,sprint,metro,cricket의 LTE 전화기를 pageplus 로 플래싱 하는 기술도 같이 전수해 드립니다.
T. 864-505-5784 (Kim)

N드랍 앤 테일러 샵 매매

처음 비즈니스를 도전하시는 분에게 적합하고 부담없는 장소 (MA)
모든 시설 브랜 뉴
풍부한 파킹랏, 저렴한 렌트
T. 978-761-0897

N[매 매]

애틀랜타,조지아 지역(좋은장소,좋은비지니스,좋은가격)
일본인이 운영하는 식품점입니다.
주인 은퇴관계로 식품점을 매매하고자 합니다.
그로서리를 인수하실 경우 1개월 동안 경영하는 모든 트레이닝 해드립니다.
T. 770-933-8808, 770-933-0848

N[매 매]

- 뷰티 서플라이 가게 매매.
- 지난23년간 꾸준히 성장하며
성업중인 비전있는 비즈니스.
- 많은 단골고객 확보 및 시장형성.
- 아주 좋은 로케이션.
- Sunday closed/평일7:30Pm closed.
- 약간의 오퍼 파이넌싱 가능.
T. 678-457-8054

N[매 매]

일식당 매매.
플로리다 지역.
더 상세한 정보는 웹사이트 참조.
www.rr4sale.com
T. 321-806-8922



서울설령탕

자식이 아프거나 허약할 때
미국 어머니들이 치킨 수프를 끓여주시듯,
당신의 몸과 마음을 따뜻하게 데워주는
좋은 설령탕 (Beef Soup)을 만들겠습니다.



1245 Commonwealth Avenue, Allston
617-505-6771

설령탕 갈비탕 육개장 도가니탕
수육 족발 보쌈
삼겹살구이 돼지갈비구이 양념갈비구이

한인 업소록

Korean Business Directory

긴급 주요 전화

가정폭력상담소(Fx 33)	617-338-2352
견인	800-632-8075
고등교육위원회	617-727-7785
고등교육정보센터	800-442-1171
공중위생국	617-624-6000
구세군	617-536-7469
국세청	800-829-1040
날씨문의	617-976-6200
로간국제공항	800-235-6426
미아찾기	888-477-6721
베베이역	617-345-7958
보스턴공립학교	617-635-9000
보스턴수도	617-989-7000
보스턴시청	617-635-4500
보스턴총영사관	617-641-2830
사우스익	617-345-7958
사회보장국	800-772-1213
성폭행	781-237-9110
성폭행	617-492-8300
시간문의	617-637-123
아동보호	617-748-2000
아동학대	800-792-5200
알고콜/마약	617-445-1500
여성학대	617-248-0922
온전면허	617-351-4500
펠러버	617-348-8500
자원봉사	800-522-8086
적십자	800-564-1234
전화신청 (Verizon)	800-941-9900
전화교장선고(Verizon)	617-555-1515
택시	617-343-4475
AAA	800-222-4357
FBI	617-741-5533
MBTA	800-392-6100
NSTAR가스	800-572-9300
NSTAR 전기	800-592-2000
RCN케이블TV/전화	800-746-4726

한인회

뉴잉글랜드 한인회	781-933-8822
뉴햄프셔 한인회	603-767-1356
로드아일랜드 한인회	401-368-0467
메사주세초대권도협회	207-756-0092
버몬트 한인회	802-734-2521

주요 단체

국립대한장로교총회	978-407-7554
국립대한장로교연합회	603-889-8201
뉴잉글랜드골프협회	617-438-9763
뉴잉글랜드공군전우회	978-902-8305
NE교역자협의회	978-394-3060
뉴잉글랜드문인협회	978-688-3137
뉴잉글랜드 신학회	978-270-1948
뉴잉글랜드시민협회	508-962-2689
뉴잉글랜드교회협의회	978-394-3060
뉴잉글랜드해병대전우회	617-833-1360
대행사주세초대권도협회	603-894-5425
민주평통보통협의회	413-535-0916
보스톤 대한체육회	781-326-9009
보스톤산악회	978-569-3256
보스톤한미 노인회	978-994-5490
재미교과기술회	857-998-7043
재향군인회	339-298-7187
세탁인협회	508-826-5270
이탈리아도문인협회	617-814-3399
한인학교교동협회	781-424-5269
F한인경제인협회	401-481-4900
한인문화인협회(메인)	207-878-5652
625참정유공자회	978-725-9597
보스톤 한미예술협회	781-367-5993

동창 향우 동호회

건국대학교동창회	401-738-8735
경기고등학교동창회	508-995-7242
경기여고동창회	781-861-0437
경복고동창회	617-921-8799
고려대학교 교우회	617-795-1779
뉴잉글랜드 신학회	774-270-1948
배재고등학교동창회	978-474-4780
보스턴 신학회	978-569-3256
보스턴한인사회관	617-789-4964
산사람	774-270-1948
서경대동문회	978-314-9620
서울고 동문회	617-792-2635
서울대학교동창회	978-821-9434
서울신학대학교동창회	
성균관대동창회	802-734-2521
영성중고등학교동창회	508-541-6969
이화여고동창회	617-277-0730
이화여대동창회	978-390-1552
중앙대학교동창회	603-622-8883
강원도민회	617-875-1801
충청향우회	678-717-8800
한양대동문회	508-455-1490

언론

보스톤코리아	617-254-4654
한인일보	781-933-8822
중앙일보(뉴욕)	718-361-7700
한국일보(뉴욕)	718-482-1111
Grapevine Times	781-548-9945

종교

기독교	
구세군 물든교회	617-792-8780
그린랜드 연합 감리교회	603-430-2929
글로벌 미션 보스톤교회	617-913-3074
나사렛사립교회	781-439-1840

뉴잉글랜드감리교회	617-969-0507
뉴튼 아름다운 교회	617-869-8159
갈보리교회	413-789-9888
구세군물든교회	617-792-8780
그레이스연합감리교회	203-459-8517
그리니치한인교회	203-861-1134
그린랜드연합감리교회	603-430-2929
나사렛사립교회	781-439-1840
내슈아한마음교회	603-888-8040
뉴잉글랜드감리교회	617-969-0507
뉴잉글랜드한미교회	413-567-9142
뉴튼 아름다운 교회	617-869-8159
뉴햄프셔장로교회	603-437-5134
뉴햄프셔한인교회	603-264-6799
라이코스교회	978-387-1115
라이스한인침례교회	508-926-8236
로드아일랜드장로교회	401-351-2347
로드아일랜드제일교회	401-944-0520
R생명의길장로교회	401-821-2311
메리 맥 교회	978-806-1363
목양교회	617-223-1690
무지개교회	207-774-1617
말할한인교회	978-244-0691
렉싱턴 동성교회	617-953-0856
버클랜드 침례교회	617-864-5948
보스턴 국제교회	617-459-6479
보스턴 감리교회	781-393-0004
보스턴 사랑교회	978-869-2596
보스턴 사랑제일교회	978-844-2404
보스턴 산성교회	617-997-6165
보스턴 새롭교회	617-947-6765
보스턴 새생명교회	978-777-1800
보스턴 생명의 교회	978-578-6987
보스턴서부장로교회	781-894-3958
보스턴 성결교회	781-275-8233
보스턴 성령교회	781-396-1004
보스턴 소망교회	
보스턴시온성교회	978-758-4541
보스턴산성교회	781-279-3270
보스턴 온누리교회	781-933-7044
보스턴웨슬레감리교회	781-393-0004
보스턴 장로교회	508-435-4579
보스턴 제일교회	617-458-2733
보스턴 주님의교회	617-966-9608
보스턴 중앙교회	617-230-5004
보스턴빌그림교회	857-636-9985
보스턴 한인교회	617-739-2663
보스턴 한우리교회	978-454-0454
보스턴한인연합교회	977-923-9581
북부보스턴감리교회	978-470-0621
비전교회	617-308-2391
새빛교회	781-652-0001
새우루살렘교회	774-249-0022
선한목자장로교회	904-400-9386
성요한 교회	781-861-7799
순복음 보스톤교회	617-413-5372
스프링필드한인장로교회	413-789-4522
스프링필드제일교회	781-781-2477
시온감리교회	401-739-8439
아름다운교회	617-869-8159
안디옥 교회	978-534-3394
열방교회	617-620-3352
에이여 베렐교회	978-274-2369
엘리스트 한인장로교회	413-549-6495
엘리스트 시온교회	413-549-9200
우스터 교회	508-799-4488
워싱턴루터어 교회	978-876-2815
임마누엘 연합교회	978-394-3060
자연교회	603-437-6151
좋은땅교회	978-930-6613
지구촌방주교회	434-382-9450
케임브리지한인교회	617-491-1474
퀸시영성장로교회	781-861-3877
하바드 한인선교회	617-770-2755
617-441-5211	

불교	
문수사	781-224-0670
서운사	508-755-0212
심광사	617-787-1506
원불교	
원불교보스톤성당	617-666-1121

천주교

보스톤 한인천주교회	617-558-2711
로드아일랜드한인천주교회	401-499-8258

간판

조이스간판	617-470-1083
-------	--------------

건강식품

보스톤 정관장 브랜드스토어	781-238-0303
----------------	--------------

건축

글로벌건축	617-645-6146
김원태 건축사	617-620-8242
미남건축	508-650-8844
선아건축	508-230-5878
솔로몬 DRYWALL	978-761-0623
신건축 루팡사이드 청문	617-999-9616
이늘드 건축	617-833-1360
파인항건축	617-688-6833
한센(南)	781-487-0101
ECO Construction	781-608-2971
E/Y 건축	617-590-3472
J.C건축	781-738-7871
J&D 인테리어	617-645-6661
LEE'S건축	617-538-0558

골프 개인

골프레스	617-458-2733
골프스쿨	617-775-5527

남궁연골프교실	978-474-4780
ABC골프	603-401-7990
최현주 골프 레슨	339-223-4700

공인 회계사

김양일 회계사	617-901-0707
김창근 세무사	781-935-4620
노성일공인회계사	781-863-2232
이현주 회계사	781-944-2442
이명원 회계사	617-455-8073
정진수회계사	508-584-5860
한미선회계사	617-792-2355
한성애회계사	617-283-7151

꽃

미스틱화원	617-666-3116
데코플라워	617-875-0648
앤더슨꽃집	781-894-1843

금융/모기지

인디펜던트(류영욱)	617-777-2929
이미지 리	781-591-2722
이중수파이낸스	617-799-6158

냉동/에어콘/히팅

JK 플러밍	978-303-7000
Nirvana Air	508-473-3429

노래방

도레미노래방	617-783-8900
진 노래방	617-782-9282

도서관

뉴햄프셔한인도서관	603-644-1991
보스턴점독서도서관	617-539-5400

당구장

울스트링당구장	617-782-0969
---------	--------------

동물병원

김문소 동물병원	978-851-3626
윤상재 동물병원	978-343-3049
제인스킨 동물병원	978-658-5282

떡/잔치/반찬

형제떡집	978-975-3303
장음식주문	781-648-0584
한아름	617-547-8723

미용실	
가위소리	617-782-8111
그레이스스킨케어	978-468-0039
그레이스커팅클럽	617-331-1011
단오 헤어샬롱	617-206-4560
뷰티룩 헤어샬롱	857-284-3879
세리 미용실	617-676-7374
압구정동얼굴방	617-437-0378
웨스트메인헤어	508-734-0446
타케이 헤어디자인	508-768-7675
프로페셔널헤어디자인	978-772-7886
헤어 스킨	617-787-1735
헤어 센스	617-773-1220
헤어 Collage	617-354-4660
미용실 코리아LEE	617-913-3559
AYER BEAUTY SALON	978-772-6555
최지희헤어스타일	617-818-5596

돌상 대여

해피돌상	617-583-2339
------	--------------

방송국

엔티비보스톤사영국	617-650-6656
한국디지털위성	617-567-1346

변호사

김공식특허변호사/변리사	617-239-0839
김성국 변호사	781-438-6170
김성희 변호사	617-884-0002
김연진변호사	617-742-7707
김연진변호사	617-742-7707
박현중특허변호사	978-474-8880
성기주변호사	617-504-0609
스티브 서 변호사(이민법)	203-852-9800
워드랜드/엑스맨변호사	203-324-6155
장우석 변호사	781-712-1706
정선진변호사	617-230-0005
피터변호사	203-386-0503
JOHN DOWNEY 법률사무소	647-964-5809
STEVEN S. KIM 변호사	617-879-9979
Joy Lee 변호사	617-624-0292
Young Lee Danesh	617-367-4949

병원

가정의 그레이스 김 가정의	978-475-5656
내과	
송민근	617-696-7600
하버드캠퍼스(0차용)	617-421-2282
한서동내과	401-722-0305
신부인과	
최의웅신부인과	401-726-0600
이윤노신부인과	508-427-3000
소아과	
장경이 소아과	978-687-2119
심리상담	

배주은신경정신과	617-566-1055
심리상담	
양미아웨일리카운셀링	508-728-0832
인나정심리상담소	617-738-9622
재활의학	
가족물리치료병원	781-365-1876
덕타스통증병원	617-731-1004
성진우척추신경전문	978-688-6999
주 남남 D.C.	617-230-4250

치과	
김동원치과	978-689-9363
김정규 치과	860-623-2601
브라이언윤치과	978-655-1583
신영목 치과	617-265-5606
안 치과	781-647-8000
엑셀퍼미탈덴탈	617-471-6970
이영환치과	508-987-8228
이요셉치과	781-431-7295
케임브리지덴탈	617-492-8210
케임브리지덴탈	617-871-1482
퀸지스치과	617-471-2184
퍼스트초이스덴탈그룹	781-273-2233
프로스펙트덴탈그룹	617-576-5300
한은애고정치과	781-894-1127
아이콘덴탈	781-861-8978
ASHLAND FAMILY DENTAL	508-881-7272
장승혁보철임플란트	978-499-1470
전문치과	401-729-2711

기타

메모리얼병원(병리)	203-330-8080
------------	--------------

보석

국제보석상	617-523-2553
메타판보석	617-298-6661
우리보석	781-272-2400

보험

고영복(메트라이프)보험	978-646-3042
스티브(남술)금융생명	617-538-7851
이윤환 보험	781-325-3406
조종은 종합보험	781-255-1134
베스트초이스한인종합보험	617-782-8800

비디오

나비스(촬영/편집)	617-756-5744
------------	--------------

부동산

가나안부동산(손득한)	617-290-0623
김종희부동산	978-866-7789
김현구부동산	617-694-0985
김현정부동산	617-388-8527
백영주부동산(뉴스타)	978-239-0141
송기백부동산	781-510-9924
송현미부동산	617-835-7664
순옥주부동산	508-737-8636
신현철부동산	617-947-6293
에이블부동산(채해경)	617-868-22

한주간



시청률 순위

2014년 4월 4일 ~ 4월 13일

한주간 시청률 순위 10

01 200%	악동뮤지션
02 봄 사랑 벚꽃 말고	HIGH4,아이유
03 인연	윤민수,신용재
04 야생화	박효신
05 Give Love	악동뮤지션
06 얼음들	악동뮤지션
07 Mr.Chu(On Stage)	Apink
08 견딜만해	매드클라운
09 씬	소유
10 그런 남자	Bro

1위
KBS1 일일드라마
사랑은 노래를 타고
27.7%



2위 MBC 월화특별기획 기항후 24.9%



3위 KBS2 주말연속극 참 좋은 시절 23.0%

4	KBS1	KBS9시뉴스	19.7%
5	KBS1	대하드라마(정도전)	17.1%
6	KBS2	일일드라마(천상여자)	16.6%
7	KBS2	개그콘서트	16.4%
8	KBS1	인간극장	12.8%
8	SBS	정글의법칙N보르네오	12.8%
10	MBC	주말드라마(왔다장보리)	12.0%

* 한국 TV KBS, MBC, SBS를 월 \$24.99에 볼 수 있는 안TV (617-955-9112) 지금 신청하세요!

숫자 퍼즐 (Sudoku)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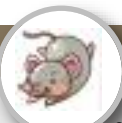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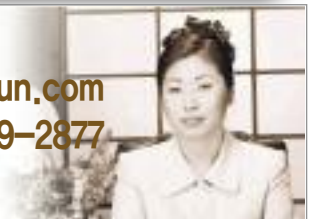
	8	7					6	4
2		3		5			7	8
	4		1			5		3
				2	5			
8								2
			8	6				
9		8			2		1	
7	2			1		8		9
1	5					2	3	

4월 20일 - 4월 26일

재미로 보는 주간운세

지문철학원

www.askjiyun.com
213-739-287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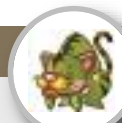
쥐띠 | 얼굴에 미소가 가득

●운수: 오랫동안 이어갈 수 있고 도움도 받을 수 있는 귀한 인연을 만날 수 있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금전: 새로운 거래처가 생기거나 새로운 일을 연결됨으로써 수입이 늘어나게 되니 마음의 여유도 생깁니다. ●애정: 애정전선은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함께 하는 시간이나 떨어져 있는 시간이나 얼굴에 미소가 가득합니다.
84, 72, 60, 48, 36년생은 22, 24일 길일. 20, 26일 주의.



소띠 | 하나를 결정해야 하는 갈림길

●운수: 두 가지 중에서 어느 하나를 결정해야 하는 갈림길에서 무척이나 혼란스러워 하면서 판단을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금전: 기분이 들떠서 순간적인 지출을 하거나 음주로 인한 실수를 할 위험이 있습니다. 주말이나 야간 시간에 술자리 약속은 안하는 것이 좋습니다. ●애정: 시간이 지나면 아를 것이라고 생각한 상처가 하루하루 갈수록 더 덧나서 아픕니다.
85, 73, 61, 49, 37년생은 20, 23일 길일. 21일 주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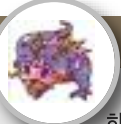
범띠 | 인생은 장기 투자

●운수: 이제는 무엇이 정말 소중한 것인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느끼면서 그리고 행동하면서 살아가야 할 때입니다. ●금전: 인생은 장기 투자라고 생각하세요. 당장은 마음에 안 들고 성에 안차서 있어도 만족하면 얻는 것이 더 많을 것입니다. ●애정: 사람이 입으로는 거짓말을 하더라도 눈으로는 거짓말을 하지 못합니다. 눈을 살펴보세요.
86, 74, 62, 50, 38년생은 21, 26일 길일. 20, 22일 주의.



토끼띠 | 좋은 이미지를 잘 심어주도록

●운수: 활동적이고 적극적인 면을 보여주어야 할 때입니다. 한번 한 약속은 정확히 지키고 좋은 이미지를 잘 심어주도록 신경을 써야 합니다. ●금전: 금전 문제에 있어서 방심하면 안 됩니다. 내 손에 확실 말을 안 하는 사람이나 모른 척 하는 사람이나 둘 다 똑같이 힘들다는 것을 실감하게 됩니다.
87, 75, 63, 51, 39, 27년생은 22, 25일 길일. 20, 23일 주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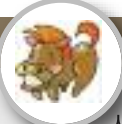
용띠 | 스스로의 힘으로

●운수: 하고 싶은 말이 많은 것 같았는데 정작 막히고 하고 싶은 말을 한마디도 못하고 할 말도 없는 때입니다. ●금전: 한 순간 한 순간 다른 사람의 도움이 아쉽겠지만 스스로의 힘으로 이루려는 노력이 최선입니다. ●애정: 그동안 전혀 예상하지도 못했고 모르고 있었던 심각한 문제를 직면하게 됩니다. 흥분하기 보다는 차분한 마음으로 해결책을 찾아야 합니다.
88, 76, 64, 52, 40, 28년생은 20, 23일 길일. 21, 24일 주의.



뱀띠 | 마음의 발을 크게 갈아야

●운수: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습니다. 행동반경을 넓게 잡고 마음의 발을 크게 갈아야 합니다. ●금전: 세상에는 꼭 내게 이득이 돌아오는 일만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득은 없지만 큰 열매를 맺는 나무를 심는 것이라 생각하세요. ●애정: 어떤 형태로든 상대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서 참으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 것입니다.
89, 77, 65, 53, 41, 29년생은 20, 24일 길일. 22, 25일 주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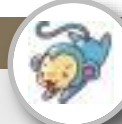
말띠 | 밀고 당기기 전략에

●운수: 이제는 더 이상의 갈등은 없습니다. 마음먹은 대로 새로운 일을 적극적으로 추진해나가야 합니다. ●금전: 기다리던 돈이 들어오거나 생각지도 않았던 곳에서 이득을 얻게 되는 일이 생깁니다. ●애정: 한 사람을 향한 변화가 없는 사랑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강하니 밀고 당기기 전략에 꼼짝없이 휘말려들기 쉽습니다.
90, 78, 66, 54, 42, 30년생은 21, 25일 길일. 23, 26일 주의.



양띠 | 깊이 생각해 보아야

●운수: 동료, 친구, 가족들의 문제로 스트레스를 받기 쉬운 주입니다. 언행에 주의하고 오해의 소지를 없애야 하는 시기입니다. ●금전: 사업 파트너로 손을 잡기 이전에 상대와 오랜 시간 동안 과연 함께 갈 수 있는 관계인지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애정: 사람의 마음을 억지로 묶어두는 것이 과연 옳은 건인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면서 술을 지쳐갑니다.
91, 79, 67, 55, 43, 31년생은 22, 26일 길일. 21, 24일 주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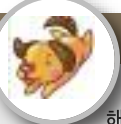
원숭이띠 | 획기적인 아이디어가 떠오르는

●운수: 그동안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의 일이나 하고 싶었던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깁니다. 획기적인 아이디어도 떠오르는 주입니다. ●금전: 큰 어려움 없이 꾸준히 증가하겠습니다. 돈은 벌지만 쓰는 사람은 따로 있습니다. ●애정: 주변 사람들이 아슬아슬하게 보는 시선이야 반대에 아랑곳하지 않고 두 사람의 사랑은 현재진행형입니다.
92, 80, 68, 56, 44, 32년생은 20, 23일 길일. 25, 26일 주의.



닭띠 | 앞으로 나아갈 때

●운수: 지금은 앞으로 나아갈 때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아무도 나의 가치를 알아주지 않습니다. ●금전: 잘 이루어지지 않던 상담도 끈기를 가지고 설득하면 계약이 성사되어 이익이 생길 것입니다. ●애정: 겨울이 추우면 가을에 과일이 훨씬 더 많이 열리는 법입니다. 어려움을 겪은 사람만이 진정한 행복의 가치를 깨닫게 됩니다.
93, 81, 69, 57, 45, 33년생은 20, 24일 길일. 23, 26일 주의.



개띠 | 가만히 지켜보면서 지나가야

●운수: 대인관계에서 할 말은 하고 자신의 의견을 잘 전달해야 합니다. 그렇지 못하면 오해를 사게 되고 문제를 생길 수도 있습니다. ●금전: 새로운 일에 신경을 쓰다 보면 본업에 소홀해질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애정: 감정이 앞서 가기 쉬운 때입니다. 지금은 앞으로의 상황이 어떻게 될지 가만히 지켜보면서 지나가야 합니다.
94, 82, 70, 58, 46, 34년생은 25, 26일 길일. 21, 24일 주의.



돼지띠 | 시작보다는 정리가 필요한

●운수: 자신만의 시간을 갖고 시작보다는 정리가 필요한 때입니다. 자극적인 음식을 피하고 음식 조절을 해야 합니다. ●금전: 본전을 생각해서 미련을 버리지 못하면 결국 큰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잘 판단해서 결정해야 합니다. ●애정: 존재만으로도 상처가 되는 것이 가족이 될 수도 있습니다. 혈연관계라 해서 모든 것이 다 용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95, 83, 71, 59, 47, 35년생은 23, 24일 길일. 21, 25일 주의.



여객선 사고 연예가 애도의 물결 동참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양성대 기자 = 각종 행사는 물론, 방송가 드라마 및 예능 프로그램 결방이 이뤄지고 있다. 일반 승객들은 물론, 제주도로 수학여행을 떠나기 위해 승선했던 고등학생들 중 여전히 많은 인원이 구조가 되지 못했거나 실종 상태이기에 사고 당일인 16일 방송 3사는 예능프로그램은 물론, 드라마까지 결방시켰다. 워낙 유례없는 참사다 보니 온 국민이 애도의 물결에 동참하고 있는 상황이다.

우선, 영화계의 움직임이 발 빠르다. 시사회를 제외하고 제작발표회나 쇼케이스 등 화려한 행사들이 잇달아 연기됐다. 17일은 물론, 18일까지 행사가 열리지 않게 되면서 이번 주에는 이렇다할 영화계 행사를 볼 수 없다.

가요계도 상황은 마찬가지. 걸그룹 에이핑크는 팬 미팅 행사를 전격 취소했다. 에이핑크 측은 공식 보도자료 통해 “걸그룹 에이핑크가 19일 오후 7시 서울 광운대학교에서 개최하려던 데뷔 3주년 팬미팅을 취소하기



로 결정했다”며 “진도 여객선 침몰 사고로 아픔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밝은 마음으로 노래를 부르며 팬들을 만날 수 없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17일 신곡 ‘썬팻’ 공개를 앞둔 블랙비는 이날 오후 공식 팬카페와 SNS계정에 “이번 컴백 타이틀곡 ‘썬팻’으로 여러분들께 즐거운 모습을 보여드리기에는 현 상황에 따른 당사와 멤버들의 마음가짐이 이번 타이틀곡과는 맞지 않아 최선의 무대를 보여드릴 수 없다고 판단해 음원 발매를 미루기로 정했다”고 설명했다.

s.yang@bostonkorea.com



'리오2' 개봉일 북미 박스오피스 1위 흥행돌풍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양성대 기자 = 3D 정글 어드벤처 '리오2'가 개봉 첫 주 브라질, 영국, 중국에서 박스오피스 1위를 차지한 것에 이어 11일 개봉과 동시에 북미 박스오피스 1위를 기록하며 전 세계에 강력한 흥행 돌풍을 이어가고 있다.

'리오2'는 사람과 함께 사는 도시형 앵무새 '블루' 가족이 무시무시한 아마존 정글로 모험을 떠나고, 그곳에서 맞닥뜨린 복수에 불타오르는 악당 앵무새 나젤과 야생 친구들의 공격에 맞서는 다이내믹한 여정을 그린 3D 정글 어드벤처. 개봉 첫 주 영국, 브라질에서 박스오피스 1위를 기록하며 전 세계 흥행 돌풍을 예고하고 있는 '리오2'가 지난 11일 북미 개봉과 동시에 박스오피스 1위를 다시 한번 기록해 본격적인 흥행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s.yang@bostonkorea.com

홍은희, 먹방사진 눈길 끌어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양성대 기자 = 배우 홍은희의 새로운 먹방 사진이 공개됐다. 2014 올리브쇼에서 자연스러우면서도 분명하고 세심한 진행으로 프로 MC다운 면모를 선보이고 있는 배우 홍은희가 촬영 중 리얼한 먹방 사진들을 선보여 눈길을 끌고 있다.

이날 주제는 비슷한 것 같지만 각기 다른 맛을 내고 있는 라면을 평가하는 것. MC홍은희는 최대한 꼼꼼하게 맛을 표현하기 위해 열심히 생각하며 먹었고 그 모습이 평소 홍은희의 네추럴한 매력을 더욱 돋보이게 했다. 맛있게 먹는 것은 물론, 먹으면서도 다양한 표정으로 얘기하는 배우 홍은희의 사랑스러운 매력이 보는 이들에게 미소 짓게 했다.

‘2014 올리브쇼’는 매주 화요일 밤 9시 올리브TV에서 방송된다.

s.yang@bostonkorea.com

천지보살

운명
사주
궁합
신점

전화예약 617-947-6799

전화로도 상담해드립니다

로컬,장거리 이사 전문

시카고, 아틀란타, 버지니아
- Next Day Delivery (Express)
TX 지역
- Two day Delivery (Express)
L.A, 샌프란시스코 (CA지역)
- 5 Days Delivery (Express)



우리 익스프레스 617.699.6272

OTK 김원태 건축사
Registered Architect • NCARB • CDT • LEED AP
Design • Construction • Management

건축
&
시공



15년 이상의 전문적인 경험
무료 상담 및 견적
하우스 리모델링
각종 건물 신축 • 증축 • 개축

otk212@gmail.com 617.620.8242



NEWSTAR BOSTON

매우 최대 한의 부동산 그룹 / 200여년 역사 / 1000명 이상의 에이전트 / 연30%의 매출성장 / 50여 개국 대표지사 / 한국 및 캐나다 자회사

전 미주 지역의 Network과 Teamwork 그리고 다년간의 경험과 New Star 부동산만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고객의 성공과 이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백영주
617-921-6979



Kwang O Kim
617-792-8615



Joanne Song
206-734-1407



Sue Rong Tsai
617-792-8842



Yukai Sun
860-830-8599



송경빈
978-844-1508

단독주택 Single Family



\$675,000
Sharon, MA
4 Beds, 2.5 Baths, 2732 sf.
살기 좋은 타운
업데이트된 roof, kitchen
이현주 401-935-3397



\$599,900
Sharon, MA
3 Beds, 2.5 Baths, 3338 sf.
넓고 깨끗하게 잘 관리된 집
Many updates
이현주 401-935-3397



\$539,000
Reading, MA
3 Beds, 2 Baths, 2366 sf.
새로 업데이트된 roof, kitchen
Easy access to Highway
Jason Jeon 617-642-5670



\$1,089,900
Lexington, MA
4 Beds, 2.5 Baths
좋은 학군, 햇빛 좋은 남향집
Near I-95, H-mart
Anna Jung 617-780-1675

단독주택 Single Family



\$195,000
Weymouth, MA
3 Beds, 1 Baths, 1180 sf.
Beautiful ocean view
Jin Choi 617-877-0387



\$789,000
Newton, MA
5 Beds, 4.5 Baths, 2450 sf.
Spacious home for big family
Anna Jung 617-780-1675



\$559,000
Winchester, MA
4 Beds, 2 Baths, 1969 sf.
주택 재개발에 관심 있는 분에게
적합한 집
OT Kim 617-620-8242



\$899,900
Lexington, MA
4 Beds, 3 Baths, 2534 sf.
넓은 공간, 업데이트된 roof,
kitchen, bathrooms
OT Kim 617-620-8242

콘도 Condominium



\$319,900
Northborough, MA
2 Beds, 2 Baths, 1640 sf.
좋은 가격의 고급 콘도
Michael Yun 617-459-5985



\$850,000
Cambridge, MA
2 Beds, 2.5 Baths, 1374 sf.
깨끗하고 좋은 구조의 콘도
Joanne Song 617-797-3562



\$480,000
Quincy, MA
3 Beds, 2.5 Baths, 2448 sf.
조용하고 깨끗한 콘도
Jason Jeon 617-642-5670



\$789,000
Boston, MA
2 Beds, 2 Baths
Luxury elevator condo
Sue Rong Tsai 617-792-8842

Investment

E-2 & EB-5 투자
문의: 781-259-4989

Condo

Cambridge/ \$460,000
2 beds, 2 full baths
Greenline extension
Jason Jeon 617-642-5670

Condo

Cambridge/ \$349,000
Charming 1 bedroom condo
Close to Harvard Sq.
Joanne Song 206-734-1407

프랜차이즈

300개 점포 소유 회사
S.J Park 617-304-7001

APT Rent

아파트 건물
학생 렌트 건물
Cambridge, Boston
S.J Park 617-304-7001

Cleaner

\$220,000
Milford, 건물 가능
주차공간, 사무실
S.J Park 617-304-7001

Drop off Store

Sharon, MA/ \$18,500
급매, 좋은 위치
Potential to grow
Jason Jeon 617-642-5670

Restaurant

\$320,000
엘머스트 downtown/ 일식당
Beer Wine License
Won T. Ra 617-642-3156



이제봉
781-654-5281



애나 정
617-780-1675



최진민
617-877-0387



Ritika Chopra
617-697-1191



Michael Yun
617-459-5985



OT Kim
617-620-8242

Lexington Office

40 Waltham Street, Lexington, MA 02421
Tel. 781.259.4989 Fax. 781.259.4959
www.BostonNewStarRealty.com

Newton Office

1111 Washington St. Newton, MA 02465
Tel. 617.969.4989 Fax. 617.969.4959
www.NewStarRealty.com

Agent 모집합니다. 781.259.사구팔구 617.969.사구팔구



1111 Washington St, Newton, MA 02465
40 Waltham Street, Lexington, MA 02421

www.BostonNewStarRealty.com
www.NewStarRealty.com

미국 최대의 부동산 그룹 / 2014년 4월 / 100대 부동산 에이전트 /
전국 1위 부동산 회사 / 2014년 4월 / 100대 부동산 회사



김형진
781-956-0409



박성종
617-304-7001



제이슨 전
617-642-5670



헤이즐 승
617-895-7676



Shell Yu
781-526-2416



나원태
617-642-3156



Steve Yoo
617-386-3451



신보경
508-361-6064



Claudia Lee
617-817-사구팔구



이현주
401-935-3397



Gina Choi
978-866-3248

Drop off Store



\$65,000
Lincoln, MA
Drop shop and alteration
Great location by Lincoln place
Anna Jung 617-780-1675

Restaurant



\$250,000
Boston, MA
Boston downtown 중심에 위치
Great potential to grow
Jason Jeon 617-642-5670

Business Consulting



**레스토랑
셋업 컨설팅**
SJ Park 617-304-7001

Cart Business in Mall



\$80,000
Boston, MA
Downtown Mall 안에 위치
Hot business spot
Anna Jung 617-780-1675

Drop off Store



\$50,000
Wakefield, MA
Wakefield center에 위치한
drop off store
Jin Choi 617-877-0387

Full Plant 세탁소



\$300,000
West Boylston, MA
고정 손님 많고 잘 운영되는
풀 플랜트 세탁소
낮은 운영비, 좋은 수입
Jason Jeon 617-642-5670

Drop off Store



\$60,000
Concord, MA
Located in a busy shopping-
mall close to Concord center
Jin Choi 617-877-0387

Clothing Store



\$100,000
Mattapan, MA
안정적인 수입
모든 inventory 포함
Jason Jeon 617-642-5670

Cafe



\$250,000
Boston, MA
Cafe w/ 프로즌 요거트,
버블 티, 아이스크림
Anna Jung 617-780-1675

Nail Sal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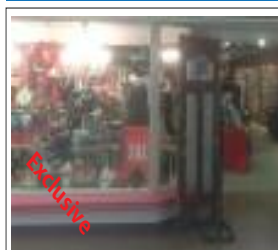
\$89,900
Boston, MA
Well established nail salon
located in a high traffic area
Hazel Seung 617-895-7676

Grocery



Ask agent for price info.
Allston, MA
1100 sf.
Hot Business Spot
Anna Jung 617-780-1675

Jewelry Business



\$99,999
Natick, MA
좋은 위치, 잘 운영되는 비즈니스
New owner를 위한 training 제공
Michael Yun 617-459-5985

Investment

E-2 & EB-5 투자
문의 781-259-4989

Full Plant Cleaner

\$100,000
Weymouth, MA
잘 운영되는 비즈니스
Jason Jeon 617-642-5670

Convenience Store

\$120,000
Worcester downtown
Great business potential
Won T. Ra 617-642-3156

E-2 투자 이민

**E-2 투자 이민
확실한 비즈니스**
SJ Park 617-304-7001

Full Plant Cleaner

\$200,000
Middleton, MA
Middleton mall 내 위치
Jason Jeon 617-642-5670

커머셜

커머셜 건물 투자
SJ Park 617-304-7001

비즈니스 빈자리

센트랄 sq., 하버드 sq.
울스턴, 뉴튼 센터
비즈니스 빈자리
SJ Park 617-304-7001

APT Rental

보스턴 아파트 전문가!
가격, 지역, 방 갯수 등 원하시는
조건에 맞추어 찾아 드립니다.
David Kim 781-956-0409



최고의 실력과 탄탄한 경력을 갖춘 에이전트들이
여러분을 위해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곧 전화하세요 !!!

오늘, 다시 읽는 미국사

보스턴코리아 컬럼니스트 소피아
us.herstory@gmail.com

칼럼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은 WisePrep 소피아선생님 (617-600-4777, us.herstory@gmail.com)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칼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AP 준비하기 (5) 어떤 의미에서는 혁명적이었던... 인민주의, 혁신주의, 뉴딜, 그리고 위대한 사회 -2

20세기 초반 시작되었던 혁신주의에 대한 열망은 세계 제 1차 대전이라는 “전쟁과 함께 사라졌다.” 미국의 1차 대전 참전에 대한 (액면가의) 명분은 ‘전쟁을 끝내기 위한 전쟁’이었으며, 동시에 ‘(세계의 안전을 통해)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전쟁’이었다. 결국 전쟁은 미국이 지원한 연합국의 승리로 1차 대전은 마감되었다.

1차 대전 후 미국은 채무국에서 세계 최강의 채권국으로 돌아섰다는 점은 매우 중요하다. 우드로 윌슨 대통령은 반대했지만, 유럽 중심의 패권은 미국으로 옮겨왔다. 전쟁의 결과로 미국에 유입된 자본은 1920년대 미국을 ‘부자나라’로 만들었다. 1920년대가 여러 모로 미국의 호시절이었을 듯 하지만, 지나고보니 그 시절 미국은 욕망이라는 이름의 전차를 타고 대공황 역을 향해 서서히 가속 페달을 밟고 있었다.

1920년대 미국 월가에서는 전쟁을 통해 발생한 과잉 자본을 바탕으로 투기자본과 헤지펀드가 성행하고 있었다. 주식시장은 계속해서 높은 지수를 보였지만 거품이 잔뜩 끼어있었다. 게다가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보수로 회귀한 미국 정부는 재정 부 장관 앤드류 멜론의 “낙수 효과 (Trickle-down Effect) 이론” 즉 부자들이 더 부자가 될 수록 전 사회적인 부의 총량이 늘어남으로써, 그 혜택을 다른 계층도 볼 수 있다는 입장을 경제 정책 전반에 적용했다. 이에 따라 산업 생산자의 이익을 보전하기 위해 관세율이라든가 소득세 부과 등에 있어 개혁적인 조치들을 철회하고 생산자 중심의 경제 정책 기조를 유지한다. 이로써 산업 생산이 늘어나도 정작 이를 소비할 수 있는 계층은 줄어들어서 사실상 과잉 공급 상태가 야기되었다. 결국 경제 지표상으로는 어마어마한 호황기였지만 심각한 불균형의 문제가 미국 사회와 경제를 잠식하고 있었던 때가 바로 1920년대다.

한 가지 덧붙이자면 농업분야에서의 대공황은 월가가 붕괴되

기 훨씬 이전에 시작되었을 지도 모른다. 전쟁 중 유럽에 전시 식량을 수출하는 역할을 했던 미국은 전쟁 직후 제 1의 농업국가로 부상했다. 그러나 이 때 늘어난 농산물의 생산량이 유럽의 농업이 안정화된 이후에도 축소되지 않았고, 이에 따라 농산물 가격이 곤두박질쳤기 때문이다.

루즈벨트의 뉴딜

알려져있듯이 뉴딜은 대공황에 대한 프랭클린 루즈벨트 행정부의 “대책”이었다. 단기적으로는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 혹은 긴급 구호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대한 직접적인 지원 (Relief), 중장기적으로는 붕괴된 경제와 사회의 회복 (Recovery), 그리고 장기적으로 다시는 동일한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개혁 (Reform)을 위한 여러가지 프로그램을 포괄하고 있었다.

이를 통해 지금까지 자유방임 (Laissez-Faire) 자본주의의 성격에 가까웠던, 아니 오히려 노골적으로 미국의 비즈니스는 비즈니스라는 선언으로 과하게 기업의 이익을 챙겼던 정부가, 경제 부문에 크게 ‘개입’하는 정부로 변모하게 된다.

공화당의 후보로부터 대권을 이어받은 민주당의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이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공포 그 자체”라거나 “경제의 사다리에서 가장 아래에 위치한 잊혀진 사람들을 위한 경제정책”을 펼치겠다고 했을 때, 대공황으로 상처입은 미국인들의 심리는 “다시 한 번 해 보자”는 용기로 돌아섰다고 한다. 하지만 뉴딜이 성공적이었는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가령 뉴딜은 행정부를 비대하게 만들었다는 비판, 뉴딜의 후반부에 이르러 또 다른 경기 침체에 맞닥뜨렸고, 뉴딜 기간 동안 실업률이 14% 이하로 떨어진 적이 없었다는 비판, 실제로 공황을 끝낸 것은 세계 2차대전이지 뉴딜이 아니라는 비판 등을 보면 뉴딜이 경제를 회복 (Recover) 했다고 주장하기 어려

워진다.

뉴딜: 대공황의 상처가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그러나 개혁의 부분에서는 좀 달랐다. 뉴딜이라는 개혁을 프로그래밍하기 위한 선결조건은 대공황의 원인에 대한 진단이었을 게다. 주가의 버블과 투기, 취약한 금융 제도, 유동성이 낮은 통화, (친기업 정책이 야기한) 부의 양극화로 인해 발생한 공급 과잉의 문제 등이 대공황의 (전부는 아니라도) 주된 원인이다.

은행 개혁은 상당히 성공적인 측면이 있었다. 먼저 루즈벨트는 부실은행을 정리하고 금본위제를 폐기했다. 또한 예금의 공격적 인출이 투자 축소로, 그로 인한 생산 축소와 고용 둔화로, 다시 실업이 공급 과잉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막기 위해, 예금자의 예금을 정부가 보증하는 FDIC (Federal Deposit Insurance Corporation)을 만들었다. 또한 투기 은행과 상업 은행을 구분함으로써 기업에 의한 투기를 억제하고자 했다. 1933년에 이루어진 이 은행 개혁을 포괄하고 있는 법이 바로 Glass-Steagall Banking Reform Act 이다.

한편 뉴딜은 노동자들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몇가지 노사관계법을 새롭게 도입했다. 1935년의 노동조합 가입과 활동을 합법화한 와그너법 (Wagner Act of 1935)이라든가 공정 근로 기준법 Fair Labor Standards Act (1938) 등이 그 예이다. 마지막으로 1935년 입법된 사회보장법 (Social Security Act) 역시 최초로 복지사회의 기틀을 만들었다. 술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뉴딜이 일구어낸 의미있는 개혁들이다.

이런 개혁들은 뉴딜의 “사회주의적 측면”에 대한 비판의 빌미가 되었으나, 실제로는 노동계급과 저소득층의 구매력 상실에 의한 공급 과잉상태를 막음으로써 자본주의를 지켜낸 측면이 더 크지 않을까. (계속)

정철화 프로의 골프 이야기 244



글쓴이: 정철화, Ph.D.
978-726-6979
jungc811@hotmail.com
Stow Acres Country Club
58 Randall Rd, Stow, MA 01775

중학교 다니던 시절 육상부에서 투포환이라는 종목의 선수로 잠시 있었던 시절이 있었다. 엄청나게 무거운 쇠덩어리를 어깨에 얹어 놓았다가 몸을 돌리면서 멀리 내던지는 육상 종목이다. 커다란 쇠덩어리가 직접 손에 의하여 내던져지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신체적인 힘과 스피드와 순발력에 의하여 결과가 좌우되는 운동이다. 일단 몸의 크기가 작은 투포환 선수는 찾아볼 수가 없다. 그에 반하여 골프 선수들 중에서는 신체적인 크기가 별로 크지 않다 하더라도 엄청난 장타를 낼 수 있는 선수들이 심심찮게 많다. 그것이 가능한 이유는 골프는 맨손으로 하는 운동이 아니라 골프채라고 하는 매개체를 가지고 하는 운동이기 때문이다.

아무리 멀리 던지는 야구 선수라고 하여도 맨손으로 골프공을 던지는 거리와 드라이버로 쳐서 나가는 거리는 상대가 되지 않는다. 드라이버라는 골프채는 보통의 경우 맨손에 비하여 서너배의 거리를 낼 수가 있다. 드라이버의 거리가 10야드 만이라도 더 보내기 위하여 온갖 노력을 다하는 것이 골퍼들의 속성인데 그것에 비하면 드라이버 자체를 잘만 이용하기만 해도 몇십야드 정도는 쉽게 더 보낼 수 있다는 사실은 골프 입문하는 사람들에게는 복음과 같이 기쁜 소식이 아닐 수 없다. 어느 정도 운동 신경이 있고 스윙의 궤도가 올바르게만 하면 드라이버의 경우 멀리 공을 보낼 수 있다. 그것이 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공이 드라이버의 클럽면에 제대로 맞지 않기 때문이다. 클럽면의 가운데 부분에 맞는 것이 아니라 지나치게 안쪽이나 바깥쪽 혹은 위쪽이나 아래쪽과 같이 클럽면의 가장자리에 주로 맞기 때문이다. 클럽면의 안쪽이든 바깥쪽이든 한쪽에 일정하게 맞으면 오히려 수정하기가 쉽다. 골프공에 조금 다가선다든지 조금 멀리서는 것을 통하여 어느정도 쉽게 교정이 가능하다. 교정하기 어려운 경우는 일정성이 없이 들쭉날쭉 하게 맞는 경우다.

Respect: 존중한다는 것은?

어떻게 하면 일정성을 가질 수 있을까? 첫 째는 스윙이 자연스러워질 때까지 스윙 연습을 해야 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스윙을 가지지 못한다면 그것은 스윙이 자신의 능력의 한계를 벗어나 있기 때문이다. 자신이 컨트롤 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스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감당하지 못할 만큼 세게 휘두른다는 말이다. 균형 잡힌 스윙이 아니면 일정성을 보장 받을 수 없고 따라서 신체적 정신적 불안 속에서 스윙을 하기 때문에 악순환이 계속 된다. 이것을 벗어나는 가장 기본적인 태도는 드라이버를 믿는 것이다. 드라이버 자체가 가지고 있는 거리를 충분히 만들 수 있

는 능력을 인정해 주는 것이다. 비록 사물이지만 드라이버를 존중해 주는 것이다. 거리를 만드는데 있어서는 자신의 강한 팔뚝보다도 몇배나 더 큰 능력을 가지고 있다. 나는 정확히 내 팔뚝은 드라이버가 제 기능을 다하도록 그저 그길을 안내해 주는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힘으로 강하게 내려치는 것이 아니다. 부드럽게 다루어 주어야 한다. 그것이 드라이버를 Respect 해주는 것이다. 사물도 존중해 주면 제 역할을 다하는데 사람은 오죽하랴! 내 주위에 스쳐나가는 사람에게 대한 존중의 마음이 한낱 드라이버를 대하는 마음보다도 없다는 생각에 갑자기 서글퍼진다.



침몰 당시 구조하러 온 미군 헬기, 우리 군이 돌려보내

(보스턴=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진도 해상 유람선 여객선 참사 당시 사고 해역 인근에서 작전중이던 미군 함정이 구명용 보트를 탑재한 구조 헬기를 현장에 급파했으나 우리 해군의 승인을 얻지 못해 되돌아갔다고 한겨레 신문이 보도했다.

한겨레신문의 보도는 다음과 같다. 16일 미 국방성 보도 매체인 <성조지>에 따르면, 세월호 침몰 당시 사고 해역에서 118마일 떨어진 서해상에서 작전중이던 미군 상륙함 본함 리처드함이 여러 개의 구명보트를 실은 2대의 MH-60 헬기를 파견했지만, 구조작업에 투입되지 못한 채 돌아갔다. 익명을 요구한 우리 해군 관계자는 “미 해군이 지원 협조를 요청하기 전

사태 추이를 보기 위해 대기했다”고 말했다고 <성조지>는 전했다. (관련 기사 보기)

미국 해군이 이날 오전에 발표한 보고서(문서번호: NNS140416-02) 역시 세월호 사고 소식을 전달 받은 미 해군이 인근 해역에서 작전 중이던 함정의 구조 헬기를 즉각 파견했지만 한국 측이 ‘조치의 효율성’을 이유로 한국측 현장 지휘자의 요청을 기다리며 초동 구조에 참여하지 못하고 대기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이와 관련해 17일 입장 자료를 내고 “당시 사고 선박의 선체가 대부분 침몰한 상황에서 한국공군 C-130 항공기를 비롯한 다수의 헬기들이 집중 운영되고 있어 한국 해군은



원할한 구조 작전을 위해 출동한 미 헬기를 일단 귀환해 추가 요청에 대기하도록 요구했다”고 밝혔다.

민간잠수부 “정부 관계자 대충 시간이나 떼우고 가라” 말해

'MBN 민간잠수부' 인터뷰

MBN과 뉴스타파의 '민간 잠수부 투입을 막고 있다는 보도'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세월호 침몰 사고 구조 작업을 돕고 있는 흥가해 민간 잠수부는 MBN과의 인터뷰에서 “현장 정부 관계자가 대충 시간이나 떼우고 가라고 말했다”며 “민간 잠수부와 관계자의 협조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이며 장비 지원이 거의 제대로 되지 않아 수색

진행이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실제 잠수부가 배안에 사람이 있는 것을 확인하고 소리까지 들었다”며 “언론에 보도되는 것과 현지 상황은 전혀 다르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보도에 따르면 정부 관계자가 잠수를 하지 못하게 막아서는 탓에 구조작업이 14시간 이상 중단됐다.

**2014년 여름방학은
청담 ReadWrite에 다양한
Summer Program과
함께 하세요!**

CHUNG DAHM ReadWrite
the critical reading & writing experts

- **Summer Critical Reading & Writing (1학년~12학년)**
설명문, 소설, 이슈토론 등 청담ReadWrite의 프로그램
- **Summer Writing Workshops (3학년~12학년)**
일주일씩 진행되는 라이팅 인텐시브 프로그램
- **Tween&Teen Creative Writing (3~ 8학년, 9~12학년)**
Short 스토리와시 (Poem)를 통해 라이팅테크닉을 재미있게 배울 수 있도록 짜여 있는 프로그램
- **Summer Days at ReadWrite (3학년~8학년)**
리딩/라이팅수업과 여러가지 예체능 수업을 같이할 수 있는 프로그램 (요가, 축구, 미술, 영화메이킹 등)
- **High school and College Prep Essay Writing (7학년~ 12학년)**
하이스쿨을 준비하는 학생이나 대학교 진학을 준비하는 학생들을 위한 에세이라이팅프로그램

자세한 스케줄은 www.BostonReadWrite.com/schedule/을참조하세요.
 무료상담은 이메일 Info@BostonReadWrite.com이나
 전화 857-404-0170 로 연락주세요.

권지영생장로교회 담임 목사 취임 예배

장재흥 목사 약력

전 전국로사 한인 장로교회 개척/담임목사
 전 일서 장로교회 담임목사
 전 그렌스보로 퍼들장로교회 담임
 전 중국/대한 선교사
 현 권지영생장로교회 담임

할렐루야!
 부활하신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모든 교민들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본 권지 영생장로교회에서는
 미국장로교 보스턴 노회 주관으로
 장재흥 목사님의 제 6대 담임목사 취임예배를
 드리고자 하오니 함께하시는 기쁨의 자리로
 여러분을 정중히 초청합니다.

일시: 2014년 5월 4일 (주일) 오후 4시
장소: 권지 영생장로교회 본당
 270 Franklin St, Quincy, MA, 02169
전화: 617-770-2755
www.quincychurch.org

권지영생장로교회 당회원 및 교우 일동

주최: 권지 영생장로교회
권지영생장로교회
 Quincy Youngsang Presbyterian Church

보스톤코리아

1박 2일

보스톤 여행후기 공모

보스톤에서 이곳은 꼭 가봐야 할 IT PLACE 를 아시나요?
어떻게 하면 보스톤을 후회없이 여행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경험한 보스톤의 소중한 추억을 다른 사람과 나누세요.

당일치기 혹은 1박2일 동안 보스톤을 여행할 수 있는 완벽한 여행코스를 사진등과 함께 소개해 주세요. 또한 본인만 알고 있는 보스톤의 숨겨진 여행장소를 알려주세요.

재치 있고 알찬 여행후기를 보스톤코리아 지면 및 웹사이트 여행면에 소개합니다.

가장 재미있고 유익한 후기를 작성하신 5분을 선별해서, 푸짐한 경품도 드립니다.

MS word로 작성하신후, bostonkorean@hotmail.com으로 보내주세요.

마감일 : 2014년 4월 20일

(마감 당일까지의 이메일 접수, 혹은 우편소인이 찍힌 제출물에 한함)

1등(1명) : iPad mini retina 16GB

2등(1명) : Top of The Hub \$100 gift card

3등(3명) : \$50 Amazon gift card

양미아의 심리치료 현장에서

양 미아 Licensed Psychotherapist

Private Practice: 1330 Beacon St.
Brookline, MA 02446
37 Fruit St. Worcester, MA 01609,
508-728-0832
yeungmia@gmail.com

이별에도 예의가 있다

신선한 봄의 향기를 느끼며, 유달리 길었던 겨울과의 이별을 생각했다. 애써 부인하려 하지만, 엇그제 내린 눈을 보며 생태계의 이상 변화가 느껴졌다. 인간도 자연의 일부인데, 그것을 잊고 오랫동안 '자연의 순리'를 역행하며 살아왔다. 고마운 '자연'에게 예의를 지키지 않은 것이다.

인간들이 만든 수많은 도로와 자동차, 철새 없이 배출되는 공장의 대기 오염, 우리의 환경이 오염되어 가고 있다. 우리 곁으로 파괴된 자연이 돌아오고 있다.

이별의 끝에 예의를 지키지 않는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관계의 끝 모습에 자신의 밑바닥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을 의미한다. 사랑이라 믿었던 관계가 사랑하는 '척'이었음을 알게 되는 것, 그런 '용기없는 진실'을 보게 되는 것이다. 마지막에 모든 허물을 상대방에게 뒤집어 씌우며, 자신만 좋은 사람이면 되는 것이다. 배신감 때문에 잊고 싶어도 잊지 못하는 억울함을 남기는, 예의 없는 이별이다. 이 상처는 담겨있는 그릇조차 녹일 수 있는, '황산' (Acid) 같다.

마키아 벨리는 군주론을 통해, '군주는 여우의 지혜와 사자의 힘을 동시에 갖추어야 한다'고 얘기한다.

여우처럼, '덕'이 있는 '척'을 하는 '부드러운 잔꾀'와 사자처럼 상대방에게 혹독한 상처를 입혀 짓누를 수 있다면, 아무리

억울해도 감히 복수할 엄두를 내지 못하게 되고, 현실적인 이익을 더 많이 가질 수 있다는 조언이다. 경영에 사용할 일을 사람과의 관계 끝에 사용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

테라피 과정 중, 예의 없는 이별을 겪는 환자들은 몸과 마음이 황산같이 녹아가는 자신들의 고통을 호소한다. 피 눈물을 흘리며 이야기한다.

"그녀(그)는 그 시절의 아름다운 추억을 짓밟고 갔지요. 그것을 기억할 수 있는 나의 권리마저 빼앗아 갔어요! 소중했던 모든 추억이 부정당한 것이지요. 나의 진실했던 사랑이, 그저 그녀(그)의 생을 위한 연습용의 노력 같았고, 희롱거리였다는 진실이 너무나 분하고 원통합니다. 상처를 벗어나기 위해선 없던 일이 되고 없던 사람이 돼야 하는데, 너무 고통스러워서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상처를 준 사람에 대한 '분노'로 인해 불행한 감정의 뿌리를 뽑아 내지 않으면, 몸과 마음은 병이 들고 말 것이다. 이 분노의 독소에 묶여 산다는 것은, 자신의 삶이 결코 행복해 질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생리작용을 연구한 듀크대학 정신과 레드포드 윌리엄스 교수는 '분노가 사람을 죽인다'고 단언한다. 사랑한 죄의 댓가로 불행한 삶을 살다가 일찍 죽을 수도 있다면? 이별에 예의 없이 상처 준 이는 자신의 잘못을 잊고, 행복하게 살고 있는데? 억울하지 않은가? 복수하고 싶지 않은가?

가장 멋진 복수는 다시 행복을 찾는 것이다. 이 분노의 독을 없애 버려야 하는 것이다. 그 방법으로 '송봉모 신부님'은 내게 상처 준 사람을 용서하는 일이라고 한다. 세상에서 가장 하기 어려운 두가지 중(용서와 죄를 안 짓는 일)의 하나다. 하지만, 상처로 인한 분노의 씨앗은 '미움'이라는 '꽃'을 피운다. 매일같이, '분노'의 물을 주면서, '미움의 꽃'을 피울 것인가? 아니면, '용서'의 씨앗을 심어 매일같이 용서의 물을 주면서 '평화의 꽃'을 피울 것인가?

행복한 삶을 원한다면, 용서를 선택해야 한다. 그 누구가 아닌, 자기 자신을 위해서.

용서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용서하겠다는 결심을 해야 한다. 용서란 주제로 철학을 연구한 네블렛 (William Neblett) 교수는 용서하기로 결심하는 것이, 용서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한다.

용서를 결심하는데 힘이 들게 하는 것이 있다. 아픔을 생각하고 싶지 않기에, 무의식으로 덮어버리게 할 수 있다. 진정한 용서는, 내가 상처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상대방의 잘못에 대해 정면으로 대면해야 한다. 그러므로, 참을 수 없는 분노로 치를 떠느니, 덮어버리면 쉬운데, 구태여 아픈 감정을 자꾸 들어낼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다. 그것이 싫어, 값싼 용서로 애써 봐주거나, 자기 합리화를 한다. 그러면서, 자기 안의 상처를 인식조차 못하게 된다. 상처가 들쳐지면 갑자기

기화를 내며 완강한 거부 반응을 보이기도 한다. 주위의 사람들은 그런 행동에 의아해질 수도 있다.

다른 하나는 상처에서 치유되느냐 안 되느냐의 열쇠를 자신에게 상처 준 사람한테서 찾으려 하는데 있다. 그러면서 '용서해 주면 내 자존심을 회복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게 된다. '내 자존심을 세우려면, 복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적대자와 동일시'를 한다.

이 원리는 사람은 무엇에 집중하는가에 따라 모습이 변한다는 것이다. 누군가를 밤낮으로 미워한다면 어느새 그 사람과 닮게 된다는 것이다. 적대자와의 동일시가 나와 익숙해지는 것이다. 이것을 버려서 오는, 새로운 변화의 불확실성이 두려워지는 것이다.

이렇게 힘이 들어도, 용서를 결심해야 한다. 용서는 상대방과의 관계없이, 나를 지킬 수 있는, 나를 위한 최고의 예의이자 선물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별에 예의는 지켜주어야 한다. 나쁜 관계도 좋은 관계가 될 수 있고, '미움의 꽃'이 아닌, '평화의 꽃'을 피우는 관계를 남겨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송봉모 신부님 '미움이 그친 바로 그 순간'을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



행복한 미소가 그리우십니까?

1st 초이스가 고객님의 미소를 되찾아 드리겠습니다

모든 진료를 편리하게 한곳에서!

- *치아교정
- *소아치과
- *사랑니발치
- *치아미백
- *임플란트수술
- *악관절(TMJ)
- *보철/비니어
- *수면진정마취
- *신경치료
- *3DX-Ray(CT스캔)

Special!

치아교정 무료 상담
(2014-10-14까지)

Dr. Jeong Sook Lee (장정숙 선생님)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DDS/Ph.D
Tufts School of Dental Medicine, DMD
Harvard School of Dental Medicine,
Practice limited to prosthodontics

Dr. Michael Kang (강철원 선생님)
University of Pennsylvania, DDS
Harvard Dental Resident
Practice limited to endodontics

Dr. Samuel Lee (이승우 선생님)
UCLA School of Dentistry, DDS
Harvard Dental Resident
Practice limited to perio, implant, & ortho

IMPLANT • BRACES • COSMETIC

1st CHOICE DENTAL

한국인 직원을 찾아주세요

781.273.2233

www.1cdental.com

11 Cambridge St. Burlington, MA 01803

H마트에서 5분 거리



DENTAL IMPLANT CENTER

FIRST CHOICE DENTAL GROUP

11 Cambridge St.
Burlington, MA 01803

아동학대 사망사건 전국적 잇따라 발생

오는 9월 '아동학대범죄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안' 실시 예정

(보스톤 = 보스톤 코리아) 오현숙 기자 =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아동은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사회 한쪽에서는 아이들이 생존을 위해 의지해야 할 부모에 의해 버림받고, 방치되고, 학대받아 숨지고 있다. 2001년부터 2012년까지 최근 12년 동안 학대로 숨진 아동은 공식 집계된 인원만 97명이다. 매년 8~9명의 아동이 가정에서 살해당한 것이다. 전국에서 꼬리를 물고 이어지는 아동 학대 사건을 보면 학대받는 아동이 처한 상황은 비참하고 끔찍하다. 정부는 최근 잇따른 아동 학대 사망사건과 관련해 아동보호 전문기관 확충 등 아동학대 예방 종합대책 마련에 나섰다.

아동학대 사망사건 잇따라 발생

지난 7일 인천에서는 7세부터 17세 사이의 4남매가 원룸에서 7년간 방치된 채 살아오다 경찰에 의해 구조됐다.

대구에서는 20대 초반 아버지가 게임 하러 나가야 하는데 아이가 잠을 자지 않아 28개월 된 아들의 명치를 주먹으로 3차례 내리치고 손바닥으로 입과 코를 막아 살해했다. 비정한 아버지 정모(22·무직·절도 등 전과3번)씨는 쓰레기 봉투에 아들 시신을 담아 길가에 버렸다. 아이의 시신은 지난 13일 오후 3시30분쯤 경찰에 의해 발견됐다.

또 지난 2월 가출한 중학생 딸을 목검으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아버지 강모(39)씨가 지난14일 구속됐다. 경찰 조사 결과 아버지는 두 아들도 상습 폭행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앞서 경북 칠곡과 울산에서는 친부와 계모가 의붓딸을 장기간 학대해 사망케 하는 사건이 발생해 온 국민의 공분을 샀다.

아이 죽인 계모, 형량 낮다 여론 확산

지난 11일 대구지법과 울산지법에서 잇따라 열린 계모 치사 사건 선고공판을 지켜본 시민들 사이에서 형량이 너무 낮다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시민들은 "아이를 죽였는데 겨우 징역 10~15년이라는 게 말이 안 된다. 법은 왜 있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울산 검찰은 상해치사죄를 적용해 징역 15년형이 선고된 계모 박모(41)씨에 대해 살인죄와 구형한 사형 형량을 인정받기 위해 항소기로 했다고 지난 13일 밝혔다.

대구지검도 의붓딸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 11일 징역 10년과 징역 3년을 각각 선고받은 계모 임모(36)씨와 친아버지 김모(37)씨에 대해 항소할 계획이다.

새누리당 심재철 최고위원은 지난 1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칠곡 계모와 울산 계모에 대한 형량은 단순히 양형



지난 11일 대구지방법원 앞에서 친부와 계모의 학대로 인해 숨진 어린이와 관련 인터넷카페 회원들이 선고형량에 항의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기준만을 따진 기계적인 적용이었을 뿐 맞아 죽어갔던 아이들의 고통에 대해서는 눈곱만큼도 생각하지 않은 것 같다"며 "대구지검과 대구지법, 울산지검과 울산지법 모두 각성하라"고 촉구했다.

친부모에 의한 아동학대가 약 80%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이찬열(새정치·경기수원갑)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공식 보고된 아동학대 679건 가운데 친부가 41.1%, 친모가 35.1%였다. 계모는 2.1%, 계부는 1.6%였다.

울산과 칠곡 계모사건으로 계모들의 아동학대가 많은 것으로 인식돼 있지만 친부모들 사이에서도 광범위하

게 학대가 이뤄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학대 장소도 '피해아동 가정'이 79.6%로 가장 많았다. 다만 학대의 강도는 친부모와 계부모 사이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 학대 빈도는 '거의 매일'이 38.7%, '2~3일에 한 번'이 15.4%로 조사됐다.

친부모의 학대가 많은 건, 기본적으로 자녀를 소유물로 보는데다, 가정에서 생긴 스트레스를 아이들에게 풀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의 최윤용 상담원은 부모들이 바뀌지 않으면 아동 학대는 끊임없이 일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동 학대 예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가해자인 부모에 대한 교육

과 상담이 필수적이라고 조언한다.

이찬열 의원은 "아동학대는 대부분 부모에 의해 가정 안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주변의 관심과 신고가 중요하다"며 "신고의무 이행은 높이는 다각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 아동학대 예방 종합대책 마련 나서

박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최근 부모의 아동학대로 어린이가 숨진 사건이 잇따라 드러나면서 국민을 충격과 분노에 빠뜨리고 있다"며 "우리 아이 한 명 한 명을 잘 키워내는 일은 우리 미래를 위해 매우 중요한 과제만큼 이제 아동학대를 더이상 한 가정의 문제가 아니라 명백한 사회 범죄행위라는 인식을 갖고 해결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피상적인 대책만으로 예방, 근절하기가 쉽지 않은 만큼 비인도적 아동학대를 보면 누구라도 고발, 신고하도록 사회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종합대책을 세워야 하겠다"고 지시했다.

정부는 최근 잇따른 아동학대 사망 사건과 관련해 아동보호 전문기관 확충 등 아동학대 예방 종합대책 마련에 나섰다.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지난 11일 아동학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부처 공동지침을 마련하는 등 협조체계를 구

축하겠다고 밝혔다.

황 장관은 "법무부는 보건복지부와 안전행정부 등 관련 부처와 함께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또 아동학대 사건 공동지침을 마련하는 등 특례법 시행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오는 9월 시행 예정인) '아동학대범죄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안'은 학대 행위자에 대한 엄벌뿐 아니라 보호처분을 통한 관계회복과 피해아동을 위한 다양한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며 덧붙였다.

여성가족부 역시 아동학대가 가정 폭력 방지, 부모역할 강화, 양육 및 가족 가치에 대한인식 개선 등 가족정책의 관점에서 관리돼야 한다고 보고 복지부, 법무부, 경찰청 등과 협의를 거쳐 공조체제를 구축할 계획이다.

'아동학대 및 가정해체방지 특별위원회' 설치 제안

아동학대 사망 사건에 대한 여론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정치권도 대책 마련에 적극 나서고 있다.새정치민주연합 전병헌 원내대표는 지난 1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아동학대 예방, 방지는 우리 사회의 기초와 근본을 바로 세우는 문제"라며 국회 차원의 가장 '아동학대 및 가정해체방지 특별위원회' 설치를 제안했다.

전 원내대표는 "지난 2월 발표된 정부 아동학대 종합대책은 참으로 '빈 겹데기' 대책이고 11일 당·정협의에서 내놓은 대책 역시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라며 "전문가들이 가장 시급한 핵심 과제로 지적한 아동학대 예방과 신고 의무자, 교육예산, 아동전문보호기관 지원예산 확보 방안 모두 빠져 있다"고 비판했다.

hs0h@bostonkorea.com

국정원 간첩사건 증거조작 수사결과 발표

'꼬리자르기' 비판, 특검도입 요구

(보스톤 = 보스톤 코리아) 오현숙 기자 = 검찰은 지난 14일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씨(34) 간첩 증거조작 사건 수사결과를 발표했지만 국가정보원 뒷선과 담당 검사들에게 사실상 면죄부를 주는 선에서 마무리돼 '꼬리 자르기' 수사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증거조작 수사팀(팀장 윤갑근 부장검사)은 간첩사건 피고인 유씨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입증하기 위한 증거자료를 위조해 법원에 제출한 혐의로, 국가정보원 대공수사팀장 이모(54) 처장과 이인철(48) 주선양총영사관 영사를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국정원 김모 과장(47·4급)과 조선족 협조자 김모 씨(61)가 구속 기소된 상황이어서 이번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사람은 모두 4명이다. 자살을 기도한 국정원 권모 과장(50·4급)은 치료 중인 점을 감안해 시한부 기소중지 결정이 내려

졌다. 수사팀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남 원장에 대해선 증거위조 및 지시 사실이 없다며 무혐의 처리했다. 이 처장 뒷선인 서천호 2차장, 이모 대공수사국장과 최모 대공수사국 부국장(수사단장)은 "구체적 보고를 받은 바 없다"는 진술을 받아들여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

수사 결과가 발표되자 서 2차장은 이날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고 사직서를 제출했으며, 박근혜 대통령은 곧바로 사직서를 수리했다.

또한 수사팀은 간첩 혐의 피고인 유씨 수사와 공소유지를 담당한 검사 2명은 증거 위조를 알았거나 관여한 점이 확인되지 않아 무혐의 처분했다.

김진태 검찰총장은 수사 결과 발표 이후 긴급 간부회의를 소집해 개선 방안 마련과 수사 및 공판에 관여한 검사 2명 등에 대해 감찰을 지시했다.

수사 결과 발표 다음날인 지난 15일 박 대통령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공식 사과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국정원의 잘못된 관행과 철저히 못한 관리체계에 허점이 드러나 국민께 심려를 끼쳐 드리게 돼 송구스럽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국정원은 뼈를 깎는 환골탈태의 노력을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같은 시각 남재준 국정원장도 국정원 청사에서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며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강력한 구조조정, 엄격한 자기통제 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낡은 수사관행을 혁신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새정치연합은 국정원을 바로 세우기 위해선 남 원장의 경질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하며 특검 도입을 강하게 요구했다.

김한길 공동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검찰은 사건의



지난 14일 공무원 간첩 증거 조작 사건 수사결과를 발표하는 검찰

뒷선이 없다고 면죄부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예상했던 대로 검찰이 결국 국정원 벽을 넘지 못한 채 허송세월만 했다"며 "몸통은 손도 못 대고 깃털만 뽑았다. 검찰은 검찰 스스로에게도 면죄부를 줬다"고 비판했다.

검찰 수사 결과에 대한 시민사회 단체의 반발도 거세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5일 성명을 내고 "국정원이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2차장의 사퇴로 사건을 봉합하려는 의도가 다분하다"며 "사법체계의 근간을 흔든 중대범죄행위를 몸통숨기기와 꼬리자르기, 제 식구 감싸기 등으로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hs0h@bostonkorea.com

© 2014 OTK DeCon Group. All rights reserved.

AFTER



Cambridge, M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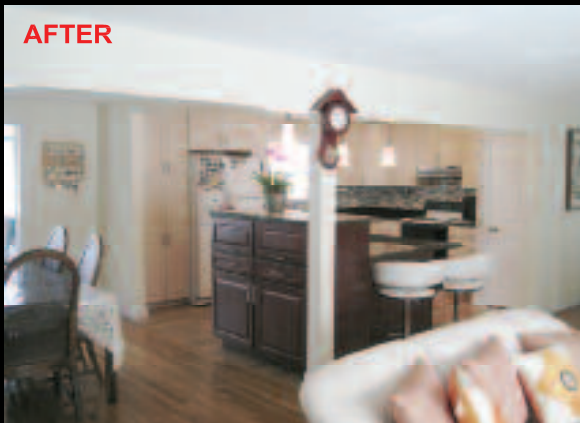
PROPOSED



BEFORE



AFTER



BEFORE



Lexington, MA

AFT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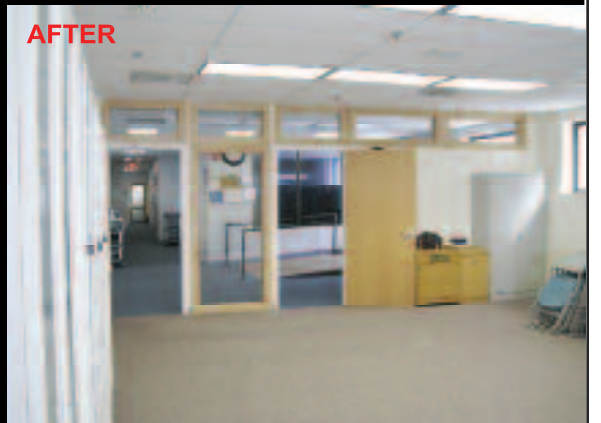


BEFORE



Topsfield, MA

AFTER



BEFORE



Woburn, MA

15년 이상의 전문적인 경험

무료상담 및 견적

하우스 리모델링

각종 건물 신축 · 증축 · 개축



김원태 건축사

Registered Architect • NCARB • CDT • LEED AP
Design • Construction • Management

건축 & 시공

otk212@gmail.com 617.620.8242





enjoy & TV

전 미주 최초! 방송 3사 모두
시청 가능한 유일한 TV = 앤티비

\$ 24.99

(2년 약정시, Tax 면제)

1. 학생증을 보여주세요!

학생 할인

\$24.99(홀드백 Free 상품/1인1대/무약정 가능)

2. 신분증을 보여주세요!

시니어 할인(65세이상)

\$24.99(홀드백 Free 상품/1인1대/1년약정)



3. 추가로 설치하세요!

2nd, 3rd 앤티비 추가 장비 할인

\$24.99(홀드백 Free 상품/총 3대까지 가능)

www.enjoyandtv.com

KBS1, KBS 2, MBC, SBS 인기 프로그램과 영화,
키즈, 교육, 신앙생활, 골프 등 수만여편의 콘텐츠,
이제 앤티비와 함께 다양한 재미와 유익한 정보를
무한대로 즐기세요!

문의 및 연락처

보스톤코리아 TV 사업국

617.955.9112

617.650.6656

*불법 콘텐츠를 시청하는 행위는 불법행위이며, 우리 문화 잠재력을 파괴하는 미국 행위입니다.

THE GREATEST OF ALL TIME!

GRAND OPENING

H MART CAMBRIDGE

APR. 23, 2014 AT 9:30 AM

The wait is finally over. Hmart is opening April 23rd in Cambridge. Come enjoy the grand celebration with your family and friends. Find the Freshest groceries, superior home goods, and Hmart friendly service. Stop by and enjoy a brand new beginning of Hmart in Cambridge. You will fall in love with the way we do food!

미국 내 한인마트 NO.1 H마트가 캠브리지에 오픈합니다. 1년 365일 산지에서 직송되는 신선하고 다양한 식품들과 건강까지 생각하는 유기농 제품들, 최고의 서비스, 온 가족이 함께 할 수 있는 깨끗하고 넓은 고품격 원스탑 쇼핑공간 H마트 캠브리지점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Be amazed the Korean traditional folk dance only at Hmart Cambridge store. Don't miss it on **April 23rd, 2014 at 9:30am!**
4월 23일 오전 9시 30분에 한국 전통 사물놀이단의 공연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신명나는 사물놀이와 H마트 캠브리지 그랜드 오픈을 함께 하세요!



New and Current Members (with valid email address) will get a **FREE** gift.

H마트 포인트 적립 스마트카드에 가입하세요. 신규 가입 고객에게 **사은품**을 증정 합니다. (기존 회원의 경우 이메일 등록만 해주셔도 사은품을 드립니다.)



Purchase over **\$20**, and get a **FREE GIFT**. (Gifts may vary depending on each da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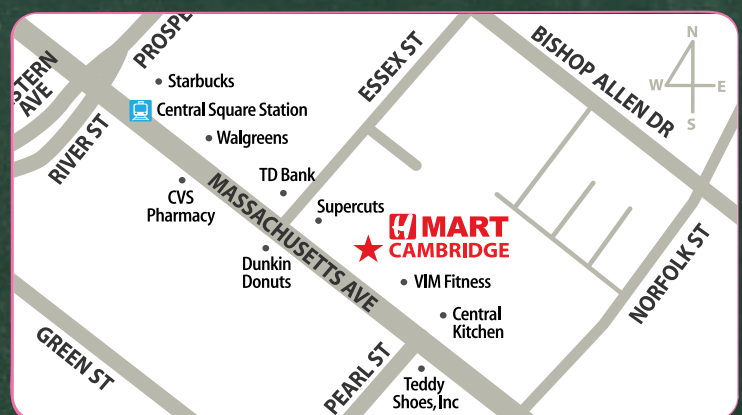
20불 이상 구매시, 채반 또는 고무장갑 증정 및 다양한 선물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Sign up for **smartcard** & spend over **\$30**, get a **FREE** Subscription card from DramaFever! (\$10 value, while supplies last)/online global video site
H마트 스마트카드 회원은 캠브리지점에서 **30불** 이상 구매시, **10불** 상당의 DramaFever 프리미엄 이용권을 드립니다. (선착순 증정) 글로벌 드라마 시청가능 사이트

WE ARE HIRING

REQUIREMENTS AND ALL THE INFORMATION YOU NEED TO KNOW

- All positions are available (Full/Part time)
- Must be able to legally work in the U.S.
- Must be able to speak English fluently
- Send resumes to cambridge@hmart.com
- Job opening until the store opens (1st. - Resumes, 2nd.-Interviews)



H MART CAMBRIDGE
581 Massachusetts Ave., Cambridge, MA 02139
(Central Square Station)
cambridge@hmart.com
Store Tel. 857-209-2747

From East (Downtown Boston) : Take Beacon St. west until you come onto Mass Ave. Turn right onto Mass Ave., drive about 1.2 miles and Hmart will be on the left.

From North (Somerville Area) : Take Prospect St. south until you come onto Bishop Allen Dr. Turn left onto Bishop Allen Dr., Turn right onto Norfolk St. Turn right onto Mass Avenue, Hmart will be on the left.

Public Transportation [Red Line] : Take the (T) Red Line Subway to Central Square Station (#70069). Walking distance from the Central Square Station is about 1 minute.

A Korean tradition made in America. Since 1982. **H MART**

www.pospay24.com



POWERED BY
WorldPayTM
Authorized Representative of

ProSPay



 Leaf

무료기계(2중계약 없음)

One Touch Solution POS
24시간 이내 입금

모바일페이 (iPhone, Android)

Agent / 상담원 모집

TEL **617-466-2212**

TOLL FREE **888-604-2190**

150 Eastern Ave #2FL Chelsea, MA 02150





여객선침몰, 윤곽 드러난 사고 원인 '변침'

(진도=연합뉴스) 특별취재팀 = 전남 진도 해상 여객선 침몰사고 원인이 항로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뱃머리를 갑자기 돌리는 순간 무게 중심이 쏠린 데 있었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세월호 선장 이준석(60)씨 등 승무원원을 밤새 조사한 해경 여객선 침몰사고 수사본부는 사고 원인을 '무리한 변침'으로 잠정 결론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변침(變針)은 여객선이나 항공기 운항 등에서 주로 사용하는 용어로 항로를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사고 지점은 목포-제주, 인천-제주로 향하는 여객선과 선박이 서로 항로를 바꾸는 변침점이다.

제주로 향해할 경우 병풍도를 끼고 왼쪽으로 뱃머리를 돌려 가는 곳이다. 사고 선박이 좌현으로 기운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해경은 세월호가 이 변침점에서 완만하게 항로를 바꾸는 '소침'으로 해야 하지만 급격하게 뱃머리를 돌린 것으로 보고 있다.

자동차로 보면 핸들을 완만하게 꺾어야 하는데 무슨 사정에서인지 급하게 돌렸다는 것이다.

많은 승객이 증언한 '뿡'하는 소리는 1, 2층에 실린 화물 컨테이너와 승용차 등이 한쪽으로 쏠리면서 선체를 충격한 정황으로 볼 수 있다.

세월호에는 당시 차량 180대와 컨

테이너 화물 1천157t이 실린 상태였다. 이들 화물 등은 결박돼 있었지만 배가 한쪽으로 쏠리면 무게 중심이 변하면서 한쪽으로 쏠릴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를 증명하는 증언도 잇따르고 있다. 보일러실에 근무했던 승선원 전모(61)씨는 "오전 7시 40분께 업무를 마치고 업무 일지를 쓰던 중 갑자기 배가 기울었다"며 "창문이 박살 나고 사람들이 한쪽으로 쏠릴 정도였다"고 말했다.

이 증언은 최초 사고가 신고 시간인 오전 8시 52분보다 최소 1시간 앞선 오전 7시 30분~8시 사이에 시작된 것으로 추정케 한다.

화물차를 싣고 세월호에 탔다가 구조된 A씨는 "배가 서서히 기울다가 90도로 쓰러질 때 한 번, 180도로 전복될 때 한 번씩 확 기울었다"며 "구명조끼를 착용하고 화물차가 있는 여객선 1층으로 가봤더니 배에 실린 차량과 짐들은 그때마다 방향을 바꿔 한쪽으로 쏠렸다"고 말했다.

구조에 참여한 민간 어선 선장 B씨도 배가 급격히 기울는 장면을 목격했다고 전했다.

B씨는 "(16일) 오전 10시께 도착했을 때는 옆으로 완전히 쓰러진 상황이었다"며 "서서히 기울던 배가 완전히 뒤집힐 즈음 순간적으로 확 기울었다"고 전했다.

세월호가 항로에 1시간가량 서 있었다는 주변 어민들의 증언도 배가 기울어짐이 해경신고 훨씬 이전부터 진행됐음을 방증하는 대목이다.

해경은 급격한 변침으로 결박 화물이 이탈하고 그 여파로 배가 서서히 기운 뒤 사고 신고 직후에는 통제가 힘들 정도로 기울어진 것으로 해경은 보고 있다.

해경은 또 세월호 승무원들이 수차례 안내방송을 통해 승객에게 '제자리 대기'를 강조한 것은 자체 수습을 시도한 정황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승객들이 충분히 대피할 시간이 있었음에도 오히려 자체 수습만을 하려다 피해를 키웠다는 의혹을 사기에 충분하다.

또 배가 심하게 지그재그로 운항했다는 생존자들의 증언도 급격한 변침을 뒷받침하는 정황으로 보인다.

해경은 이 과정에서 조타 기능이 일부 상실돼 제대로 말을 듣지 않았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일부 생존자들이 들었다는 '지지직'하는 소리는 배가 중심을 잃으면서 화물이 쏟아지면서 난 것인지, 아니면 조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폭이 좁은 항로에서 인근 암초에 부딪히고 나가면서 발생한 것인지는 선체 인양 후 과공여부를 파악하면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1면에 이어서

세월호 침몰, 한국 사회 전체 침울

이 사고 직후 움직이지 말라는 선내 방송에 따라 행동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배가 침몰하고 있는 가운데 "움직이지 말고 객실에 대기하라"는 안내방송에 따라 학생들은 선실에서 대기했고, 일반 승객과 선원 등은 적극적으로 출구를 찾아 나섰다는 것이다.

특히 안전행정부는 사고 직후 배가 기울어 침몰하고 있는 상황에서 구조자를 368명이라고 발표해 구조에 낙장 대응을 불렀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이후 안행부는 164명으로 정정했다가 다시 175명으로 최종 정정했다. 심지어 11시 9분께 경기도 교육청은 학생전원 구조라는 엉터리 발표를 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구조작업도 허술하고 미흡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대부분 구조작업은 수면 위에 떠있는 선체 부분과 바다에 떠어든 승객들을 구조하는데 집중되었고 가라앉은 객실 부분에 대한 입체적인 잠수 구조활동은 거의 이루어지지 못했다.

사고 직후 도착한 잠수부는 20여명에 불과했으며 이들에게 장비를 제공할 해군 선박이 도착하지 않아 일부는 개인 장비를 통해 구조작업을 벌이기도 했다. 특히 사고 후 선장과 선원들은 구조작업에 최선을 다하지 않고 가장 먼저 탈출한 것으로 알려져 분노를 사고 있다.

약 10여년 이래 최대 참사인 세월호 침몰사고는 뉴욕 타임스를 비롯 미국 언론들이 주요 뉴스로 다루며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한국의 방송국들은 대부분의 정규 TV방영일정을 취소하고 구조소식을 연이어 내보내고 있다. 사람들도 애도의 분위기에 잠겨 모두가 숙연한 분위기라고 한 회사원은 전했다.

세월호는 1994년 일본에서 건조됐으며 18년 동안 가고시마와 오키나와 구간을 카페리 여객선으로 사용한 후 중고여객선으로 한국에 매각됐다. 이후 승선정원이 804명에서 921명으로 늘었다.

editor@bostonkorea.com

민간잠수부 “정부 관계자 대충 시간이나 때우고 가라” 말해

(서울=연합뉴스) 이유미 기자 = 여객선 실종자 가족들이 18일 정부의 부실한 대처를 성토하고 도움을 요청하는 호소문을 발표했다. 전남 진도 실내체육관에 모여 있는 실종자 가족들은 이날 오전 실내체육관에서 대표가 낭독한 호소문을 통해 "국민 여러분 정부의 행태가 너무 분해 눈물을 머금고 호소하러 합니다"라며 "아이들을 살릴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말했다. 가족들은 "사고후 논란 가슴을 진정하고 뉴스를 통해 진행

로 되지 않아 수색 진행이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실제 잠수부가 배 안에 사람이 있는 것을 확인하고 소리까지 들었다"며 "언론에 보도되는 것과 현지 상황은 전혀 다르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보도에 따르면 정부 관계자가 잠수를 하지 못하게 막아서 는 탓에 구조작업이 14시간 이상 중단됐다.

여객선침몰 실종 가족 호소문, 정부 부실대처 성토

(서울=연합뉴스) 이유미 기자 = 여객선 실종자 가족들이 18일 정부의 부실한 대처를 성토하고 도움을 요청하는 호소문을 발표했다.

전남 진도 실내체육관에 모여 있는 실종자 가족들은 이날 오전 실내체육관에서 대표가 낭독한 호소문을 통해 "국민 여러분 정부의 행태가 너무 분해 눈물을 머금고 호소하러 합니다"라며 "아이들을 살릴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말했다. 가족들은 "사고후 논란 가슴을 진정하고 뉴스를 통해 진행

상황을 지켜보다 모두 구조됐다는 발표를 듣고 아이들을 보러 현장에 도착했지만 실상은 어처구니가 없었다"며 "현장에는 책임을 지고 상황을 정확히 판단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고 상황실도 꾸러지지 않았다"고 성토했다.

이들은 "이 상황에서 아이들은 차가운 물속에서 살려달라고 소리치고 있었을 것"이라며 "민간 잠수부를 동반해 사고 현장을 방문하려 했으나 아예 배도 못 띄우게 하고 진입을 막았

다"고 말했다.

또 "어제 현장을 방문했지만 헬기 2대, 배는 군함 2척, 경비정 2척 특수부대 보트 6대, 민간 구조대원 8명에 불과하고 인원도 200명도 안됐는데 정부는 인원 555명, 헬기 121대, 배 69척을 투입했다고 거짓말을 했다"고 주장했다.

가족들은 "거센 물살로 선체 수색이 늦어지면서 사망자 시신이 대거 수습되는데도 관계 당국의 대처는 부실하다"고 항의했다.

사업의 시작은

Lee Associates

이경해 부동산
1.800.867.9000



Broker & Realtor(1985년부터 보유) 사업 및 부동산 무료 상담

상가건물, 콘도, 아파트건물 투자하실 분 환영
1031 Exchange 서비스, 비즈니스 용자 알선
미 전역 프랜차이즈 비즈니스
항상 리스팅 80-100 보유

E2 비자 사업체, 비즈니스 무료상담
크고작은 세탁소들, 린드로맷(Laundromat) 많은
주유소, 식당, 편의점, 주류판매점등 다양한 사업체
항상 원하시는 사업체를 찾아드립니다.

Cell.....508.962.2689
Tel.....781.297.5679
www.leebrokers.biz
Email..kayleebrokers@aol.com

보스톤 북쪽 동양식당 연매상 \$600,000+, Full 리커 면허증

요쿠르트, 아이스크림 연매상 \$65,000 좋은 매매가격

드롭오프 스토어 연매상 \$155,000+ 부유한 동네

알링턴지역 Full Plant+셔츠유닛, 연매상 \$245,000 변화가 좋은 위치

보스톤 남쪽 피자/델리/한식 성장가능성 많음. 연매상 \$330,000

보스톤 변화가 좋은 장소, Full Plant+셔츠유닛, 연매상 \$250,000 소유자 은퇴

보스톤 북쪽 큰 몰안 Full Plant+셔츠유닛, 연매상 \$220,000 소유자 은퇴

보스톤 대학가 근처, 세탁소+셔츠유닛, 연매상 \$180,000+\$100,000(홀세일),
60lbs 세탁기(픽아님)

보스톤 북쪽 세탁소 Full Plant 연매상 \$360,000 매매가격 \$235,000 소유자 은퇴

아침, 점심(6일) 매상 \$180,000 주변에 아파트 신축 중

보스톤 북쪽 아침, 점심 5일 오픈, 건물안 위치 연매상 \$180,000

로드아일랜드 큰 몰 안 모자+악세사리, 연매상 \$500,000+

보스톤 남쪽 피자 연매상 \$300,000 한국식당으로 전환 가능

보스톤 남쪽: 중식+스시 연매상 \$ 1M+ Full Liquor 면허증

전국 체인 델리, 고급 몰 안에 위치 연매상 \$520,000

보스톤 북쪽 주유소+컨비니언스 (2 비즈니스), 연매상 \$1.4M

식당 아침, 점심 보스톤 북쪽 주 6일 오픈 연매상 \$180,000

뉴튼 세탁소: 연매상: \$120,000+ 홀세일: \$100,000 오너 파이낸스(50%)

동양그로서리 연매상 &800,000+부가수익, 비어+와인, 로타리 저렴한 매매가격 \$129,000

보스톤 북쪽 세탁소 Full Plant 연매상 \$250,000 소유자 은퇴

론드로맷: 보스톤 연매상 \$180,000 새 장비들 (2010년)

드롭오프: 보스톤 북쪽 연매상 \$145,000 고급동네

보스톤 론드로맷 연매상 \$70,000 소유자 부재

세탁소 Full Plant +셔츠유닛, \$300,000 +Owner finance 가능

론드로맷 +부동산, 연매상 \$230,000 소유자 부자중 경영, 카드시스템, 물값 절약가능-우물보유

드롭오프: 보스톤 북쪽 연매상 \$200,000+ Full Plant로 할 수 있음

세탁소 뉴튼지역, 연매상 \$145,000 19년 경영, 매매가격 \$139,000



명문 중.고.대학 진학상담및 수속

- 전문적인 맞춤형 진학상담
- 최고 에세이 편집자
- 최고 전·현직 입학 담당자 상담

섬머/윈터 프로그램

- 전문적인 관리및 실질적인 프로그램
- MIT/Harvard 특별 프로그램
- 다양한 주말 프로그램

가디언 업무

- 수시 교사 면담및 성적관리
- 아카데미 로드맵 작성및 실행
- 다양한 경시 대회준비, 섬머및 교외 활동

아카데미 프로그램

SAT 1, 2 / AP 수업

- 최고 전문가들의 강의
- 단기 고득점 완성
- 실전 문제 중심 수업
- 상시 참여 및 주말 수업 가능
- 개인 및 스카이프 수업 가능

학업 과목 개인과외 가능

- 영어, 수학, 과학, 외국어, 역사,
- 경제, 심리학, 기타 과목들
- 개인 및 스카이프 수업 가능

2014 주말프로그램

SAT I Class

9:00-10:00 vocabulary
10:00-11:00 수업(critical reading, writing)
11:00-12:00 점심
2:00-5:00 실전문제 풀이

Writing Class

- 현직 영어교사 강의
- 장기간에 걸친 다양한 장르의 체계적인 글쓰기 교육
- *4-5학년:10:00-12:00(토)
- *6-8학년:12:00-2:00(토)

AP 및 SAT II subject, National Spanish Exam 등
준비하는 학생들을 위한 개인지도 가능

여름방학 SAT I 프로그램

- 실력있는 강사진
(영문학박사,공학박사,ivy졸업생)
- 내실있는 프로그램
(매일 단어&실전문제test,엄격한 학사관리)
- 합리적인 수강료
- 다양한 session
(6.23~7.11, 7.14~8.01, 8.04~8.22,9:00-5:30)

Boston Education World, Inc. 보스톤 교육원
128 Wheeler Rd, #301, Burlington, MA 01803 3
tel, 339.234.5255~7 / fax, 339. 234. 5258
www.bostonedu.org 문의: info@bostonedu.org
수업문의: academicservices@bostonedu.org